

49

第49回 韓日經濟人會議

# 報告書

THE 49<sup>th</sup>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17.9.26 ~ 27  
SEOUL, KOREA



산업통상자원부

**KJE**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KOREA-JAPAN COOPERATION FOUNDATION  
FOR INDUSTRY AND TECHNOLOGY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이낙연 국무총리 예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방

##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조현 외교부 장관 대리 예방



왼쪽부터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이시게 히로유키 JETRO 이사장



개회식 전경



##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개회인사)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축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회인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축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평창동계올림 소개) 이희범 위원장



(기조연설) 허창수 전경련 회장



(기조연설) 이시게 히로유키 JETRO 이사장



(경과보고)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보고) 안종원 한국측 চে어맨



(일한신산업무역회의의 보고) 야스 유타카 일본측 চে어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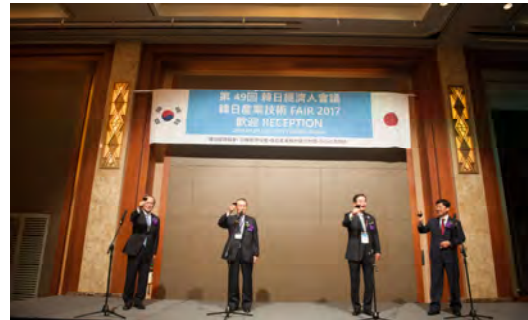
(기념 사진) 한일산업협력상 수상자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환영리셉션



(환영인사) 서동록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본부장



건배제의



SJC합창단 축하공연



SJC합창단 축하공연



##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제1세션 좌장 : 노성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제1세션 발표 :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



제1세션 발표 : 후지야마 도모히코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상석팔로우



제1세션 발표 :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제1세션 발표 : 오오가와라 이키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제2세션 좌장 : 고히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제2세션 발표 :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



제2세션 발표 :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제2세션 코멘트 :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외신기자



질의응답 : 김원기 신시네티대학 교수



제2세션 발표 : 후지요시 유우코우 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 SJC이사장



제2세션 발표 : 다카야스 유우이치 다이토문화대학 교수



질의응답 : 다카스기 노부야 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명예회장



질의응답 : 신각수 세토포럼 이사장



##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질의응답 : 오까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주) 상담역



질의응답 : 와까이 슈지 한국넛켄(주) 사장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부스



새만금 홍보 부스



회의장내 현수막



호텔외부현판



단장단 오찬 & 공동성명심의회



양국단장 공동 기자회견



고레나가 가즈오 전무이사, 사사키 미키오 회장, 김윤 회장, 서석송 부회장



## - 목 차 -

|                                       |    |
|---------------------------------------|----|
| I. 단장단 예방활동 .....                     | 5  |
| II. 회의 개최 성과 .....                    | 8  |
| III. 공동성명 .....                       | 10 |
| IV. 회의일정 .....                        | 12 |
| V. 회의의제 .....                         | 15 |
| VI. 양측 대표단 명단                         |    |
| 1. 한국측 대표단 명단 .....                   | 16 |
| 2. 일본측 대표단 명단 .....                   | 28 |
| VII. 의사록                              |    |
| 1. 개 회 식                              |    |
| (1) 단장인사                              |    |
| 김 윤(金 鈞) 단장 .....                     | 35 |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              | 36 |
| (2) 축 사                               |    |
| 백운규(白雲揆)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38 |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 | 40 |



|  |    |
|--|----|
| (3) 한일산업협력 유공자 포상                            |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기업 및 개인부문 시상                   |    |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상 : 기업 및 개인부문 시상           |    |
| (4) 올림픽 소개                                   |    |
| 이희범(李熙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 42 |
| 2. 기조연설                                      |    |
| (1) 한국측 기조연설                                 |    |
| 허창수(許昌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44 |
| (2) 일본측 기조연설                                 |    |
| 이시게 히로유키(石毛 博行) JETRO 이사장                    | 46 |
| 3.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경과보고                            |    |
| 안종원(安宗原) 사조·동아원그룹 고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51 |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                     | 53 |
| 4. 새만금 및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홍보영상 상영           |    |
| 5. 일반경과보고                                    |    |
| 서석송(徐錫崇)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56 |
| 6. 제1세션 [테마 : 변화하는 세계속의 한일협력]                |    |
| (1)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한일의 협력』                      |    |
| 정인교(鄭仁敎)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 62 |
| (2) 『한일의 세계사적 역할은 무엇인가』                      |    |
| 후지야마 도모히코(藤山 知彦)                             |    |
|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상석 Fellow         | 66 |
| (3)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구축과 한일경제협력』                 |    |
| 안덕근(安德根)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71 |
| (4) 『한일/일한 포럼 25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
| 오오가와라 아키오(大河原 昭夫)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 76 |

7. 제2세션 [테마 :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을 향해서]

- (1) 『4차 산업혁명시대, 한일 협력방안』  
이우광(李佑光)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 ..... 95
- (2) 『향후 한일 양국기업의 연계·협업에 대해』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 SJC이사장 ..... 98
- (3) 『4차 산업혁명과 전문직의 변화』  
이민화(李珉和)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 101
- (4)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일 양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카야스 유우이치(高安 雄一) 다이토(大東)문화대학 경제학부 교수 ..... 104
- (5) 코멘트 : 호리야마 아키코(堀山 明子) 마이니치신문 외신부 기자 ..... 108

8. 폐 회 식

- (1) 공동성명 채택
- (2) 폐회인사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 122  
김 윤(金 鈞) 단장 ..... 122
- (3) 폐회

VIII. 양국단장 공동기자회견 ..... 124

〈부록 1〉 언론 보도자료 ..... 127

〈부록 2〉 프레젠테이션 자료 ..... 195





## I. 단장단 예방활동

### 1. 예방실적

가. 예방시간 및 예방 대상 : 9월 25일(월) 16:00 ~ 9월 26일(화) 14:20

| 예방일정          | 예 방 처            | 성 명   | 비고     |
|---------------|------------------|-------|--------|
| 9월 25일(월)     |                  |       |        |
| 16:00 ~ 16:30 | 국무총리             | 이 낙 연 | 서울정부청사 |
| 9월 26일(화)     |                  |       |        |
| 11:40 ~ 12:00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김 동 연 | 서울정부청사 |
| 13:10 ~ 13:50 | 외교부 2차관          | 조 현   | 외교부청사  |
| 14:00 ~ 14:20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백 운 규 | 롯데호텔서울 |

### 나. 예방자 : 단장 등 일본측 단장단 13명

| NO | 구 분            | 성 명                        | 단체·회사명 / 직위  |
|----|----------------|----------------------------|--|
| 1  | 단 장            | 佐々木 幹夫<br>SASAKI MIKIO     | (일사)일한경제협회 회장<br>(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br>미쓰비시상사(주) 특별고문/前 회장 |
| 2  | 특별참가           | 長嶺 安政<br>NAGAMINE YASUMASA | 주한일본대사관 특명전권대사   |
| 3  | 부 단 장          | 麻生 泰<br>ASO YUTAKA         |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br>아소시멘트(주) 사장<br>(일사)큐슈경제연합회 회장            |
| 4  | 부 단 장          | 上田 勝弘<br>UEDA KATSUHIRO    |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br>오오가기정공(주) 사장                             |
| 5  | 부 단 장          | 荻田 伍<br>OGITA HITOSHI      |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br>아사히그룹(주) 상담역/前 회장                        |
| 6  | 부 단 장          | 岡 素之<br>OKA MOTOYUKI       |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br>스미토모상사(주) 상담역                            |
| 7  | 부 단 장          | 清原 當博<br>KIYOHARA MASAHIRO |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br>호텔오쿠라도쿄(주) 이사상담역                         |
| 8  | 부 단 장          | 古賀 信行<br>KOGA NOBUYUKI     |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br>노무라홀딩스(주) 이사회장                           |
| 9  | 부 단 장          | 井水 治博<br>IMIZU HARUHIRO    |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br>(주)일간공업신문사 사장                            |
| 10 | 부 단 장          | 小平 信因<br>KODAIRA NOBUYORI  |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br>도요타자동차(주) 상담역                            |
| 11 | 특별참가<br>(기조연설) | 石毛 博行<br>ISHIGE HIROYUKI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사장  |
| 12 | 특별참가           | 藤吉 優行<br>FUJIYOSHI YUKO    | SJC 이사장<br>한국미쓰비시상사(주) 사장                                  |
| 13 | 특별참가           | 是永 和夫<br>KORENAGA KAZUO    | (일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br>(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

※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배석

- 국무총리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대사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벳쇼 코로(別所 浩郎) 대사
- 외교부 : 하토리 다카시(羽鳥 隆) 경제공사, 다카하시 켄키치(高橋 健吉) 서기관
- 산업부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대사, 하토리 다카시(羽鳥 隆) 경제공사

※ 한국측 배석 및 안내자

- 김 윤 (사)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주) 회장
- 서석송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사무국 및 통역

- 한국측 : (사)한일경제협회 조덕묘 사무국장, 서광현 과장, 삼양홀딩스(주) 서정배 비서팀장
- 일본측 : 기무라 신이치로(木村 慎一郎) (일사)한일경제협회 이사, 스도 준(須藤 俊) (일사)한일경제협회 사업부장, 이케자와 켄타로(池沢 健太郎) 미쓰비시상사(주) 비서, 가와하라 게이타(河原 啓太) 일간공업커뮤니케이션즈(주) 사원, 이노우에 와타루(井上 渉) (주)일간공업신문사 사장담당
- 통 역 : 김혜원 통역사

다. 정부부처별 의견교환 내용

| 주요 의견교환 내용  |
|---|
| <p>&lt;국무총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경제인회의는 그간 49년간 같은 방향을 향해 모범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양국 간 성숙된 관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li> <li>○ 제3국 공동진출, 청소년교류, 한일축제 한마당, 올림픽 성공개최, 청년취업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인회의의 성공을 기대함</li> </ul>  |
| <p>&lt;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일경제관계가 강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li> <li>○ 제3국의 자원·인프라 투자 공동진출 확대, 문화교류, 청소년 교류, 한국 청년의 일본취업 등에 대해 의견교환하고, 한일경제인회의가 한일협력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함</li> </ul>            |
| <p>&lt;외교부 2차관(장관대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청년실업 및 일본의 구인난을 감안 시 우리 인재의 일본 취업 증대만큼 양국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기 없음을 역설하고 양국정부에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li> <li>○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최근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방한 일본인이 증대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제3국 공동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일 기업간 협력을 당부</li> </ul> |

| 주요 의견교환 내용   |
|--|
| <p>&lt;산업통상자원부 장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일한경제협회가 그간 <b>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b>을 해 온 점과 한일경제인회의가 1969년 이래 매년 양국을 오가면서 49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b>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목표로 협력을 강화해 줄 것</b>을 당부</li> <li>○ 양국 <b>교역·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청소년교류의 중요성, 한국 청년 인재의 일본 취업 활성화</b> 등에 대한 일본 측의 협력을 당부.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국가와의 FTA체결 혜택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한투자 확대를 당부</li> </ul> |
| <p>&lt;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라디보스토크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정상간 합의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b>빠른시일내 서틀외교실현을 기대</b></li> <li>○ 경제·문화·인재를 3대 축으로 한 양국 경제계의 활동상황(글로벌 마켓 공동 진출, 청소년교류, 한국대학생 일본기업 인턴십연수, 한일축제한마당 등) 설명과 함께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망</li> </ul>   |
| <p>&lt;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일손 부족, 한국 청년 취직난과 관련하여 양국정부의 G-G베이스의 지원 체제 구축을 제안</li> </ul>  |
| <p>&lt;김 윤 회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대표단 및 한일경제인회의 소개</li> <li>○ 올림픽 성공기원 양국 뱃지 착용 설명</li> </ul>  |

## 2. 예방성과

- 일본측 단장단(단장 :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일행은 한국측 단장(김윤 회장)의 안내로 국무총리 및 우리 정부부처 예방을 통해, 경제·문화·인재를 3대 축으로 한 양국 경제계의 활동에 대한 서포트를 요망하였으며, 우리측은 양국 교역·투자 확대,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한국 청년인재의 일본 취업 활성화 등에 대한 일본의 협력기대 등을 표명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힘
- (일본측 건의사항) ①한일 경제협력 강화(제3국 공동진출), ②인적교류 확대(청소년교류·일본기업 인턴십 연수), ③문화교류·폴뿌리·시민교류 확대(한일 축제한마당) 등에 대한 서포트 요망



## II. 회의 개최 성과

-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협력 강화 및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자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되었음
  - 제4차 산업혁명·한일 공통과제 해결·청소년 육성교류 등,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의 한일협력에 대해 논의
  - 일본의 고용 확보문제와 한국의 대학생 취업난 등 각각 직면하고 있는 과제 해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7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
    - (1)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끈기있는 노력의 지속
    - (2)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협력
    - (3) 고령화·초미세 먼지 등 생활과 밀접한 공통의 사회과제 극복 협력
    - (4) 자원 개발·인프라 수출 등 제3국에서의 협업 확대
    - (5) 청소년 교류 확대
    - (6) 평창·도쿄올림픽 성공개최 협력, 관광교류 확대
    - (7) 문화교류 확대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
- 내년이면 기념비적인 ‘한일경제인회의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양국 경제인들은 과거 50년간 축적한 협력의 바탕위에서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등을 통해 한일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 나가기로 합의
  - 양국 경제인은 한일경제 협력 축진을 위해, 한일경제인회의를 1969년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양국을 번갈아 가며 계속 개최, 연 인원 1만명을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구축
  - 제50회 회의를 앞두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 공동 리셉션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일본기업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 합창단 공연을 통해, 한일이 협력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호증진 및 경제협력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올림픽의 소개**를 통해, 올림픽의 아시아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평창올림픽과 도쿄올림픽의 성공개최에 대한 경제계의 공감대**를 형성

- 아울러 국가 프로젝트인 '새만금 및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영상 소개와 홍보부스를 운영함으로써 대한 투자유치에 기여
-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한일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경제협력 분위기를 환기시킴으로써 상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
- 일본측 단장단(단장 :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일행은 한국측 단장(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의 안내로 우리 정부부처 예방을 통해 한일경제 협력증진을 위한 민간 경제계 활동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망하였으며, 우리 측은 제3국의 자원·인프라 투자 공동진출 확대, 문화교류, 청소년 교류, 한국 청년의 일본취업 등에 대해 의견교환하고, 한일경제인회의가 한일협력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함
- 종합평가
  - 1969년 이후 지금까지 49회에 이르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한일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한해도 거르지 않고 경제·문화·인재의 3대 축을 이어오며, 경제협력 확대와 우호증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지난 9월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이후 열린 대규모 경제인회의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의 첫발걸음을 내디뎠다는데 큰 의의
  - 북 핵실험·미사일발사로 국내정세에 대한 우려가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넘는 양국 경제인들이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양국 경제계의 한일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음
    - 한일 양국 간에 개최되는 가장 큰 회의로서, 300명을 넘어서는 양국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협력을 통해 양국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대리 예방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한투자·기술제휴·공동사업 추진 등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일본 경제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양국 경제협력 증진에도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됨

### Ⅲ. 공동성명

####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한일협력 강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함께 미래를 열어요!」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7년 9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는 김 윤(金鈞) 단장 등 193명,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단장 등 108명이 참가하였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양국 경제인은 한일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한일경제인회의를 1969년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양국을 번갈아가며 계속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한일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인재의 3대 축을 이어오며, 양국 우호를 위해 힘을 기울여 왔다.

한편 한일 양국 간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원활한 비즈니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안정된 양국 관계가 대전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번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양국 간에 가로놓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한데 대해 한일 양국 경제인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최근의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경제인은 제4차 산업혁명·한일공통과제 해결·청소년 육성교류 등,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의 한일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일 양국은 일본의 고용 확보문제와 한국의 대학생 취업난 등 각각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포함하여 아래 사항에 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끈기있는 노력의 지속」

한일 FTA, 한중일 FTA, 또한 메가 FTA로 대표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아시아 전역의 경제발전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노력을 지속한다.

####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협력」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IoT, AI 등의 자율적 최적화를 보다 고도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생산성 향상·노동인력의 이동·저출산 고령화 대응·최첨단 의료분야·바이오기술의 발전·녹색기술의 혁신 등 폭넓은 발전을 지향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시대를 짚어질 전문 인재의 육성 등 폭넓게 정보와 지혜를 공유하고 협력한다. 또한 발전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양국의 신기술 활용을 위해 제도정비가 추진되기를 양국 정부에 요망한다.

#### 「한일양국 공통의 사회과제 극복을 향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가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의료·요양문제, 초미세먼지(PM2.5) 등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적 측면에서의 대응 등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통 사회과제의 극복을 향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체제 구축에 협력한다.

#### 「제3국에서의 협업 확대」

양국이 자원개발, 인프라 수출 등을 통해 제3국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창조해 가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제3국의 종합적 사회개발에 대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제3국에서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 「청소년 교류를 한층 더 확대」

한일의 다음 50년을 짚어질 젊은이들의 교류 확대와 내실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고교생교류캠프·한일학생미래회의·한국대학생의 주한일본기업에서의 인턴십 연수·중소기업 차세대 경영자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에 가일층의 지원을 요청한다.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향해서」

격동의 세계를 평화로운 세계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두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관광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양국 정부에 대한 기대」

경제·인재 교류와 더불어 ‘한일·일한축제한마당’과 같은 풀뿌리 차원의 문화 교류를 내실 있게 확대하며, 앞으로도 민간의 선두에 서서 양국 우호·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힘써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도 양국 정부의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다음 한일경제인회의는 제50회를 기념하여 2018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17년 9월 27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 IV. 회의 일정

### 9월 25일 (월)

14:00~17:30 일본측 단장단 주요기관 예방  
19:00~20:30 주한일본대사 주최 만찬 (일본측)

### 9월 26일 (화)

09:30~12:00 일본측 단장단 주요기관 예방 (예비)

### 9월 26일 (화)

13:30~14:30 등록·접수 ※ VIP : 2F Jade Room , 사무국 : 3F Pine Room  
14:30~15:10 개회식 ----- 2F Crystall Ballroom I · II

14:30~14:35 개회 (예방활동 보고·의장선출·의제채택)  
14:35~14:55 개회인사  
- 김 윤(金 鈞) 단장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14:55~15:10 내빈축사  
- 백운규(白雲揆)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15:10~15:35 한일산업협력 유공자 포상

15:10~15:2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기업 및 개인부문 시상  
15:25~15:3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상 : 기업 및 개인부문 시상  
15:30~15:35 기념촬영

15:35~15:45 올림픽 소개  
- 이희범(李熙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2020 도쿄올림픽」

15:45~16:00 COFFEE BREAK

16:00~16:40 기조연설

16:00~16:20 허창수(許昌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  
16:20~16:40 이시게 히로유키(石毛 博行) JETRO 이사장

16:40~17:00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경과보고

16:40~16:50 안종원(安宗原) (사)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사조·동아원그룹 고문  
16:50~17:00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

17:00~17:05 새만금 및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영상소개

17:05~17:10 일반경과보고 (한일양국 협회활동)  
- 서석송(徐錫崇)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18:00~19:30 환영리셉션(양국협회,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 2F Crystall Ballroom II · III

## 9월 27일 (수)

07:30~08:30 양국 재단 연락협회의회 \*관계자만 참석 ----- 36F Berkeley Suite

09:00~11:30 SESSION I ----- 2F Crystall Ballroom I · II

[의제 : 변화하는 세계속의 한일협력]

좌장 : 노성태(盧成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 前한국경제연구원 원장

09:00~09:10 좌장 인사 및 진행 설명

09:10~09:30 정인교(鄭仁敎)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제15대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한일의 협력」

09:30~09:50 후지야마 도모히코(藤山 知彦) 국립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상석 Fellow

「한일의 세계사적 역할은 무엇인가」

09:50~10:10 안덕근(安德根)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구축과 한일경제협력」

10:10~10:30 오오가와라 아키오(大河原 昭夫)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한일/일한 포럼 25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0:30~11:30 패널 디스커션, 질의응답

11:30~11:35 좌장총괄

11:45~13:10 오찬회

- 고문·단장단·전문위원장·좌장 (공동성명안 심의)

----- 36F Peacock Suite

- 단 원 ----- 2F Crystall Ballroom III

13:20~15:40      SESSION II ----- 2F Crystall Ballroom I · II  
 [의제 :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좌장 : 고타리 스즈무(小針 進) 시즈오카현립대학 국제관계학부교수·  
 시즈오카현립대학 부속 현대한국조선연구센터장

|             |  |
|-------------|--|
| 13:20~13:30 | 좌장 인사 및 진행 설명  |
| 13:30~13:45 | 이우광(李佑光)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br>「4차 산업혁명시대, 한일 협력방안」                     |
| 13:45~14:00 |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 SJC이사장<br>「향후 한일 양국기업의 연계·협업에 대해」 |
| 14:00~14:15 | 이민화(李珉和)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br>「4차 산업혁명과 전문직의 변화」                           |
| 14:15~14:30 | 다카야스 유우이치(高安 雄一) 다이토(大東)문화대학 경제학부 교수<br>「저출산고령화시대 한일 양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14:30~15:35 | 패널 디스커션, 질의응답<br>* 토론자 : 호리야마 아키코(堀山 明子) 마이니치신문 외신부 기자               |
| 15:35~15:40 | 좌장총괄   |

15:40~16:00      COFFEE BREAK (공동성명(안) 배포)

16:00~16:20      폐회식

|             |                 |
|-------------|-----------------|
| 16:00~16:10 | 공동성명 채택 (양국 낭독) |
| 16:10~16:20 | 양국단장 폐회인사       |
| 16:20       | 폐회              |

16:30~17:00      양국단장 공동기자회견 ----- 2F Athene Garden

## V. 의 제

###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함께 열어요 ~

#### 1. 제 1 세션 [테마 : 변화하는 세계속의 한일협력]

좌 장 : 노성태(盧成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한국측 :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한일의 협력』  
정인교(鄭仁敎)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구축과 한일경제협력』  
안덕근(安德根)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측 : 『한일의 세계사적 역할은 무엇인가』  
후지야마 도모히코(藤山 知彦)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상석 Fellow

『한일/일한 포럼 25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오가와라 아키오(大河原 昭夫)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 2. 제 2 세션 [테마 :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을 향해서]

좌 장 : 고하리 스스무(小針 進) 시즈오카현립대학 현대한국조선연구센터장

한국측 : 『4차 산업혁명시대, 한일 협력방안』  
이우광(李佑光)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

『4차 산업혁명과 전문직의 변화』  
이민화(李珉和)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일본측 : 『향후 한일 양국기업의 연계·협업에 대해』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 SJC이사장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일 양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카야스 유우이치(高安 雄一) 다이토(大東)문화대학 경제학부 교수

## VI. 양국 대표단 명단

# 第49回 韓日經濟人會議

THE 49th KOREA - JAPAN BUSINESS CONFERENCE

2017. 9. 26 ~ 27 SEOUL, KOREA

### 韓國側 代表團 名單

區分別 姓名 가나다 順

| 區 分           | 姓 名                      | 會社・團體名 / 職位   |
|---------------|--------------------------|---|
| 團 長           | 金 鉦<br>KIM Yoon          | (社)韓日經濟協會 會長<br>(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理事長<br>(株)三養 HOLDINGS 會長 |
| 顧 問<br>(基調演說) | 許 昌 秀<br>HUH Chang Soo   | (社)韓日經濟協會 顧問<br>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br>GS Group 會長              |
| 副 團 長         | 金 熙 勇<br>KIM Hi Yong     |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br>東洋物産企業(株) 會長                           |
| 副 團 長         | 朴 三 求<br>PARK Sam Koo    |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br>錦湖ASIANA Group 會長                      |
| 副 團 長         | 朴 仁 求<br>PARK In Gu      |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br>東遠Group 副會長                            |
| 副 團 長         | 禹 石 亨<br>WOO Suk Hyung   |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br>SINDOH Co., Ltd. 會長                    |
| 副 團 長         | 李 輝 寧<br>LEE Howard      |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br>世亞製鋼(株) 社長                             |
| 副 團 長         | 趙 鏞 炳<br>CHO Yong byoung |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br>新韓金融持株會社 會長                            |
| 副 團 長         | 趙 顯 俊<br>CHO Hyun Joon   |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br>(株)曉星 會長                               |
| 副 團 長         | 河 英 鳳<br>HA Young Bong   |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br>(株)GS Energy 代表理事 副會長                  |
| 副 團 長         | 徐 錫 崇<br>SEO Seok Soong  | (社)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br>(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



|                        |                      |  |
|------------------------|----------------------|--|
| 來賓<br>(祝辭)             | 白雲揆<br>PAIK Un Gyu   | 產業通商資源部 長官   |
| 來賓<br>(올림픽 紹介)         | 李熙範<br>LEE Hee Beom  | 2018平昌冬季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 委員長  |
| 來賓                     | 徐東淥<br>SUH Dong Rok  | SEOUL特別市 經濟振興本部 本部長  |
| 來賓                     | 申珏秀<br>SHIN Gak Soo  | (前) 駐日本國大韓民國 特命全權大使<br>SETO FORUM 理事長                          |
| 來賓                     | 柳明桓<br>YU Myung Hwan | 金・張法律事務所 顧問<br>(前) 外交通商部 長官                                    |
| 來賓                     | 李哲雨<br>LEE Cheol Woo | 새만금(세마ングム)開發庁 庁長   |
| 特別參加<br>(韓日新產業貿易會議)    | 安宗原<br>AHN Chong Won | 韓日新產業貿易會議 Chairman<br>SAJO・DongA One Group 顧問<br>(社)韓國貿易協會 副會長 |
| 特別參加<br>(Session 1 座長) | 盧成泰<br>RO Sung Tae   | 우리銀行 理事會 議長<br>(前) 韓國經濟研究院 院長                                  |
| 特別參加<br>(Session 1 發表) | 鄭仁教<br>CHEONG In Kyo | 仁荷大學校 對外副總長  |
| 特別參加<br>(Session 1 發表) | 安德根<br>AHN Duk Geun  | SEOUL大學校 國際大學院 教授  |
| 特別參加<br>(Session 2 發表) | 李佑光<br>LEE Woo Kwang |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諮問委員   |
| 特別參加<br>(Session 2 發表) | 李珉和<br>LEE Min Hwa   | 創造經濟研究會 理事長  |
| 團員                     | 金江熙<br>KIM Kang Hee  |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br>(株)DongHwa Entec 代表理事                        |
| 團員                     | 李景載<br>LEE Gyung Jae |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br>(株)三進LND 會長                                  |
| 團員                     | 李相俊<br>LEE Sang Joon |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br>(株)和寅 代表理事                                   |
| 團員                     | 李洙喆<br>LEE Soo Chul  |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br>(株)GH Holdings 會長                            |
| 團員                     | 李守憲<br>LEE Soo Heon  |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br>三南石油化學(株) 代表理事                               |

|   |   |                         |  |
|---|---|-------------------------|--|
| 團 | 員 | 李 泳 官<br>LEE Young Kwan |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br>Toray尖端素材(株) 代表理事 會長 |
| 團 | 員 | 崔 英 主<br>CHOI Young Joo |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br>PANKO Co., Ltd 會長    |
| 團 | 員 | 崔 雨 珏<br>CHOI Woo Kak   |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br>(株)大成HI-TECH 代表理事    |
| 團 | 員 | 朴 南 淑<br>PARK Nam Sook  | (社)韓日經濟協會 監查<br>共生國際特許情報(株) 代表         |
| 團 | 員 | 李 丞 鎬<br>LEE Seung Ho   | (社)韓日經濟協會 監查<br>法務法人 世宗 辯護士            |
| 團 | 員 | 姜 龍 德<br>KANG Yong Deok | 大邱廣域市 專門委員                             |
| 團 | 員 | 權 泰 信<br>KWON Tae Shin  | 全國經濟人聯合會 副會長                           |
| 團 | 員 | 奇 秉 泰<br>KEE Byung Tae  | Hikari情報(株) 會長                         |
| 團 | 員 | 金 明 煥<br>KIM Myung Hwan | 光陽灣圈經濟自由區域廳 日本Team長                    |
| 團 | 員 | 金 德 吉<br>KIM Duk Kil    | ZIVA ENERGY CORP. 會長                   |
| 團 | 員 | 金 寶 羅<br>KIM Bo Ra      | Mizuho Bank Seoul br. 副部長              |
| 團 | 員 | 金 善 太<br>KIM Sun Tai    | HANA Electric Co, Ltd 代表理事             |
| 團 | 員 | 金 成 煥<br>KIM Sung Hwan  | HAEIN TRAVEL Co, Ltd 代表理事              |
| 團 | 員 | 金 順 喆<br>KIM Soon Cheol |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專門委員                     |
| 團 | 員 | 金 昇 旭<br>KIM Seung Wook | 韓國貿易協會 室長                              |
| 團 | 員 | 金 洋 澎<br>KIM Yang Paeng | 產業研究院 研究委員                             |
| 團 | 員 | 金 鉛 敦<br>KIM Youn Don   | 第一藥品(株) 本部長                            |
| 團 | 員 | 金 永 根<br>KIM Young Geun | 法務法人 世宗 辯護士                            |

|     |                           |                               |
|-----|---------------------------|-------------------------------|
| 團 員 | 金 映 奐<br>KIM Young Hwan   | 三井住友銀行서울支店 Group長             |
| 團 員 | 金 玉 卿<br>KIM Ok Kyung     | Super Light Case Co., Ltd. 代表 |
| 團 員 | 金 元 基<br>KIM Won Kee      | Cincinnati University 教授      |
| 團 員 | 金 源 昌<br>Kim Won chang    | Super Light Case Co., Ltd. 會長 |
| 團 員 | 金 一 京<br>KIM Il kyung     | KOTRA 東北亞事業團 次長               |
| 團 員 | 金 載 鉉<br>KIM Jae Hyun     | SAMSONG CASTER Co., Ltd. 代表理事 |
| 團 員 | 金 堯 大<br>KIM Yo Dae       | 金&張法律事務所 會計士                  |
| 團 員 | 金 沄 秀<br>KIM Houn Su      | 韓國鐵道協會 課長                     |
| 團 員 | 金 亨 駿<br>KIM Hyeong Jun   | 金&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
| 團 員 | 金 和 男<br>KIM Hwa Nam      | (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會長             |
| 團 員 | 金 孝 眞<br>KIM Hyo Jin      | GEO Nation(株)代表理事社長           |
| 團 員 | 高 汶 壽<br>KO Moon Soo      | 韓國自動車産業協同組合 專務理事              |
| 團 員 | 高 正 錫<br>KOH Jung Suk     | 三星物産 副社長                      |
| 團 員 | 吉 元 浩 二<br>YOSHIMOTO Koji | 國立慶尙大學校 教授                    |
| 團 員 | 羅 鐘 式<br>NA Jong Sik      | We-TNC Corp. 專門委員             |
| 團 員 | 羅 愛 蘭<br>NA Ae Ran        | N.S SIGN PLAN Co., Ltd. 代表理事  |
| 團 員 | 林 翼 喆<br>LIM Ik Chul      | (株)TTS 技術顧問                   |
| 團 員 | 号 재 우<br>MOON Jae Woo     | 韓國鐵道協會 事務局長                   |

|     |                              |                                    |
|-----|------------------------------|------------------------------------|
| 團 員 | 閔 樹 泓<br>MIN Soo Hong        | (株)FRONTEC 代表理事                    |
| 團 員 | 朴 晟 淑<br>PARK Sung Sook      | Cruise Marina Bay Co., Ltd. 社長     |
| 團 員 | 朴 寅 東<br>PARK In Dong        | 金&張法律事務所 辯護士                       |
| 團 員 | 朴 政 九<br>PARK Jung Koo       | 光陽灣圈經濟自由區域廳 專門委員                   |
| 團 員 | 朴 宰 完<br>PARK Jae Wan        | SCREEN HD Korea Co., Ltd. 副社長      |
| 團 員 | 朴 在 弘<br>PARK Jae Hong       | LOTTE HOTEL SEOUL 總支配人             |
| 團 員 | 朴 中 培<br>PARK Joong Bae      | 全國經濟人聯合會 前任研究員                     |
| 團 員 | 朴 希 敏<br>PARK Hee Min        | 새만금(세마ングム)開發庁 交流協力 課長              |
| 團 員 | 裴 峻 瑩<br>BAE Jun Young       | 韓國航空宇宙産業 課長                        |
| 團 員 | 司 空 穆<br>SAKONG Mok          | 産業研究院 研究委員                         |
| 團 員 | 徐 宇 謙<br>SEO Woo Gyeom       | Korea Consultion Service Center 代表 |
| 團 員 | 小 林 直 人<br>Kobayashi Naohito | 金&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
| 團 員 | 宋 成 基<br>SONG Sung Gi        | (株)META國際教育院 院長                    |
| 團 員 | 宋 松 伊<br>SONG Song Iee       | 韓國貿易協會 次長                          |
| 團 員 | 申 京 美<br>SHIN Kyung Mi       | S4U(株) 代表                          |
| 團 員 | 申 長 燮<br>SHIN Jang Sub       | ACTRA LTD. 代表理事                    |
| 團 員 | 申 鉉 根<br>SHIN Hyun Geun      | HG新素材 代表理事                         |
| 團 員 | 申 鴻 甲<br>SHIN Hong Gab       | Monozukuri Instructor 指導委員         |

|   |   |      |       |       |                                |
|---|---|------|-------|-------|--------------------------------|
| 團 | 員 | 沈    | 潤     | 輔     | ADDI Global Co.,LTD 代表理事       |
|   |   | Y.B  |       | SHIM  |                                |
| 團 | 員 | 安    | 鍾     | 潤     | (株)企業革新Center 專門委員             |
|   |   | AHN  | Jong  | Youn  |                                |
| 團 | 員 | 安    | 熙     | 哲     | DOOHA Co.,LTD 代表理事             |
|   |   | AHN  | Hee   | Chul  |                                |
| 團 | 員 | 梁    | 仁     | 根     | (株)TOUR 2000 旅行社 課長            |
|   |   | YANG | In    | Cheon |                                |
| 團 | 員 | 嚴    | 致     | 成     | 全國經濟人聯合會 常務                    |
|   |   | EOM  | Chi   | Sung  |                                |
| 團 | 員 | 呂    | 輝     | 九     | 群山自由貿易地域管理院 輸出産業課長             |
|   |   | YEO  | Hwi   | Goo   |                                |
| 團 | 員 | 吳    | 泰     | 憲     | 慶熙Cyber大學校 教授                  |
|   |   | OH   | Tae   | Heon  |                                |
| 團 | 員 | 柳    | 寬     | 榮     | 前 産業研究院 研究委員                   |
|   |   | RHYU | Kwan  | Yeong |                                |
| 團 | 員 | 劉    | 勝     | 吉     | GAMSUNG 理事                     |
|   |   | YU   | Seung | Gil   |                                |
| 團 | 員 | 柳    | 承     | 辰     | TAPS International Ltd., 本部長   |
|   |   | YU   | Seung | Jin   |                                |
| 團 | 員 | 俞    | 寅     | 善     | (株)ACE ENGINEERING 代表理事        |
|   |   | YOU  | In    | Sun   |                                |
| 團 | 員 | 李    | 南     | 恩     | 一虎ENG 代表                       |
|   |   | LEE  | Nam   | Eun   |                                |
| 團 | 員 | 李    | 大     | 權     |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本部長                 |
|   |   | LEE  | Dae   | Kwon  |                                |
| 團 | 員 | 李    | 東     | 列     | 朝一貿易(株) 次長                     |
|   |   | LEE  | Dong  | Yeol  |                                |
| 團 | 員 | 李    | 承     | 雨     | Cruise Marina Bay Co., Ltd. 會長 |
|   |   | LEE  | Sung  | Woo   |                                |
| 團 | 員 | 李    | 丞     | 濬     | KEB하나(ハナ)銀行 外國人投資事業部 Team長     |
|   |   | LEE  | Seung | Joon  |                                |
| 團 | 員 | 李    | 榮     | 周     | 産業研究院 研究委員                     |
|   |   | LEE  | Young | Joo   |                                |
| 團 | 員 | 李    | 榮     | 澤     | World Entertainment 代表         |
|   |   | LEE  |       | James |                                |

|   |   |        |        |       |                        |
|---|---|--------|--------|-------|------------------------|
| 團 | 員 | 李      | 龍      | 燮     | (社)亞太經濟研究院 副院長         |
|   |   | LEE    | Yong   | Seop  |                        |
| 團 | 員 | 李      | 殷      | 旭     | 서울交通公社 次長              |
|   |   | LEE    | Eun    | Uk    |                        |
| 團 | 員 | 李      | 一      | 魯     | KEB하나(ハナ)銀行 Team長      |
|   |   | LEE    | Il     | Ro    |                        |
| 團 | 員 | 李      | 長      | 遠     | 朝一貿易(株) 代表理事           |
|   |   | LEE    | Jang   | Won   |                        |
| 團 | 員 | 李      | 鐘      | 允     | 韓日經商學會 顧問・韓國外國語大學 名譽教授 |
|   |   | RHEE   | Chong  | Yun   |                        |
| 團 | 員 | 李      | 地      | 平     | LG經濟研究院 首席研究委員         |
|   |   | LEE    | Ji     | Pyong |                        |
| 團 | 員 | 伊 集 院  | 秀 樹    |       | Toray尖端素材(株) 代表理事 副會長  |
|   |   | IJUIN  | Hideki |       |                        |
| 團 | 員 | 李      | 八      | 成     | 金&張法律事務所 顧問            |
|   |   | LEE    | Pal    | Seung |                        |
| 團 | 員 | 李      | 亨      | 五     | 淑明女子大學校 教授             |
|   |   | LEE    | Hyung  | Oh    |                        |
| 團 | 員 | 丁      | 壽      | 璟     | 大韓商工會議所 課長             |
|   |   | JUNG   | Soo    | Kyung |                        |
| 團 | 員 | 丁      | 銀      | 和     | SETO FORUM 事務局長        |
|   |   | CHUNG  | Eun    | Hwa   |                        |
| 團 | 員 | 鄭      | 俊      | 明     | 金・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
|   |   | CHUNG  | June   | Myong |                        |
| 團 | 員 | 鄭      | 英      | 雄     | SMART FACTORY 代表       |
|   |   | JEOUNG | Yeoung | Uoong |                        |
| 團 | 員 | 趙      | 錫      | 熙     | (株)TCC東洋 代表理事 社長       |
|   |   | CHO    | Seok   | Hee   |                        |
| 團 | 員 | 趙      | 彥      | 政     | 韓國產業技術大學校 教授           |
|   |   | CHO    | Un     | Chung |                        |
| 團 | 員 | 趙      | 鏞      | 元     | 韓國製造經營革新中心 專門委員        |
|   |   | CHO    | Yong   | Won   |                        |
| 團 | 員 | 周      | 旻      | 貞     | 金&張法律事務所 辯護士           |
|   |   | JOO    | Min    | Jeong |                        |
| 團 | 員 | 崔      | 錫      | 源     | 元一通商 社長                |
|   |   | CHOI   | Souk   | Won   |                        |



|             |                           |                                       |
|-------------|---------------------------|---------------------------------------|
| 團 員         | 崔 榮 鎬<br>CHOI Young Ho    | 大邱慶北經濟自由區域廳 大邱本部長                     |
| 團 員         | 崔 炯 基<br>CHOI Hyeong Ki   | 韓國機械產業振興會 副會長                         |
| 團 員         | 藤 澤 惠 子<br>FUJISAWA Keiko | KEB하나(ハナ)銀行 外國人投資事業部 課長               |
| 團 員         | 韓 光 熙<br>HAN Kwang Hee    | HANSHIN UNIVERSITY 教授                 |
| 團 員         | 許 南 整<br>HUH Nam Jung     | S4U 會長                                |
| 團 員         | 玄 政 桓<br>Hyun Jungh Wan   | 光云大學校 國際通商學部 助教授                      |
| 團 員         | 黃 載 皓<br>HWANG Jae Ho     | NHN Hangame 日本法人 代表                   |
| 團 員         | 黃 昊 均<br>HWANG Ho Kyoon   | (株)大成INNOTECH 副會長                     |
| 韓日產業協力賞 受賞者 | 金 俔 琳<br>KIM Kyung Lim    | SUNGJINMETALTECH CO.,LTD 代表理事         |
| 韓日產業協力賞 受賞者 | 金 範 求<br>KIM Beom Gu      | Nara Corporation 課長                   |
| 韓日產業協力賞 受賞者 | 朴 慶 洙<br>PARK Kyung Soo   | 永信特殊鋼 理事                              |
| 韓日產業協力賞 受賞者 | 齋 藤 敏 郎<br>SAITO Toshiro  | Fine Moulding Tech 代表理事               |
| 韓日產業協力賞 受賞者 | 李 炳 克<br>LEE Byung Keuk   | CARIMA CO.,LTD 代表理事                   |
| 韓日產業協力賞 受賞者 | 李 相 範<br>LEE Sang Beom    | CANA PACKING & LOGISTICS CO.,LTD 代表理事 |
| 韓日產業協力賞 受賞者 | 李 政 錫<br>LEE Jung Suk     | 豐林貿藥(株) 代表理事                          |
| 韓日產業協力賞 受賞者 | 張 東 炫<br>JANG Dong Hyun   | CIG(株) 代表理事                           |
| 韓日產業協力賞 受賞者 | 崔 盛 煥<br>CHOI Seong Hwan  | SUNGWOO ENEX CO.,LTD 代表理事             |
| Observer    | 李 鎬 俊<br>LEE Ho Joon      | 産業通商資源部 通商協力局 局長                      |

|          |                           |                                  |
|----------|---------------------------|----------------------------------|
| Observer | 趙 守 貞<br>CHO Soo Jung     |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課長                |
| Observer | 具 教 榮<br>GU Kyo Young     |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事務官               |
| Observer | 李 美 珍<br>LEE Mi Jin       | 서울特別市 經濟政策課 企業協力Team長            |
| Observer | 金 聖 泰<br>KIM Seong Tae    | 서울特別市 經濟政策課 主務官                  |
| Observer | 梁 奇 陽<br>YANG Gi Yang     | 全羅北道 外資誘致 Team長                  |
| Observer | 金 錫 珍<br>KIM Suk Jin      | 全羅北道 外資誘致 職員                     |
| Observer | 洪 斗 鎭<br>HONG Du Jin      | 새만금(세마ングム)開發庁 庁長室 秘書官            |
| Observer | 李 範<br>LEE Beom           | 새만금(세마ングム)開發庁 交流協力課 事務官          |
| Observer | 余 京 珠<br>YEO Kyeong Joo   | 새만금(세마ングム)開發庁 交流協力課 主務官          |
| 隨 行 員    | 姜 倫 衡<br>KANG Ryun Hyeong | 群山自由貿易地域管理院 輸出産業課 主務官            |
| 隨 行 員    | 金 世 成<br>KIM Se Sung      |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技術協力Team長             |
| 隨 行 員    | 金 是 延<br>KIM Si Youn      | 共生國際特許情報(株) 代理                   |
| 隨 行 員    | 杜 庚 澤<br>DOO Kyoung Taek  | (株)TCC東洋 海外營業Team 次長             |
| 隨 行 員    | 文 祥 源<br>MOON Sang Won    | (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部長                |
| 隨 行 員    | 朴 光 用<br>PARK Kwang Young | 大邱慶北經濟自由區域廳<br>大邱本部 誘致支援1Team長   |
| 隨 行 員    | 徐 禎 培<br>SEO Jeong Bae    | (株)三養 HOLDINGS 秘書Team長           |
| 隨 行 員    | 宋 均 鎬<br>SONG Gyun Ho     | 韓國機械産業振興會 Team長                  |
| 隨 行 員    | 宋 杼 炫<br>SONG Seo Hyeon   | 大邱慶北經濟自由區域廳<br>大邱本部 誘致1部 投資誘致主務官 |

|       |                         |                                   |
|-------|-------------------------|-----------------------------------|
| 隨 行 員 | 申 泳 國<br>SHIN Young Guk |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技術協力Team 主任            |
| 隨 行 員 | 尹 나 斗<br>YOON Na Ra     | GEO Nation(株)技術營業部 代理             |
| 隨 行 員 | 尹 振 源<br>YOON Jin Won   | 大邱慶北經濟自由區域廳<br>大邱本部 誘致1部長         |
| 隨 行 員 | 李 商 印<br>LEE Sang In    | GEO Nation(株)技術營業部 部長             |
| 隨 行 員 | 李 相 赫<br>LEE Sang Hyuk  | SAMSONG CASTER Co., Ltd. 代理       |
| 隨 行 員 | 李 錫 泳<br>LEE Seok Young | 東洋物産企業(株) 營業Team 部長               |
| 隨 行 員 | 李 素 媛<br>LEE So won     | 全國經濟人聯合會 國際協力室 地域協力Team長          |
| 隨 行 員 | 李 妍 姬<br>LEE Yeon Heui  | 三星物産 企劃Team 次長                    |
| 隨 行 員 | 李 海 昌<br>LEE Hae Chang  | 日本貿易振興機構 서울事務所 次長                 |
| 隨 行 員 | 李 炯 旭<br>LEE Hyung Wook | GS Group 秘書室 課長                   |
| 隨 行 員 | 張 星 均<br>JANG Sung Gyun | S4U(株) 室長                         |
| 隨 行 員 | 全 承 勳<br>JUN Seung Hun  | (株)TTS 營業管理Team 代理                |
| 隨 行 員 | 鄭 在 容<br>JUNG Jae Yong  | ZIVA ENERGY CORP. 社員              |
| 隨 行 員 | 貫 井 英 一<br>NUKUI Eiichi | ZIVA ENERGY CORP. 社員              |
| 隨 行 員 | 崔 文 碩<br>CHOI Moon Seok | 韓國自動車産業協同組合 通商技術支援室長              |
| 隨 行 員 | 崔 宗 變<br>CHOI Jong Sub  | 大邱慶北經濟自由區域廳<br>大邱本部 誘致2部 投資誘致專門委員 |
| 隨 行 員 | 崔 哲 柱<br>CHOI Cheol Joo | ADDI Global Co.,LTD Team長         |
| 隨 行 員 | 韓 秉 浩<br>HAN Byeong Ho  | SINDOH Co., Ltd. Team長            |

|                        |          |        |        |                                     |
|------------------------|----------|--------|--------|-------------------------------------|
| 韓日學生未來會議               | 嚴        | 美      | 晶      | 漢陽大學校 3學年                           |
|                        | EOM      | Mi     | Jeong  |                                     |
| 韓日學生未來會議               | 林        | 秀      | 持      | 漢陽大學校 3學年                           |
|                        | LIM      | Su     | Ji     |                                     |
| 韓日學生未來會議               | 李        | 演      | 美      | 全北大學校 2學年                           |
|                        | LEE      | Yeon   | Mi     |                                     |
| 韓日學生未來會議               | 朴        | 勝      | 潤      | 韓國外國語大學校 2學年                        |
|                        | PARK     | Sung   | Yoon   |                                     |
| 韓日學生未來會議               | 金        | 旻      | 載      | 全北大學校 3學年                           |
|                        | KIM      | Min    | Jae    |                                     |
| 韓日學生未來會議               | 金        | 昭      | 蕙      | 韓國外國語大學校 2學年                        |
|                        | KIM      | So     | Hye    |                                     |
| 韓日産業技術FAIR 2017<br>事務局 | 金        | 德      | 淵      |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br>對外協力室 室長          |
|                        | KIM      | Deok   | Yeon   |                                     |
| 韓日産業技術FAIR 2017<br>事務局 | 劉        | 崇      | 勳      |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br>産業協力室 室長          |
|                        | YOO      | Sung   | Hun    |                                     |
| 韓日産業技術FAIR 2017<br>事務局 | 張        | 震      | 旭      |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br>日本經濟研究Center長      |
|                        | CHANG    | Jin    | Wook   |                                     |
| 韓日産業技術FAIR 2017<br>事務局 | 金        |        | 瑋      |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br>産業協力室 Team長        |
|                        | KIM      |        | Tak    |                                     |
| 韓日産業技術FAIR 2017<br>事務局 | 李        | 炳      | 國      |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br>對外協力室 Team長        |
|                        | LEE      | Byeong | Kook   |                                     |
| 韓日産業技術FAIR 2017<br>事務局 | 金        | 度      | 勳      |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br>堺市産業 Team長         |
|                        | KIM      | Do     | Hoon   |                                     |
| 韓日産業技術FAIR 2017<br>事務局 | 田        | 在      | 鎔      |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br>日本經濟研究Center Team長 |
|                        | JUN      | Jae    | Yong   |                                     |
| 韓日産業技術FAIR 2017<br>事務局 | 張        | 允      | 鍾      |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br>産業協力室 Team長        |
|                        | JANG     | Yun    | Jong   |                                     |
| 韓日産業技術FAIR 2017<br>事務局 | 深        | 堀      | すずか    |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br>日本經濟研究Center 研究員   |
|                        | FUKAHORI |        | Suzuka |                                     |
| 韓日經濟人會議<br>事務局         | 趙        | 德      | 卯      |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
|                        | CHO      | Duck   | Myo    |                                     |
| 韓日經濟人會議<br>事務局         | 金        | 正      | 鎬      | (社)韓日經濟協會 部長                        |
|                        | KIM      | Jung   | Ho     |                                     |
| 韓日經濟人會議<br>事務局         | 徐        | 光      | 賢      | (社)韓日經濟協會 課長                        |
|                        | SUH      | Kwang  | Hyun   |                                     |

韓日經濟人會議  
事務局

李 裕 卿  
LEE You Kyong

(社)韓日經濟協會 研究員

韓日同時通譯士

金 惠 媛  
KIM Hae Won

韓日同時通譯士

韓日同時通譯士

李 定 南  
LEE Jeong Nam

韓日同時通譯士

# 第49回 日 韓 経 済 人 会 議

## THE 49TH JAPAN-KOREA BUSINESS CONFERENCE

2017. 09. 26～27 SEOUL, KOREA

(敬称略・順不同)

|                  |                              |  |
|------------------|------------------------------|--|
| 団 長              | 佐々木 幹 夫<br>SASAKI MIKIO      | (一社)日韓経済協会 会長<br>三菱商事㈱ 特別顧問            |
| 副 団 長            | 麻 生 泰<br>ASO YUTAKA          |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br>麻生セメント㈱ 代表取締役会長      |
| 副 団 長            | 上 田 勝 弘<br>UEDA KATSUHIRO    |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br>大垣精工㈱ 代表取締役社長        |
| 副 団 長            | 岡 素 之<br>OKA MOTOYUKI        |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br>住友商事㈱ 相談役            |
| 副 団 長            | 荻 田 伍<br>OGITA HITOSHI       |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br>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 相談役 |
| 副 団 長            | 清 原 當 博<br>KIYOHARA MASAHIRO |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br>㈱ホテルオークラ東京 取締役相談役    |
| 副 団 長            | 古 賀 信 行<br>KOGA NOBUYUKI     |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br>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 取締役会長    |
| 副 団 長            | 井 水 治 博<br>IMIZU HARUHIRO    |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br>㈱日刊工業新聞社 代表取締役社長     |
| 副 団 長            | 小 平 信 因<br>KODAIRA NOBUYORI  | (一社)日韓経済協会 諮問委員会副会長<br>トヨタ自動車㈱ 相談役     |
| 来 賓              | 長 嶺 安 政<br>NAGAMINE YASUMASA |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特命全権大使                     |
| 特別参加<br>基調講演     | 石 毛 博 行<br>ISHIGE HIROYUKI   | 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振興機構 理事長                     |
| 特別参加<br>コーディネーター | 小 針 進<br>KOHARI SUSUMU       | 静岡県立大学 教授                              |
| 特別参加<br>発表者      | 藤 山 知 彦<br>FUJIYAMA TOMOHIKO | 国立研究開発法人科学技術振興機構<br>研究開発戦略センター 上席フェロー  |
| 特別参加<br>発表者      | 大河原 昭 夫<br>OKAWARA AKIO      | 公益財団法人日本国際交流センター 理事長                   |
| 団 員<br>発表者       | 藤 吉 優 行<br>FUJIYOSHI YUKO    | SEOUL JAPAN CLUB 理事長<br>韓国三菱商事㈱ 代表理事社長 |
| 特別参加<br>発表者      | 高 安 雄 一<br>TAKAYASU YUICHI   | 大東文化大学経済学部 教授                          |
| 特別参加<br>討論者      | 堀 山 明 子<br>HORIYAMA AKIKO    | 毎日新聞 外信部副部長                            |



|    |                              |                         |
|----|------------------------------|-------------------------|
| 団員 | 山崎 幸男<br>YAMAZAKI YUKIO      | 旭硝子ファインテクノ韓国(株) 代表理事社長  |
| 団員 | 橋本 直樹<br>HASHIMOTO NAOKI     | 旭硝子ファインテクノ韓国(株) 理事      |
| 団員 | 大堀 英生<br>OHORI HIDEO         | 韓国伊藤忠(株) 代表理事社長         |
| 団員 | 葛西 邦武<br>KASAI KUNITAKE      | (株) I H I 韓国支店・支店長      |
| 団員 | 秋葉 哲<br>AKIBA SATOSHI        | 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株) 秘書室長 |
| 団員 | 前田 一樹<br>MAEDA KAZUKI        | 出光電子材料韓国(株) 代表理事社長      |
| 団員 | 千経 坡<br>CHUN KYOUNGPA        | N K N(株) 取締役社長          |
| 団員 | 応和 賢治<br>OWA KENJI           | エム・エイチ・アイ・コリア(株) 代表理事社長 |
| 団員 | 高杉 暢也<br>TAKASUGI NOBUYA     | (社)韓日文化・産業交流協会 名誉会長     |
| 団員 | 松尾 浩文<br>MATSUO HIROFUMI     | (一社)九州経済連合会 国際部副部長      |
| 団員 | 若林 卓<br>WAKABAYASHI TAKASHI  | 錦湖ポリケム(株) 代表取締役副社長      |
| 団員 | 宮内 孝治<br>MIYAUCHI TAKAHARU   | 三南石油化学(株) 副社長           |
| 団員 | 野原 靖<br>NOHARA YASUSHI       | 静岡県ソウル事務所 副所長           |
| 団員 | 閔 邵 暎<br>MIN SOYOUNG         | 静岡県ソウル事務所 課長            |
| 団員 | 高橋 広一郎<br>TAKAHASHI KOICHIRO | G S パーク24(株) 常務執行役員     |
| 団員 | 楊 仁 集<br>YANG IN-JIP         | 眞露(株) 顧問                |
| 団員 | 大和田 哲也<br>OWADA TETSUYA      | 全日本空輸(株) ソウル支店支店長       |
| 団員 | 土屋 英之<br>TSUCHIYA HIDEYUKI   | 住友商事(株) 秘書部長            |
| 団員 | 伊崎 正人<br>IZAKI MASATO        | 住友商事(株) グローバル業務部部長代理    |
| 団員 | 矢野 音道<br>YANO OTOMICHI       | 韓国住友商事(株) 代表理事社長        |
| 団員 | 全 裕 善<br>CHUN YOO-SUN        | 韓国住友商事(株) 理事・経営支援本部長    |

|    |                                |                                   |
|----|--------------------------------|-----------------------------------|
| 団員 | 中土井 誠<br>NAKADOI MAKOTO        | 韓国双日(株) 代表理事社長                    |
| 団員 | 内 藤 一 晃<br>NAITO KAZUAKI       | 韓国双日(株) 管理・企画グループ次長               |
| 団員 | 山 口 昭 雄<br>YAMAGUCHI AKIO      | 太栄山九国際物流(株) 営業部部长                 |
| 団員 | 藤 田 直 哉<br>FUJITA NAOYA        | 月島機械(株) 取締役常務執行役員                 |
| 団員 | 佐 藤 伸 介<br>SATO SHINSUKE       | 月島機械(株) 海外営業部部长                   |
| 団員 | 早乙女 智 紀<br>SOTOME TOMONORI     | 月島機械(株) 海外営業部副部长                  |
| 団員 | 吉 田 明 久<br>YOSHIDA AKIHISA     | 韓国トヨタ自動車(株) 代表理事社長                |
| 団員 | 丁 海 洋<br>JUNG HAE-YANG         | 韓国トヨタ自動車(株) 常務理事                  |
| 団員 | 井 上 涉<br>INOUE WATARU          | (株)日刊工業新聞社 本社編集局次長兼経済部長           |
| 団員 | 若 井 修 二<br>WAKAI SHUJI         | 韓国日研(株) 代表理事社長                    |
| 団員 | 柏 頼 之<br>KASHIWAGI YORIYUKI    | 日本航空(株) 執行役員                      |
| 団員 | 溝 上 直 思<br>MIZOGAMI NAOSHI     | 日本航空(株) 政策業務部部长代理                 |
| 団員 | 姫 路 貴 弘<br>HIMEJI TAKAHIRO     | 日本航空(株) 韓国支店支店長                   |
| 団員 | 関 口 正 俊<br>SEKIGUCHI MASATOSHI | 日本商工会議所 ソウル事務所所長                  |
| 団員 | 内 田 陽 之<br>UCHIDA HARUYUKI     | (一社)日本貿易会 政策業務グループ部長              |
| 団員 | 清 水 顕 司<br>SHIMIZU KENJI       | (独)日本貿易振興機構<br>企画部海外地域戦略主幹(北東アジア) |
| 団員 | 三 宅 悠 有<br>MIYAKE YU           | (独)日本貿易振興機構 総務部秘書室室長代理            |
| 団員 | 保 科 聡 宏<br>HOSHINA TOSHIHIRO   | (独)日本貿易振興機構 ソウル事務所所長              |
| 団員 | 末 永 敏<br>SUENAGA SATOSHI       | (独)日本貿易振興機構 ソウル事務所副所長             |
| 団員 | 田 倉 三 葵<br>TAKURA MIZUKI       | 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株) 経営企画部課長             |
| 団員 | 古 谷 卓 也<br>FURUYA TAKUYA       | 野村金融投資(株) 代表理事社長                  |

|    |                                |                                 |
|----|--------------------------------|---------------------------------|
| 団員 | 楊 崇 文<br>YANG SUNGMOON         | 野村金融投資㈱ 顧問                      |
| 団員 | 立 谷 光太郎<br>TACHIYA KOTARO      | ㈱博報堂 執行役員                       |
| 団員 | 山 野 陽 一<br>YAMANO YOICHI       | ㈱日立製作所 グローバル渉外本部副本部長            |
| 団員 | 大 出 隆<br>OHDE TAKASHI          | ㈱日立製作所 グローバル渉外本部本部長付            |
| 団員 | 森 島 康 裕<br>MORISHIMA YASUHIRO  | ㈱日立製作所<br>営業統括本部グローバル事業推進本部本部長付 |
| 団員 | 池 田 絵美子<br>IKEDA EMIKO         | ㈱日立製作所 グローバル渉外本部国際渉外部主任         |
| 団員 | 武 内 敬 司<br>TAKEUCHI KEIJI      | ㈱韓国日立 代表理事・社長                   |
| 団員 | 朴 起 爽<br>PARK KISEOK           | ㈱ビーコンコリア 代表理事社長                 |
| 団員 | 崔 然 駿<br>CHOI YEONJUN          | ㈱ビーコンコリア 営業次長                   |
| 団員 | 黒 柳 佑 介<br>KUROYANAGI YUSUKE   | ㈱ビーコンコリア 日本企業支援チームマネージャー        |
| 団員 | 清 田 義 史<br>SEITA YOSHIFUMI     | ㈱ホテルオークラ東京 営業部宴会予約課課長           |
| 団員 | 稲 積 和 典<br>INAZUMI KAZUNORI    | 丸紅㈱ 市場業務部アジア大洋州チーム課長            |
| 団員 | 立 川 健 介<br>TATSUKAWA KENSUKE   | 韓国丸紅㈱ 代表理事社長                    |
| 団員 | 加 藤 勝 彦<br>KATO MASAHIKO       | ㈱みずほ銀行 ソウル支店支店長                 |
| 団員 | 井 口 武 雄<br>INOKUCHI TAKEO      |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 シニアアドバイザー           |
| 団員 | 橋 本 城里雄<br>HASHIMOTO JORIO     |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韓国支店 韓国支店長           |
| 団員 | 國 賀 久 徳<br>KOKUGA HISANORI     | ㈱三井住友銀行 常務執行役員東アジア本部長           |
| 団員 | 高 橋 克 周<br>TAKAHASHI KATSUNORI | ㈱三井住友銀行ソウル支店 韓国代表・支店長           |
| 団員 | 三 木 篤 行<br>MIKI ATSUYUKI       | 韓国三井物産㈱ 代表理事・社長                 |
| 団員 | 齋 藤 雅 文<br>SAITO MASAFUMI      | 韓国三井物産㈱ 経営企画本部本部長               |
| 団員 | 李 在 鎔<br>LEE JAE-YONG          | 韓国三井物産㈱ 業務管理本部本部長               |

|       |                               |   |
|-------|-------------------------------|---|
| 団 員   | 鶴 見 大 輔<br>TSURUMI DAISUKE    | 三菱商事(株)<br>業務部アジア・大洋州チームチームリーダー                   |
| 団 員   | 池 澤 健太郎<br>IKEZAWA KENTARO    | 三菱商事(株)<br>業務部アジア・大洋州チームマネージャー                    |
| 団 員   | 森 原 康 夫<br>MORIHARA YASUO     | 韓国三菱商事(株) コーポレート本部部長代行                            |
| 団 員   | 金 ヌリ<br>KIM NURI              | 韓国三菱商事(株) コーポレート本部企画業務                            |
| 団 員   | 池 内 克 年<br>IKEUCHI KATSUTOSHI | (株)三菱東京ＵＦＪ銀行 ソウル支店支店長                             |
| 団 員   | 有 岡 太 一<br>ARIOKA TAICHI      | 三菱ＵＦＪ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br>国際ビジネスコンサルティング部コンサルタント   |
| 団 員   | 高 橋 富 雄<br>TAKAHASHI TOMIO    | 宮城県ソウル事務所 所長                                      |
| 団 員   | 新 井 健<br>ARAI KEN             | 法務法人(有)同人 専門委員                                    |
| 団 員   | 是 永 和 夫<br>KORENAGA KAZUO     | (一社)日韓経済協会 専務理事                                   |
| 団 員   | 杉 山 茂 夫<br>SUGIYAMA SHIGEO    | (一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                                   |
| 特別参加  | 齋 藤 敦<br>SAITO ATSUSHI        |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日韓経済室室長                                |
| 特別参加  | 松 田 茂 浩<br>MATSUDA SHIGEHIRO  |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日韓経済室 外務事務官                            |
| 特別参加  | 桐 部 仁 志<br>KIRIBE HITOSHI     |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韓国室室長                                  |
| 特別参加  | 伊集院 健 夫<br>IJUIN TAKEO        | 経済産業省九州経済産業局 国際部国際部長                              |
| 特別参加  | 羽 鳥 隆<br>HATORI TAKASHI       |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公使                                    |
| 特別参加  | 有 馬 伸 明<br>ARIMA NOBUAKI      |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参事官                                   |
| 特別参加  | 上 野 裕 大<br>UENO YUDAI         |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参事官                                   |
| 特別参加  | 高 橋 建 吉<br>TAKAHASHI KENKICHI |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書記官                                   |
| 特別参加  | 金 子 卓 生<br>KANEKO TAKAO       | Japan-Korea Students Future Forum<br>早稲田大学 商学部    |
| 特別参加  | 金 イェリョン<br>KIM YERYEONG       | Japan-Korea Students Future Forum<br>早稲田大学 国際教養学部 |
| 事 務 局 | 千吉良 泰 三<br>CHIGIRA TAIZO      | (一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                                   |
| 事 務 局 | 木 村 慎一郎<br>KIMURA SHINICHIRO  |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                               |

|     |                          |  |
|-----|--------------------------|--|
| 事務局 | 伊藤 美千代<br>ITO MICHIO     | (一社)日韓経済協会 総務部長                        |
| 事務局 | 金 侑 貞<br>KIM YUJUNG      | (一社)日韓経済協会<br>担当部長 青少年交流センター長          |
| 事務局 | 杉原 景<br>SUGIHARA KEI     |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br>担当部長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センター長 |
| 事務局 | 須藤 俊<br>SUDO SHUN        |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事業開拓部長                  |
| 事務局 | 金 熙 姫<br>KIM HEE-JUNG    |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br>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センター       |
| 事務局 | 河原 啓 太<br>KAWAHARA KEITA | (株)日刊工業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第1営業部                |

2017. 09. 20

## VII. 의사록



### 1. 개회식

#### 사회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이하 동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석송입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했으면 합니다. 단상에 계신 여섯 분께서는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 다 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및 한일산업기술페어 2017에 참석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1번이 한국어, 2번이 일본어니까 채널을 잘 맞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일한경제협회 사사끼 미키오 회장을 비롯한 일본측 단장단의 한국 정부에 대한 예방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날

연 총리님을 필두로 하여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조현 외교부2차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백운규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님을 예방하였습니다. 모든 면담에서 거의 49년이나 계속 되고 있는 민간인 회의가 단 한번도 단절된 바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높은 평가와 더불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 쪽에 더 활발한 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를 나눈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방단의 활동 보고를 드리면서 경제인회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측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측 단장이신 한일경제협회의 김운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일본측 단장이신 일한 경제협회 사사끼 미키오 회장님이십니다. 일본 측의 손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한국 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분 중에 오늘 내빈 측사를 해주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국특명전권대사님 이십니다. 오늘의 기조 연설자이신 이시게 히로유키 JETRO이사장이십니다. 한국 측의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



늘 축사를 부탁드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평창동계올림픽 소개를 위해서 자리해 주신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본 경제 회의의 관행에 따라 나중에 양국 경제협회 회장께서는 오늘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 식순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단장인사

**사회 :** 그럼 식순에 따라서 양측 단장의 인사 말씀부터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최측을 대표하여 한국측 단장이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윤**

**한국측 대표단 단장**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입니다. 친애하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정권 대사님, 이시게 히로유키 JETRO이사장님,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일 양국 대표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제 49회 한일경제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양국 경제인들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기념적인 50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

원해 주시고 양국 발전을 위해 지혜를 공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독일 G20 정상회의 개최 기간에 한일 정상회의가 열렸고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7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회담에서는 양국이 미래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기로하는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2005년 한일 우정의 해에서 시작된 최대의 한일 교류 행사인 한일 축제 한마당과 일한 교류 오마쯔리가 양국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평창 동계 올림픽과 도쿄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 협력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이러한 협력의 분위기를 살려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한일 양국 경제인 여러분, 최근 IMF, OECD 등의 세계 경제 전망에서 보듯이,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지난 10년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던 세계 경제가 서서히 긴 터널을 빠져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멘텀을 얻기 시작한 세계 경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각국들의 긴밀한 공동 보조와 공조 체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국 산업 보호와 같은 전세제적인 보호 무역 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테러 발생, 또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 정세는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 일본은 무엇을 협력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찾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형적으로 이웃이라는 사실이 천년 전에도

또 앞으로 천년 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서로 좋아하건 갈등이 있건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선의로 경쟁하는 공존만이 정답이고 양국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일이 지속가능한 행복한 사회실현을 향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첫째,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갔으면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는 차세대 산업 혁명의 시대에는 제조업에도 일자리에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일의 장점을 결합하고 지적 재산권과 평화를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구미 연합을 넘어서서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지 않는 공존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 한일의 공동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인공 지능과 로봇 등의 활용으로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은 청년 실업 문제를 안고 있고 일본은 인재 부족 현상이 있어서 서로 보완 관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한일이 인재 교류 분야에 있어서 더욱 협력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고령화 문제의 경우도 건강 장수 사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의약품, 원격 진료, 의료 기기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을 키우고 해외 시장의 공동 진출 등, 글로벌화에 더욱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셋째, 한일 경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 제 3국 공동 진출 확대, 청소년 교류 및 차세대 교류의 내실화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산업기술페어 2017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8일까지 열리는 각종 행사에

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민간의 선두에 서서 한일 관계의 유대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의 큰 활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 :** 김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측 단장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佐々木 幹生**  
(SASAKI Mikio)  
**일본측 대표단 단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님, 허창수 전경련 회장님, 김윤 한일경제 협회 회장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 대사님, 이시게 히로유키 일본 무역진흥기구 이사장님,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제 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이토록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동시 개최로 열리고 있는 산업기술페어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개회에 즈음하여 일본 측을 대표해 인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한일 관계입니다. 금년 5월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하에 양국 관계가 미래 지향적이고 우호적으로 폭넓은 분야로 발전해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들어 블라디보스톡에서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양국 정상의 신뢰 관계가 더욱 더 심화되고 양국 간에 걸쳐 있는 역사적인 문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겠다며 양국 정상이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이 점

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한일경제인 회의는 앞서 김윤 회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1965년에 제 1회 회의가 열렸고 이번에 49회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의와 협력의 성과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 도쿄에서 열렸던 제 48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작년 6월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돌이켜 보면, 세계는 영국의 EU 탈퇴 표명,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탄생,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의 대두와 더욱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중동 정세, 그리고 지극히 도전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동북 아시아의 안정 보장 면에서의 우려 사항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격동의 1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국의 경제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깊은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금까지 축적해온 경제 문화 인재 교류의 유대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민간의 최 전선에서 양국의 우호 경제 교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번 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번 회의의 주제, 격동하는 국제 정세와 새로운 한일 협력 방향,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오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양국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아시아에서 하나의 경제권에 대한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만,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이 주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국과 일본, 한중일의 FTA RCEP TPP, 11

+ 한국 등 메가 FTA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와 양국 정부의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현재 다양한 새로운 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발전하고 있고 폭넓은 발전과 인재 육성의 육성이 필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한일 양국이 정보와 지혜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 과제에 대한 대응 등 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미 양국의 제 3국에 대한 협업입니다. 저희는 5년 전인 제 44회 한일 경제 회의 이후 이 협업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일 양국이 자원 개발과 인프라 수출 등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양국이 경제 연계를 확대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해당하는 제3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 총액을 드러내지 않습니다만 글로벌한 관점에서도 새로운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의 형태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부는 금융, 환율, 투자 등 제도적인 면에서 추가적인 협력 체제를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양국의 청소년 교류입니다. 한일 양국의 차세대 교류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양국의 앞으로 50년을 짚어질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갈 젊은이를 더욱더 많이 육성해 나가는 것은 저희 세대의 책임입니다. 한일 일한 양국 경제 협회에 의한 한일 고교생 교류 캠프도 여러분의 협조 하에 금년 7월, 내년에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희범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의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하 조직

위원회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매우 훌륭한 내용으로 개최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 대학생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문화와 활동을 배울 수 있는 인턴쉽 연수도 서울 재팬 클럽과 주한 일본 기업의 협조 하에 응모자와 참가자 모두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 문화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반드시 양국 관계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가져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그리고 2020년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해서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은 내년 2월에 개최됩니다. 앞으로 다섯 달 후에 열립니다. 정말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면 도쿄에서 올림픽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저희 양국 경제회의는 두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고 스포츠 제전으로서 사람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지금의 격동하고 있는 세계를 평화롭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믿고 성공을 위해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일 관계가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일 경제협회와 함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가 양국의 새로운 미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틀간의 회의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 말씀을 갈음하고 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축사

**사회 :** 사사끼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사를 경청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백운규 산

업자원통상부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백운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존경하는 사사끼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양국 경제인 여러분, 제 49회 한일 경제인 회의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일 경제인 회의는 양국 민간 차원의 가장 오래되고 또 중요한 교류의 장입니다. 지난 69년 처음 시작되어 무려 50년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때로는 정치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으나, 양국간 경제 교류는 이러한 사항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즈음에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 경제인 여러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친애하는 경제인 여러분, 이제 한일 경제인 회의는 다음 50년을 준비해야 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회의 주제를 격동하는 국제 정세와 새로운 한일 협력의 방향,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함께 열자로 선포한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차 산업 혁명시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이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기존의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일 양국 협력에 이를 적용하면 그간의 협력을 점검하고 이를 통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금번 회의의 진정한 주제가 아닐까합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어 한일 협력의 새로운 방향으로 3가지 정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양국 기업 활동이 갈수록 글로벌화되는 만큼 앞으로 양국은 신산업에너지 등으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창의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이나 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뛰어넘어 양국의 경험과 기술, 정보를 지각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 자동차, 원격 의료, 로봇, 드론과 같은 첨단 산업에서 국경을 초월한 R&D 설비 투자, 인력 양성을 함께 진행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일 양국은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공급 안정과 리스크 분산을 위한 협력도 주목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전력망을 연계하면 동북아 구축 사업, 석유와 천연 가스 활성화를 위한 해저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양국은 다음 세대 양국간 협력을 책임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인적 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저출산 풍조와 단카이 세대의 은퇴 등이 맞물려 신규 구직자 한명이 평균 2.3개의 일자리 중 한 곳을 골라서 갈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일본도 1960년대 취업 빙하기가 있었으나, 이제 한국이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국 청년 인재의 일본 취업을 장려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구인 구직난을 함께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상호간 이해도를 높여 경제 교류의 든든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2008년, 20,000명에서 2016년, 48,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청년의 일본 취업을 다음 세대의 양국 협력에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협력을 한차원 확대해 나아가기 위해 동아

시아 역내 경제를 하나로 묶는 무역 협정을 조속히 완성해야 합니다. 현재, 한일중 3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EU, NAFTA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3국이 모두 참여중인 RCEP 한일 중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 장벽의 철폐는 이들 협상이 줄 헤택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보다는 동아시아 역내 자본과 기술, 인재가 자유롭게 원활하게 이동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역내 국가들이 가치사슬로 긴밀히 연결되고 이러한 장벽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시장이 확보되면 한일 양국의 기업들은 보다 더 큰 시장에서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양국 경제인 여러분, 제가 3가지 협력 방향을 말씀드렸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 성과를 착실하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桃栗三年、柿八年(모모くり산넨, 가키하찌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숭아와 밤은 심고 나서 3년을 기다리고 감은 8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첫 열매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한일 양국 경제인 여러분이 한일 관계 증진에 온 힘을 다하더라도 그 성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 길게 내다보고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산업통상에너지부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써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4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될 한일산업기술페어 2017년도 양국간 산업 기술 교류와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일본 측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님 모십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오늘 제 49회 한일 경제인 회의가 이처럼 성대하게 개최되는 것을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한국 측 단장이신 김윤 한일 경제협회 회장님, 일본 측 단장이신 사사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국제적인 불안감과 불투명함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오늘의 이 회의는 자유무역 체제 유지 확대의 공감대를 갖고 있는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이며 매우 시기 적절한 그리고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로 눈을 돌려 보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 서로 정부 특사를 파견하고 또 두 정상 간의 여러 번 회담이 열리는 등 정부 차원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새 정부와의 사이에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장관님과 직접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백장관님과는 회의 전에도 일본 측 경제계 여러분들과 대화하시는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백장관님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따뜻한 대응과 평소에 양국 경제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한일 간의 매우 세심한 의사소통이야말로 경제 분야를 비롯한 양국 관계에 더 깊은 심도 있는 관계로 이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세심한 커뮤니케이션 교류라는 관점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참석하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지난 24일에 열린 한일 축제 한마당도 매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사키 회장은 이 축제의 집행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한일 양국 젊은이를 비롯한 다양한 분들이 축제라는 문화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저 자신도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와 49회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온 한일 경제인 회의를 비롯한 경제 교류 등 한일 양국 관계는 매우 중추적인 교류를 통해 만들어져 온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국 간에는 물론 어려운 또 곤란한 현안 사항도 적지 않고 어려웠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문화 교류와 경제 교류가 단절되는 일 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일 경제 회의가 앞으로도 매해 개최되고 양국 관계를 이끌어가는 등대의 불을 밝히는 비콘의 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한일 경제인 회의가 참가자분들에게 뜻깊은 성과가 나오고 그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축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한일산업협력 유공자 포상**

**사회 :** 나가미네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49회 한일 경제인 회의와 공동으로 한일 재단이 주최하는 한일산업기술협력페

어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백운규 장관님을 이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협력상 수상도 함께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단상에 계신 여섯 분의 내빈께서는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무대 아래로 잠시 내려 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일 산업 협력상은 한국과 일본간 산업 기술 협력 또 세대 증진 등 여러 공로를 치하하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10명의 수상자가 계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상이 여섯명, 기업과 개인이고 재단 이사장이신 김윤 이사장님 상이 네명입니다. 무대가 생각보다 좁지만 모든 수상자가 장관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10명의 수상자를 한꺼번에 호명해서 수상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호명하는 10명의 수상자들에게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슈 경제 연합회 아소 유타카 회장께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품립의학 대표께서 올라와 주시고 가나피엔엘, 성우 ENX, 나라 코퍼레이션 김범구 과장님, 다음엔, 재단 이사장상입니다. 주식회사 케리마, 성진 메터텍, CID 장동현 대표님, 마지막으로 영진 특수강 박경수 이사십니다. 이상 10분이 수상하시게 됩니다. 먼저 수상하시기 전에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장관님과 재단 이사장님을 단상에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리가 좁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윤 이사장님께서서는 잠깐 뒤에서 서계시고, 장관님 수상자부터 장관님 앞으로 나와서 수상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부분 호명 하겠습니다. 큐슈 경제 연합회 아소 유타카, 귀사는 한일 협력사업을 통하여 양국의 산업 기술 발전과 교류 협력 증진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제 10회 한일 산업 기술 페어

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함. 2017년 9월 16일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 백운규.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품립 의학. 위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 동문. 감사드립니다. 예. 세 번째, 가나 PNL. 네. 축하드립니다. 기업 부분의 장관님 표창 마지막입니다. 성우 ENX. 예. 다음에 영광스러운 개인 부분의 표창입니다. 파인몰딩테크놀로지 사이토 도시히로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귀하는 한일 협력 사업을 통하여 양국이 산업 기술 발전과 교류 협력 증진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제 10회 한일 산업 기술 페어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함.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 백운규. 축하드립니다. 개인 부분 마지막은 나라 코퍼레이션 김범구 과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장관님 상을 마치고 장관님, 내려오시기 마시고 잠깐만 계시고,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상을 마치고 장관님과 모든 수상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상입니다. 주식회사 케리마. 귀사는 한일 협력사업을 통하여 양국의 산업 기술 발전과 교류 협력 증진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산업 협력 재단 이사장 김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성진메탈테크. 이하 동문. 감사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CIG 장동현 대표님입니다. 마지막 수상은 영진 특수강 박경수 이사님이십니다.





이상으로, 모든 수상을 마치고 장관님 정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윤 이사장님께서서는 앞에 자리해 주시고 모두 수상자들은 둘러 서 주시겠습니까? 수상자를 위한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꽃다발을 주시겠어요? 예. 꽃다발이 전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사진을 찍으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더 찍으실래요? 하나 둘 셋. 성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4) 올림픽 소개

**사회 :** 그럼 이것으로 산업 유공자 표창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잠깐 무대를 정리해서 연설대를 마련하고 존경하는 이희범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이낙연 총리님을 뵈을 때 일본 대표단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에 일본을 상징하는 아사 다마오와 대한민국의 요정인 김연아 선수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아이스 갈라쇼를 위해 평창을 위해서 함께 공연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희범 위원장님 단상에 모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 이희범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조직 위원장 이희범입니다. 먼저 제 49회 한일 경제인 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윤 단장님과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 백운규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 대사님. 이시게 히로유키 일본무역진흥공사 이사장님 및 모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경제 협력을 시작한 1970년대 초반에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한국무역 협회회장, 경총 회장으로 일하면서 제 인생은 한국 경제 성장과 괴를 같이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웃 나라 일본의 경험과 역할, 도움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부터 49년간 지속되어 온 한일 경제인 회의와 여기 모이신 양국 경제인 선배들의 노력이 한국의 발전과 성장의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경제 흐름은 이제 사회와 문화, 스포츠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 발전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은 2002년 FIFA 월드컵을 공동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한일 양국의 열정과 협력, 완벽한 대회 개최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월드컵 공동 개최의 경험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8 평창.



2020년 도쿄로 이어지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스포츠 행사가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1964년, 1988년 올림픽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선진국으로 향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평창과 도쿄 조직위원회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대회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조직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 협력과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창 조직위는 지난 4월까지 열린 테스트 이벤트에 도쿄 조직위 직원들이 대규모 참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올림픽에도 도쿄에서 대규모 옵저버단이 올 수 있도록 하고 평창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지식 전수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쿄 조직위원회가 성화 봉송에 참여하고 평창 올림픽 대회 기간 중, 하루를 일본의 날로 지정하는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 조직위원회도 지난 8월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자를 초청해서 교육 참관 기회를 제공해주셨고 대회 기간에 인력 협업을 통해서 올림픽 성공에 힘을 더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일민단에서는 88올림픽과 2002년 FIFA 올림픽에 이어,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도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2018년부터 2년 간격으로 평창과 도쿄, 이어서 베이징에서 잇따라 열리는 동아시아 지역의 올림픽의 첫 단추를 여는 것으로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95개국, 2,9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15개 종목,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계 올림픽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달,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올림픽의 서막이

오릅니다. 이미 평창은 세계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실험 등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은 그 자체로 평화입니다. 전쟁을 중단하고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입니다. 다음달 11월 13일에는 UN에서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truth resolution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이 평창과 도쿄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한일 경제인 여러분, 일본 경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창과 도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도쿄와 서울에서 한일 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신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과 특히,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49회 경제인 회의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2018 동계 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일본의 공동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이회범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본 대표단의 가슴에도 사회를 보고 있는 저나, 한일경제협회장의 가슴에도 평창 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기념하는 뱃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회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곧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 2020년 하계 동계 올림픽 대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치는 것으로 오늘 개회식을 마치고 다음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평창 올림픽과 동

경 올림픽을 위하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2. 기조연설

**사회 :** 모두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들께서 착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조연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김윤 회장님, 두분 공동 의장께서는 단상 위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본회의의 공동 의장이신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과 김윤 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두분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윤 회장 :**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사키 회장님과 같이 회의를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에 따라 기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님께서 제 49회 한일 경제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격동하는 국제 정세와 새로운 한일 협력의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허창수 회장님께서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고 LG 상사와 LG 전선, GS 건설 회장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GS 그룹 회장으로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을 맡아 한일 양국 경

제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허창수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 대사님, 이시게 히로유키 JETRO이사장님,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과 양국 경제인 여러분, 먼저 제 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제 49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제와 동일한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일 양국은 1965년 수교 이래, 협력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00년, 2천 2억달러에 불과하던 교역은 2016년 7백18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정치 외교적 이슈로 인하여 상호 협력이 위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양국간 교역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인적 교류가 7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수교 50주년 심포지엄 당시 축하 인사를 통해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희망 100년을 위한 엔진이 가동되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처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 2가지 큰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으로 인한 동북아 안정 정세의 불안입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은 양국 모두에게 정치 경제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UN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

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아시아의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안보 해결 없이는 어떠한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보호주의와 탈세계화의 확산입니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1940년대 확립되어 이어져온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의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정책은 탈세계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개방과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현재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탈 세계화라는 세계 흐름은 양국의 도전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국 경제인 여러분, 이러한 격동의 국제 정세 가운데 양국은 과연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동북아 안보 위협의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크게 2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일 양국간 안보 협력의 강화입니다. 지난 9월초 러시아에서 한일 정상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대북 문제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민간도 역시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적극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글로벌 경제 번영에도 일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스포츠, 문화 분야의 협력 확산을 통한 평화 모드의 조성입니다. 한중일 동북아 삼국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이벤트를 한반도 긴장 해소와 평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이 적극적인 협력을 선제적으로 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양국적인 선도적 협력이 이끄는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의 씨앗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빈 여러

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호주의와 탈세계화의 확산은 한일 양국에게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이에 관한 해법으로 양국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2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 무역과 개방 경제의 수호자로서 직접적인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 무역의 가치와 경쟁력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이 바로 자유 무역의 개방 경제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 경제인들은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자유 경제의 이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각계각층에 골고루 주어지도록 향후 포용 협력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새로운 혁명을 함께 개척함으로써 자유와 개방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AI 등 미래의 성장 동력과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는 양국 공통의 과제입니다. 양국의 민간 경제가 함께 이 나라를 관리할 의지가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단계를, 한국은 대통령 직속의 제4차 산업 혁명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민간 부분의 능동적 협력 추진은 양국 정책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미래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경제인 회의는 출범이래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올해 49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함께하는 이 자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민간 경제계는 양국의 관계 개선에 있어 윤활유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양국 경제계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바로 우

리들이 관계가 한일 양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웃사촌으로써, 그리고 아시아 시대의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 회장 :** 네. 허창수 회장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일은 이웃나라로서, 아시아 시대의 동반자으로써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양국 경제계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일본 측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사키 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사사키 회장 :** 네. 그럼, 일본 측에서 이시게 JETRO이사장님께 기조연설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시게 JETRO 이사장님은 2011년 10월에 JETRO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후 일본의 성장 전략과 중소기업 등의 일본 기업인 2세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심과 동시에, 외국 정부와 기업과의 윈윈하는 비즈니스 경제 관계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JETRO 서울 사무소는 올해로 오픈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 오신 JETRO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내용을 강연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그럼, 이시게 이사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게 히로유키(石毛 博行)**  
JETRO 이사장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님,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 전권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방금 소개 받은 JETRO의 이시게 히로유키

키입니다. 오늘 제 49회 일한경제인회의가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한일 경제계를 대표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경제 회의가 한일 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오랫동안 비가 올 때도 맑을 때도 폭풍이 올 때도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개최되면서 한일 경제 관계에 큰 기여, 공헌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주 토요일에 사사키 회장님의 실행위원을 맡고 계시는 한일 교류 축제 한마당에 개최식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함께 걸어요. 마음을 하나로 해서라는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특히 경제 관계에 대해서 양국의 성숙한 경제 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글로벌화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퍼지고 그런 분위기가 일각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은 세계 경제 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리카르도 등 전통적인 무역 이론을 주창했습니다.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을 수입 수출하면서 자국의 이익이 생기기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크리그만 교수인데요, 신무역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규모의 경제성에 착안해서 소비자와 산업 공간의 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의 메리츠 교수가 신진 무역 이론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동일 산업이라도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과

고용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도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이 되고 산업 전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즉, 자유 무역은 경제 성장과 고용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이 신진 무역 이론의 개념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경제 관계, 성숙한 한일 경제 관계에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금융, 사물, 제품,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 경쟁하면서 실력을 갈고 쏘는 이러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무역을 보면, 일본과 한국, 일본의 제3국은 제3국의 무역 상대국이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렇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은 서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무역 상대국 가입입니다. 한일 무역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에 부품 소재 설비를 수출했고 한국은 그것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일방통행의 무역, 수직형 무역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당시의 한국의 대일 수출은 의류와 섬유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상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같은 것을 봤을 때, 수출 수입을 함께 하는 양방향입니다. 예전의 표현으로 수평 무역인 것이죠.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 분야는 한국은 일본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일본은 한국에 이미지 실사, 반도체 제조 장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이 상대국에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일 무역에서는 신진 무역 이론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직접 투자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대한 직접 투자 누적액은 309억 달러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미국보다 많아서 최대의 대한투자 국가입니다. 일본 기업이 한

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 기업과의 거래 확대를 위해서 한국에 판매 거점, 생산 거점, 그리고 연구 개발 거점을 구축하는 일본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전자, 현대 자동차, LG 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유기 ELD 패널 4인치 와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supply chain에 들어가기 위해 일본의 화학 과학 쪽이 계속해서 한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 기업과 함께 개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대일 직접 투자는 여전히 적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일 직접 투자는 2016년말 현재 34억엔이며 한국은 제12의 대일 투자 국가입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판매 회사 등등 비교적 소규모 투자가 많은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일본과의 모처럼의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최근에, 전 세계의 대일 직접 투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투자 잔액은 2014년 말부터 3년 연속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 기업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장은 예전부터 높은 품질의 제품 서비스를 포함한 고객이 많이 있고 세련된 거대 시장입니다. 세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엄격한 어려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부들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에게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련된 마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공하는 외국 기업에



서 봤을 때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이 아시아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트렌드를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일본에 대한 평가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높은 개발력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과 협업하면서 일본에서 개발한 제품을 아시아 시장, 글로벌 시장에 투입하는 움직임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용품 메이커, 전세계의 탑 기업인 프로테인 갬블러, 이 기업은 일본 시장을 그러한 테스트 시장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 주부들에게 그들의 기호를 맞추고 needs를 충족시킵니다. 그 프로테인 갬블러의 역대 CEO는 일본 사장을 맡으신 분이 계속 역대 사장을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프로테인 갬블러에서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사장님이 된 후,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도 상당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레드 테이블에서 레드 카펫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뉴욕에서 4번, LA, London, 브뤼셀에서 총 7회의 대일 투자를 위한 speech를 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를 강력하게 지원,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일 투자는 아메노믹스의 성장 전략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분들께서도 이와 같이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일본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품, 금융의 자유로운 유통과 함께 인적 교류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계셨는데요. 일본과 한국의 인적 교류는 예전에는 경험이 풍부한 일본 기술자가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일본 기업에서 우수한 한국 청년인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글로벌 인재, 기술인재를 원하는 일본 기업의 수요와 글로벌한 활약의 자리를 마련하는 한국의 인재가 잘 매칭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인재의 해외 취업 소개 알선에 한국 정부 코트라 등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한일 양국의 인재 교류, 인적 교류는 양방향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기업이 상대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자사의 경쟁력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한일 기업의 교류는 양국간 교류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경으로 최근 10년 동안 한일은 함께 신흥 국가 인프라 차원분야에서 서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호 종합 상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 엔지니어 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이 제 3국에서 연계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측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금융, 한국 기업은 설계, 조달, 건설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상승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분야는 이것에 그치지 않았고요. 오늘 아침, 저는 대일 투자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한국의 조이라는 IT 기업의 젊은 경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개발 능력을 일본 기업과 힘을 합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고 싶다는 이러한 힘찬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일의 강한 기업들이 연계 협조하면 제3국의 개척은 더욱 더 훨씬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품, 금융, 인적 교류의 중요성, 자유로운 왕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현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

니다. 즉,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역 경제 연계의 규칙,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현재 협정 체결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FTA로서 RCEP이 있구요. 한일 FTA, 한중일 FTA가 있습니다. RCEP은 16개국이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인구의 50%, 무역액의 30%, GDP의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입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은 FTA의 성공에서 이미 역내 전역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내 공급망 확대를 더욱더 한 차원 올리기 위해서는 관세 철폐, 관세 삭감 감축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그리고 전자 상거래, 통관 절차의 원활화 등등의 규칙을 포함해서 RCEP을 아시아의 실태에 잘 맞게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그리고 활용할 수 없는 낮은 레벨의 FTA에 머물러서는 체결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제에 20세기의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되지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한중일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2년에 협상 재개를 선언했는데 협상 교섭은 여전히 지금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수준 높은 RCEP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한일 FTA 협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도 저는 선진국가이며 시장 경제의 개념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더욱더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화에 대한 불안감, 불만, 이것이 결국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럽 미국의 일부 국가뿐만 아니라 장차 한국과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무역 투자의 장점, 그리고 거기서 그 누구도 빠지지 않는 No left behind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일의 공통적인 과제에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것이 한

일 양국의 공통 과제입니다. 이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도시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그리고 인력을 인크레시브한 무역, 인크레시브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금융, 제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대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트로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중소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국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75명을 고용해서요. 해외 사업 전개 수출의 지원을 하기 위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전문가 분들의 평균 연령은 60세이상일 겁니다. 인생의 제 2막에 도전해서 일본의 중소 기업을 육성하고자 의욕에 불타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소 기업 경영자분들을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이미 6,000개 이상의 중소 기업이 등록해서 이러한 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중소 기업들에게도 무역에 참가할 수 있는 인크레시브한 무역, 인크레시브한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인재를 중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트라와 같은 기관이 중소 기업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코트라와 저희 제트로는 서울 사무소 개설 직후부터 Best Practice를 상호 배우자 해서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로 벤치마킹하구요. 함께 실력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잠깐 중단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도쿄에서 제 40회 정기 협의회를 재개했습니다. 앞으로 Best practice를 서로 배우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코트라의 김재호 사장님, 저보다 키가 큼니다. 제가 계속 위를 쳐다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

다. 말씀 내용은 좀 기밀이긴 한데요. 말씀 내용 중에서 폭탄주가 아니라 일본 사케를 같이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긴밀하게 나누었습니다. 저희 제트로에는 코트라와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더 활용해서 앞으로 한일 경제 발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프로 축구 리거, 분데스리가, FC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 선수와 한국 선수를 알고 계시나요? 이미 사진이 다 나왔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선수들은 우사미 타카시 선수와 구자철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미드 필더라는 같은 포지션에서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플레이어 들은 매우 사이가 좋습니다. SNS에서도 서로 상대방과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선수는 안타깝게도 한달 전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그래도 세계 최고봉의 축구 리그에서 함께 힘을 합해서 과감하게 상대팀을 공격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희의 마음이 매우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정 정신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3국 시장에서 노력하자라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사례입니다.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앞서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마오 선수의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50년쯤 전이었나요? 뭐, 또 이 한국과 일본의 축구 선수 이야기도 예전에 나왔는데, 최고의 선수, 라이벌이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한 일간에는 제 3국에서 함께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는 한일 양국에서 제품, 금융, 인적에서 자유로운 왕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일 양국 기업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협력

자로서 우사미 선수 구자철 선수처럼 함께 실력을 갈고 닦고 양방향의 무역 투자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누구나 다 글로벌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제 참여, 인크레시브한 성장 무역,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일 경제 관계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일 경제인 분들과 함께 저희 제트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할 결심을 다지면서 그리고, 또 한일 축제 한마당의 올해 테마, 함께 걸어요. 한마음으로, 이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키 회장 :** 이시게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서울 사무소 개소 50주년 다시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신진무역이론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그리고 제트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의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일 간 다양한 협력의 다양성을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시사점이 많았던 기조 강연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장님께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3. 경과보고

**김윤 회장 :** 그러면, 이것으로 기조연설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가 회의인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의 개최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원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측 চে어맨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종원 회장께서는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주식회사 쌍용 대표이자 주일한일기업연합회 초대 회장, 한일 경제 협회 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사조동아원그룹 고문 및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으로서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해 활



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안정원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 안종원

(사)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사조동아원그룹 고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안종원입니다. 감기 기미가 있어서 목소리가 이상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신산업무역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 과제 등 경제 협력에 관한 실천적 문제 해결형 전문가 회의로서 매년 개최되는 한일 경제인 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정책 제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제 18회 한일 신산업 무역 회의는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 아셈홀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저를 포함한 36명이 일본측에서는 아소 유타카 체어맨 등 3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제1 세션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 한일 양국에 대하여 제 2 세션에서는 새로운 분야의 도전, 한일 경제 협력을 향해서라는 주제 아래, 제 4차 산업 혁명, 인재 육성 및 교류, IT 분야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제 18회 회의에서 발표해 드렸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국 측 발표 제안 내용, 그리고 자유 토론을 중심으로 아소 체어맨께서는 일본 측의 발표 및 제안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 세션에서는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 부총장님께서 보호 무역 주의 태도와 한일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세계 무역은 다자 통상 안정화에서 자유무역이 활발했던 1960년대에서 2000년과 달리, 자국 경제를 과도하게 지키고자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통상 질서를 둘러싼 미중간 대립으로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쟁적 보호주의로 인해 기업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정부총장은 WTO 분쟁 조정 기구를 확충하는 등 다자주의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면서 보호주의의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다자간 뿐만 아니라 한일, 한중일, 동북아등, 양자간의 지역 내 경제 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경제 통상 현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2 세션에서는 이민화 창조 경제 이사장께서 제 4차 산업 혁명 일자리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인공 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우려되고 있으나 과거에 일어난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 및 임금이 향상되고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일자리 형태는 변했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는 보다 기업화 또는 다양화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특히 근로 시간 단축으로 생긴 여가 시간을 위한 놀이와 문화 사업이 최대 산업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는 기존 교육으로 육성된 스펙형 인간이 아닌 창조와 도전으로 결합된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습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조형 인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하여 한일간 미래 일자리의 변화, 인공 지능의 개발과 활용, 클라우드 로봇, 빅 데이터와 IT 관련 등의 이슈로 공동 연구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세션 발표 종료 후 자유 토론에서는 한일 FTA가 한일 양국에 경제 문제만 국한하여 협상된다면 타결될 수도 있는데, 한일 관계는 경제 외적 제 3의 요소, 즉, 정치 외교적 문제가 작용되어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해결을 위

해서는 한일 양국이 먼저 한일 FTA 체결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경제 부분에 국한하여 논의한다는 약속, 그리고 높은 수준의 타결이 아닌, 조금 제한된 부분에서 목표를 잡고 협상해 간다면 한일 FTA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일 FTA 체결은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중요하며 최근에 한일간 산업 구조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상기하고 이 시점에서 경제 중진들이 한일 FTA 추진 동력을 마련해 준다면 한일 FTA는 재논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한일 경제 협력 방안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하여 제 3국의 글로벌 전개를 더 많이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혁명을 고려한 한국 고령화 문제의 해결 모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의견으로 한일 양국은 현재,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있음에도 끌고 가고 다행스럽게도 인적 교류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흐름을 지속되는 것이 서로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 교통 카드 호환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일본 입국 통관 심사 시간의 단축 개선 등에 대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의 정황상, 그 어느 때보다도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는 바로 정치 안보 영역과 경제 문화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내수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일찌감치 간 해외 진출 의지와 시장을 개척해온 한국 기업으로부터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수출 중심의 한국은 내수 시장에서부터 착실히 기술력과 경쟁력을 쌓아 나아가 서비스 이노베이션을 선도한 일본의 경험을 배워,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등, 양국은 서로 배울 수 있는

상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양국 기업의 공통 관심사는 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력과 상생을 통한 수요 축소와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기술 변화에 한일이 공동 대응하는 등 한일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변화 속에서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창조하고 이 에너지가 양국 관계에 온기를 불어 넣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한일 양국의 동반 성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실천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구체적 액션 프로그램 등을 잘 추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향후 50년에 대한 한일간의 파트너쉽 구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일 양국이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인재, 문화, 올림픽을 포함한 스포츠 교류, 관광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 18회 한일 신산업 무역 회의 활동에 대한 한국측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 회장 :** 안중원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 측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사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사사키 회장 :** 네. 그러면, 일본측 보고를 아소 체어맨 일한경제협회 부회장님, 그리고 큐슈 경제 협회 회장을 겸하고 계시는 아소 유타카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소 체어맨은 큐슈 경제 연합회를 대표해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체어맨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안소 유타카입니다. 일한경제인회의는 몇 번이나 말씀이 있었습니  
 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대통  
 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9월로 연기가 되었  
 는데요. 이렇게 무사히 49회 경제인 회의의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49회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 제 18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의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에 회의가 시작되어서 눈부신 변화가 있  
 는 가운데 한일이 어떠한 사명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제  
 1 세션의 주제는 격동하는 세계 경제 정세 속  
 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는 국내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  
 개발전략센터의 수석 특별 연구원인 후지야마  
 도모히코씨께서 SDGs, 그리고 summer first  
 한일 양국의 포지션은 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리즘의 규범인 시장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과학 기술이 현재 각각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제시해주시고 세계 속에서 한일 양국이 어떠  
 한 역할을 해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  
 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제 2 세션에서 한일간의  
 세계사적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  
 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 세션 질의  
 응답에서는 미국이 빠진 TPP의 현황, 한일  
 FTA와 한중일 FTA, 특히 한일 FTA를 추진  
 하는 것이 양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리즘이 휘청  
 거리고 있는 오늘날 한일 기업의 각각 강점  
 분야도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감안해서 한일  
 양국의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본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일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활  
 발한 논의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  
 세션의 테마는 한일 경제 협력 강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올해 1월에 SJC 서울 재팬 클럽의 이사장님으  
 로 취임하신 한국 미쓰비시 상사의 대표이사  
 이신 후지요시 유우코우 사장님께서 2017년  
 서울 재팬 클럽의 활동 방침에 대한 취임 인  
 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치기라 일한경  
 제협회 상무이사 등, 총 4명의 각 사업 담당자  
 들이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업  
 현장의 인재 육성 사업, 인턴 실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여름 방  
 학에 주한 일본계 기업에서 약 1개월 동안 기  
 업의 현장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계  
 기업의 업무 추진 방식이라든지 일본의 기업  
 문화,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익히고 기업 특유  
 의 CSR 활동에 대해서도 배우는 프로그램입  
 니다. 2015년부터 2년 동안 36명의 대학생들  
 이 17개의 주한 일본계 기업에서 연수를 받았  
 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인생에서 매우 귀한  
 경험이 되었다라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 한  
 편 이 연수를 실시한 기업측에서도 훌륭한 학  
 생들을 파견해 주어서 직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52  
 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28개사의 주한 일본계  
 기업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28  
 일에 연수 수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  
 음으로, 한일 고교생 교류 캠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의 피해 지역인 미야기현에 미나미 산니쿠쵸  
 와 센다이에서 개최된 제 23회 캠프가 개최된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 교류활동의 모습에 대  
 해서는 잠시 후에 동영상상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7월에 2018년 동계 올림픽의  
 무대가 될 한국 평창에서 제 24회 캠프가 개

최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희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님께서도 제24회 한일 고교생 캠프에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작년에 개최된 17회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질문이 있었던 한일 교통 카드 공동화는 이것이 불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이용 편의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공동화 표준화하기는 어려움으로 스마트폰의 탑재 칩과 앱을 이용해서 호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2 세션의 질의 응답에서는 제 4차 산업 혁명을 활용한 한일 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내일 열릴 본회의 제 2 세션에서 또다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일 양국간 청소년 교류인데요, 제 23회 한일 고교생 교류 캠프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고교생 교류 캠프는 2004년부터 그 당시 일한 경제협회 회장님이시자 아사히 맥주의 회장을 역임하신 지금은 서거하신 세토 유조 회장님께서 한일 신시대는 미래의 청소년이 젊어진다는 신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제 23회 캠프는 작년 7월에 일본 외무성 청소년 교류 사업인 제네시스 2016, 그리고 일한문화교류기금, 미야기현, 그리고 한국 사업 통상 자원부의 지원에 힘입어 미나미 산니꾸쵸와 센다이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이게 다 정리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처음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시

간을 보내면서 서로 관계가 너무너무 친해지고 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이 교류 캠프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사이가 좋아져서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서 2,200명의 한일 고교생이 교류를 했습니다. 이 교류의 파이프라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처음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함께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 지역 현장입니다. 이렇게 다들 배를 타고 실제로 해산물을 먹기도 하고요. 각 팀들에게 수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같이 직접 함께 바비큐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하는 게 점점 사이를 좋게 만든 계기를 만들고요. 이게 마쓰시마라는 곳입니다. 이 곳이 센다이입니다. 어느 쪽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서로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그룹도 만들어서 의상은 거꾸로입니다. 한국 친구는 일본 전통 의상을, 일본 친구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었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에 헤어짐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교류를 계속 하는 것이 깊은 인간관계, 두터운 관계의 파이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큰 파이프를 구축해 나갈 것이고 대단히 자연스럽게 친숙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사키 회장 :** 아소 চে어맨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운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 4. 새만금 및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영상 소개

**김윤 회장 :** 네. 경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일 개최되는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전라북도 새만금 및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 전라북도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전라북도, 한국의 한국, 활기 넘치는 전라북도,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 전라북도입니다. 환황해권의 중심인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최단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략적 경제적인 최고의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일 뿐인 중국의 상해, 일본의 도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 60개 도시와 인구 17억의 거대한 세?어를 갖고 있는 21세기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입니다. 전라북도는 최적의 교통 인프라로 기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한국의 서해안 사업 벨트에 위치한 전라북도는 동북아시아 어디에서도 1일 생활권을 보장하고 동서남국을 잇는 8개 고속도로, KTX 등 4개의 철도, 그리고 항만 등 최고의 교통 인프라로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회의 도시, 기회의 땅, 새만금이 세계로 도약합니다. 전라북도에는 대규모 토지, 새만금이 있습니다. 오사카의 2배에 달하는 국제 협력 용지, 산업 연구용 토지, 관광 레저, 농학 생명용 토지, 환경 생태 토지, 배후 도시, 이렇게 나누어서 최첨단 미래 사업과 고급 브랜드 리조트 관광 산업이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유 무역의 거점, 새만금은

큰 꿈을 실현하는 캠퍼스입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낼 수 있습니다. 자금, 인재, R&D, 전라북도가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차원이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투자 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 기업에 최고 200억원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으로서 지정이 되면 최장 100년간 무상 지원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최대 7년간 면제, 지방세 최대 10년간 면제 등, 개발 활동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연간 30,000명의 전문 인재를 육성합니다.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고급 기술을 가진 인재를 제공하는 산학간 커풀링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36개 대학 및 특성화 고교로부터 캅?이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안정된 노사 문화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우수한 R&D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R&D, 전라북도는 300곳 이상의 연구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최고의 R&D 기술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최초로 전국 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되어 농학 생명 등에서 최고의 R&D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차별화된 방향으로 기업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전라북도에서 새로운 약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글로벌 기업의 선공 신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레이첨단소재, 벨기에 솔베이, 그리고 프랑스의 로알 케민, 삼양 파인 테크놀로지, 한국 야스나가, OCI, 풀무원 다농, 동우 파인캠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전라북도에서 세계를 무대로 비전 있는 미래를 위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가 세계 잼버리 유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대회로 일컬어지고 있는 2013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방문하고 세계 글로벌 기업의 도전과 정열로 새만금은 힘차게 약동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신항만, 고속도로 등, SOC를 구축하여 전라북도의 미래 기업의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새만금이 세계의 새만금으로 발전해갈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이 큰 꿈을 그릴 수 있는 가장 넓은 토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제 4차 산업 혁명시를 주도해 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전라북도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성공의 출발점, 그것은 전라북도입니다.

## 5. 일반경과보고 (협회활동)

**김윤 회장 :** 네 마지막으로 2017년 양국 협회 활동에 대한 일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석승 한일 경제 협회 부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석승**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양국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밑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한경제협회와 한일 경제협회를 합하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 사이에 양협회가 어떠한 활동을 쪽 추진해 왔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작년에 있었던 활동 중에서 아소 유타카

체어맨께서 여러 활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과생 프로그램이 금년 2017년에는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축하 홍보를 해주신 이희범 조직위원장도 나오셔서 양국의 학생들을 격려한 바 있고 IOC 선수 위원도 격려를 했으며 저의 한국 측을 대표하는 김윤 회장께서도 일부러 성대한 만찬을 배푼 바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경과보고는 자료로 생략하지만 두분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김윤 회장님께서도 일한 재단과 한일 재단, 2 군데 이 사장을 동시에 맡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49회 경제인 회의가 열리는 동시에 2017년 제 10회 산업 기술 페어가 열리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벽을 보시면,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경제 협력 강화, 오늘 주로 다루는 주제이고요. 내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자라는 말씀과 4산업 혁명 시대를 함께 열자라는 이야기들이 주로 논의되기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양국 공동 사업으로 또는 단독 사업으로 손을 잡고 하는 청년 인재 일본채용 상담회가 열리며 한일 부품 소재 조달 공급 상담회도 이 호텔 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는 일본 우수 퇴직 기술자 50분에 의한 기술 지도 매칭 상담회가 3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회장도 한번 들려 주시기 바라면서 양 협회의 경과보고는 서류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경과보고 전문>

### I. 한일 · 일한 양국 협회의 공동사업

#### 1. 한일경제인회의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6년 5월 17일,

18일에 이틀에 걸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136명,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등 182명이 참가하였다

## 2. 한일청소년교류사업

(1) 한일고교생교류캠프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이후 총 2회(2016년 7월 제23회, 2017년 7월 제24회) 개최하였다

- ① 제23회 (2016년 7월 29일~8월 3일, 일본 미야기현) 참가자 : 80명
- ② 제24회 (2017년 7월 24일~7월 28일, 한국 강원도 평창) 참가자 80명
- ③ 제1회~제24회 까지 총 2,210명 참가

(2)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참가자가 자주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일학생미래회의도 총 2회(2016년 8월 제11회, 2017년 8월 제12회) 개최되었다

- ① 제11회 한일학생미래회의(2016년 8월 18일~22일, 일본 후쿠오카현) 참가자 : 28명
- ② 제12회 한일학생미래회의(2017년 8월 7일~11일, 한국 경기도 용인시) 참가자 : 37명
- ③ 1회 ~ 12회 까지 총 361명 참가

(3) 한일 청소년교류 사업은 양국 청소년 간에 진정한 우정을 쌓음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은 물론 실물경제체험을 통해 미래 국제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리더로서의 자질함양 등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3.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본 건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협회에서 별도로 보고하였다

## II. 한일경제협회 단독사업

### 1.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경제협력 사업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3개의 지역간 경제교류회의를 통해 관련기관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

(1) 제1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30일~9월 2일, 일본 도야마현
- 목 적 : 일본 호쿠리쿠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무역·산업기술협력 확대
- 참가자 : 양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관련자 등 228명
- 내 용 : · 본회의 :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관계 첫 걸음의 구축’을 테마로, ‘지방경제 활성화정책 벤치마킹(산업진흥·고령화·관광), 의료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한일 경제의 긴밀화에 기여
- 상담회 : 호쿠리쿠 3현의 세어 TOP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및 한국청년인재채용 홍보로 일본시장 개척과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제18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7일~30일, 한국 경상북도 안동시
- 목 적 : 일본 호쿠리쿠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무역·산업기술협력 확대
- 참가자 : 양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 등 171명
- \* 2000년 일본 도야마(富山)에서의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8년간 2,976명이 참가(한국 1,240명, 일본 1,736명)
- 내 용 : · 본회의 :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 지방간 협력’을 테마로, 지방자치단체 시

책 공유 및 지자체·경제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한일(호쿠리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한일 양국 기업 20개사(韓 15, 日 5) 33건 상담, 상담금액 150만달러

#### (3) 제2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12일~14일, 일본 후쿠오카현

－목 적 : 일본 큐슈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무역·산업기술 협력을 확대

－참가자 : 양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 관계자 등 99명

\* 1993년 일본 기타큐슈시(北九州市)에서의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3년간 2,628명이 참가(한국 1,145명, 일본 1,483명)

－내 용 : 본회의 : 한일 양국이 동시에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 하여, 헬스케어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방안 제시

· 상담회 : 한일 양국 35개사(韓16, 日19) 59건 상담, 상담금액 146만달러

#### (4)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일시 및 장소 : 2016년 7월 12일~14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

－목 적 : 한중일 환황해지역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의 증진을 도모

－참가자 : 3개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309명

\* 2001년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의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5년간 5,470명이 참가(한국 1,555명, 일본 1,893명, 중국 2,022명, 2012년에는 회의 미개최)

－내 용 : 본회의 :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해 에너지·환경, 첨단제조, 전자상거래·물류·유통, 산업단지특구, 인재양성 분야의 원원

방안 제시 및 상호 공동번영을 통한 환황해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

· 상담회 : 한중 양국 100개사(韓27, 日73) 157건 상담, 상담금액 6,892만달러

#### 2. 한일 업종별 교류회

##### (1) 한국 게임업체 해외시장 진출 상담회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9일, 한국 서울

－목 적 :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게임산업의 해외진출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대일·대중에 대한 수출 촉진

－규 모 : 한게임 일본 및 중국법인 관계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게임콘텐츠 업체 20개사 41명

－내 용 : · 상담회 : 20개사 39건 상담

##### (2) 한일 자동차부품 상담회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27일, 한국서울

－목 적 : 한국 자동차 부품의 대일 수출 확대

－규 모 : 일본 자동차업체와 협력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및 관련 단체 70명(韓 66명, 日 4명)

－내 용 : · 세미나 : 구매총괄본부 부문장이 향후 구매전략및 해외조달방침 등을 직접 설명,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기업의 중장기적인 對 미쓰비시자동차 수출계획 수립에 도움

· 상담회 : 14개사 14건 상담, 상담금액 4,300만달러

#### 3.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회원에게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

##### (1) 회원대상 기관지 발간

① 협회 소식지(2016년 상·하반기, 2017년 상반기 총 3회 발행)



- 협회의 사업안내 및 실적, 회원 동향, 일본의 뉴스, 기획 연재, 한일통계 등

② 월간 일본경제동향(2016년 12회, 2017년 8회 총 20회 발행)

- 일본경제계뉴스, 기업동향,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등

③ 일본경제리포트 제공(2016년 100회, 2017년 36회 총 136회 발행)

- 경제통상, 산업기술, 비즈니스, 정치외교, 사회문화

(2) 회원사 간담회 개최(2016년 1회, 2017년 1회 총 2회 개최)

① 회원사의 일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과 의견교환을 실시

### III. 일한경제협회 단독사업

#### 1. 조사·홍보활동

회원에게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로서 하기와 같이 실시.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

(1) 회원대상 기관지 발행

① 협회보(월간)

② 한일경제협회 통신(주보)

③ JKE 리포트(부정기)

(2) 협회 홈페이지의 충실화

홍보수단으로서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여 내용을 충실화

#### 2. 자문위원회 개최

일한경제협회 활동에 관한 설명과 의견교환,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준비

#### 3. 서포터회의 개최

사업활동을 서포트 해주고 계신 정부 관계자, 학계, 미디어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실시

#### 4. 기타 사업

(1) 문화교류

① 일한교류한마당 2016 in Tokyo

9월 24일~25일, 일본 도쿄 히비야공원

②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10월 2일, 한국 서울 코엑스

(2) 청소년교류사업화

“Visit Feel JAPAN Tour in 2017 Winter”

· 2017년 2월 13일~18일, 참가자 21명

·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역사·자연·문화·산업·접객문화를 통해 다각적 시점에서 일본과 일본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투어&교류회

· 참가자들이 투어 중, 투어 후 SNS를 통해 일본에 대한 내용을 발신, 넓고 수평적으로 일본의 매력을 홍보

(3)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지원

① 한일 비즈니스 교류촉진 사업

② 산업·기술교류 사업

③ 기타

이상

**김윤 회장 :** 네. 그러면, 이상으로 신산업 무역회의와 일반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키 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사사키 회장 :** 예. 오늘의 프로그램, 그리고 예정시간 대로 그대로 끝낼 수 있어서 여러분

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리셉션이 열릴 계획이죠. 그때 여러분께 말씀드릴 계획이지만, 내일도 매우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 :** 사사키 회장님, 김윤 회장님, 수고해주신 두분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박수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한 시간 후인 6시부터 바로 옆방에서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복도에서 즐거운 담소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공연도 예정되

어 있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회의를 이것으로 정리하고 리셉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6. 제1세션

### 테마 : 변화하는 세계속의 한일협력



**사회 : 김정호 한일경제협회 부장,  
이하 동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49회 한일 경제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일동시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리시버 채널1이 한국어, 채널2가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갖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모드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제1세션의 좌장님과 주제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주시기 바라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세션 좌장을 맡아주실 노성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님이십니다. 노성태 의장님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마치신 후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및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하나생명 고문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제1세션 주제발표를 해 주실 한일양국 발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측 발표자입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이어서 일본측 발표자입니다. 먼저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상석펠로이신 후지야마 도모이코님입니다. 다음은 오오가와라 아키오 공익재단법인 일본 국제교류센터 이사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회의 진행을 노성태 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좌장 : 노성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예, 방금 소개받은 노성태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진행은 우선 네 분의 발표자로부터 각각 20분간 주제발표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토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우리은행 이사회에는 중국인 이사 한분이 계십니다. 평소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다른 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회가 있어서 참석하느라고 서울에 왔습니다.

이분이 베이징에서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위험한데 가지 말라고 극구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핵문제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왜 서울로 꼭 갈 필요가 있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서울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저희 한국인 이사들로부터 진심어린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아마 주변에 계신 가족들이나 친구들로부터 비슷한 충고나 걱정을 받거나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험이나 충고, 걱정에도 불구하고 한일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일본측 참석

자 여러분들한테 저희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실 한국, 일본, 그리고 동북아시아가 세계로부터 큰 관심을 주목을 받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평창올림픽이 내년에 예정이 돼있고, 또 2년 후에는 동경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경사가 벌어지는 곳이 동북아 주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뒷전으로 물러나고 지금 세계는 전부 북한의 핵 문제에 관심과 주목을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경제, 나아가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불안에 빠뜨리는 요인들은 이 문제뿐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세계경제 성장이 리먼쇼크 이후로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고, 거기 따라서 교역도 지지부진하고, 세계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세계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큰 변화와 불확실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하에서 그리고 또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도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환경 하에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경제협력을 추진해가야 하는가를 이번 세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제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님께서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한일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인교 부총장님께서서는 FTA국제통상분야전문가로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미시건주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통상학회 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및 대외부총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인교 부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인교(鄭仁敎)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오늘 한일 재계를 이끌어 가는 기업인들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冒頭)에서 노성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경제가 밝은 면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보호무역주의 대두'가 될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세계무역구조의 또 세계경제의 가장 최신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한일양국에 협력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 발표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는 한일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됴를 우리 재계에서 다시 한 번 주창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일FTA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재계에서도 기대를 이제는 별로 못하는 그런 주제로 들렸습니다만 한일FTA는 제가 98년부터 한일 간에 공동연구를 시작할 때 한국측 연구진을 이끌었고요. 2003년 말 한일FTA 협상 시작부터 6차 협상에서 결렬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협상에서 참여했고 그 현장을 봤던 사람으로서 지난 10여년간을 상당히 이 문제만 생각하면 불편하게 보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는 한일FTA 추진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회의가 한일 FTA 동의를 재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세계무역이나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저성장이 앞으로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성장을 뉴노멀로 규정을 이미 국제경제기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4차 산업 혁명이 단기간 내에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이러한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2060년까지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났던, 그때는 물론 세계경제가 워낙 좋았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경제성장을 기대하긴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세계경제의 기초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자유화를 많이 외쳤습니다만, 이제는 보호무역주의가 일반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경제교역확대가 일반적인 추세였는데 지금은 매우 부진합니다. 이미 저성장에서 세계경제가 해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중국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대부분 선진국들이 추구해왔지만 지금은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우려될만한 수준으로 커지게 되면 선진국들이나 국제기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상당부분 제어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이 나서서 보호무역주의를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뚜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는 세계무역이 국제무역이 세계경제 성장을 이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형식이죠.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세계에서, 특히 한일양국 기업들은 대부분 국제무역을 중요한 비즈니스로 보고 있기 때문

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된다는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그래프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2015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 2017년은 이쯤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물경제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 성장을 짓누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은 물론 무역제재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역시 신흥개도국들의 보호무역주의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해서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특정국가, 특히 중국의 전략산업이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됨으로써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철강산업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막대그래프가 중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서플라이 글로벌 철강공급입니다. 초과물량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통상마찰도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경제가 이제는 글로벌 서플라이 초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립주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역협정 무용론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아쉽게 생각하듯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도 대통령 취임 일주일 되는 주에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 FTA도 개정협상, 혹은 재협상을 하자고 거론을 하고 있고요. 또 ‘위대한 미국 재건’이라는 슬로건 하에 미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심지어 강요수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기

업의 리쇼어링이 또 세계경제에 중요한 특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우선주의, 군사 안보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대외통상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 후보시절에 대외 분야의 핵심 어드바이저는 스티븐 배넌하고 그 다음에 피터하바로 교수였습니다. 배넌은 외교 안보 분야 쪽으로 주로 자문을 많이 했고요. 통상은 피터하바로인데, 이 두분이 금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활약이 컸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특히 백악관에서 켈리 비서실장이라든가 개리콘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스티븐 배넌하고 상당히 각을 많이 세웠고요. 물론 그 이면에는 안보라인에서도 스티븐 배넌을 견제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8월 18일 스티븐 배넌이 축출이 되어졌죠. 축출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비선라인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긴밀한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악관에서 안보라인이 검증된 합리주의자인 장성들로 이미 채워져 있고요. 또 비서실장도 역시 장성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체로 보수적인 안보관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은 통상분야도 외교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 만하더라도 통상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던 게 조금은 이제는 제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에 대한 기본인식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측근들이 상당부분 대통령의 통상정책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이제는 마련이 되어 지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미FTA 폐기론을 9월 2일자 대통령이 트윗으로 날렸습니다만 바로 3, 4일 만에 백악관에서 또 의회에서도 ‘한미FTA 폐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고 개정협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려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란 점들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입니다. 캘리포니아나 동부 쪽은 하얀색 많이 보이는데, 바로 이게 선거구별 투표성향인데, 내년도에 다시 이 지도를 들여다보면 보호무역주의를 다시 강조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바로 NAFTA 개정 협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망이 가능합니다만 저도 미국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주류학자들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미국 요구에 대해서 캐나다나 멕시코가 미국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해줄 가능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번째는 미국이 양보하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을 거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이 파국을 맞는 협정까지 가는 이런 것도 세 나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협상 장기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을 어떻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에 중간선거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분야에 있어서 단기적이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나 미국, 한국 등을 상대로 해가지고 통상마찰을 제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화당은 통상분야에 있어서 매우 우호적인 입장이고 FTA도 지



지하는 것이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물론 작년 선거에서부터 그랬습니다만 FTA뿐만 아니라 무역에 대해서는 아주 보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고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서 왔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공화당으로 넘겨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소위 당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바로 ‘초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앞으로 2년, 3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도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고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져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손치더라도 지금보다 더 심각한 보호무역주의를 선거의 캐치플레이스로 내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미중간 통상마찰도 역시 우려가 된다. 이것은 바로 한일경제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NAFTA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따라서 한일이 협력을 해서 다자간 지역주의 차원이든 또 양자든 협력을 해서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다자측면에 있어서 대응방안으로는 역시 WTO기능, 특히 분쟁조정기능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쉽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WTO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또 WTO 무대에서 다음 달 초에 각료회의가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일양국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보

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역차원에서 본다면 APEC이든 또 그 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호무역주의의 견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공동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간에 해야 될 일도 앞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국은 TPP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 또 TPP를 당시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TPP 가입은 한일FTA와 마찬가지로인데, 한일FTA를 논의할 못하는 상황에서 TPP 가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TPP에서 빠져나감으로서 TPP도 새로운 운명을 맞고 있고요. 물론 또 나름대로 TPP 11을 일본정부가 어떻게든 진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발전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한일이 잘 생각하면 TPP도 발전시키고 한일FTA 문제도 풀고 또 새로운 한일관계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국경제 현안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과거의 양극에서 벗어나서 이런 문제해결에도 양측이 적극 협조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일FTA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분명히 추진 여건이 나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일 모두 FTA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협상은 했지만 양국 모두가 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가 사실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 역량을 재평가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WTO 다자통상협상도 이게 너무나 지지 부진하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가 한일 양국이 필요하고, 또 4차 산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산업혁명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일산업 또 재계가 협력하면 4차 산업 혁명을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한일FTA에 심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일 FTA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는 정치, 사회적 변수가 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문제인 대통령도 입장도 밝히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일 양국 또 특히 재계가 이니셔티브를 취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학자로서 감히 제안을 드린다면 한일경제인 또 재계회의가 한일FTA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내는 걸 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일FTA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연구 얘기가 나오면 재계에서 손사래를 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바뀐 환경에 맞추어서 아주 단기간 내에 한일FTA 추진 전략보고서 같은 것도 이제 하나쯤 만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인의 역할이 큼니다. 그래서 언론인 대상이라든가 또 오피니언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일FTA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 아웃리치도 적극 전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미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의 신보호무역주의의 추이와 주요한 배경,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몇 년간 세계경제 성장의 부진 등으로 기업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는 되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 협력의 강화, 한일FTA 체결 등 한일경제협력 강화를 통해서 경제통상 현안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지야마 도모히코 국립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상석펠로우로 계시는 후지야마 펠로우께서 ‘한일의 세계사적 역할은 무엇인가’하는 주제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후지야마 상석펠로님은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신 후에 미쓰비시 상사에서 근무하셨고, 현재 국립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후지야마 상석 펠로우님 부탁드립니다.

**후지야마 도모히코(藤山 知彦)**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  
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상석 Fellow



소개 감사합니다. 후지야마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구는 문부과학성 산하에 있습니다. 과학기술행정에 대한 제언을 하고, 문부과학성에서 규정한 내용 중에서 실제 연구에 대한 펀드 1천 억엔 이상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피에스세포에 대해서도 한때 저희 과학기술진흥기구에서 출현을 지원을 했던 그런 기구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진흥기구에 후지야마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학기술도 글로벌리즘도 매우 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를 바라보고 ‘한일의 세계사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그것도 최근 2~3백년의 역사 속에서의 변화를 20분 만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 즉 세계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마인드셋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일을 둘러싼 국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문제도 양국의 정치적인



문제도 또한 북한문제도 있어서 매우 긴박한 정세이긴 합니다. 이에 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느긋하게 느껴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양국의 위치를 확인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발 금융위기 후에 세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화의 요동입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제가 정의를 하자면 민주주의에서 시장주의 그리고 과학기술 이러한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화에 기반이 되고 있는 세 가지는 민주주의, 시장주의, 과학기술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류적 과제, UN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SDGs의 이야기와 함께 인류의 과제와 글로벌리즘, 세계화의 규범에 대해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왜 한국과 일본이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경제 현안입니다. GDP입니다. 전 세계는 75조 달러의 경제규모입니다. 미국이 그중에 4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EU가 5분의 1 조금 넘고, 중국이 15% 정도입니다. 일본이 6.6%, 한국이 1.9%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더하면 8.5%, 10%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선진국의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서 성장전략을 끌어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2010년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린이코노미를 주장했습니다만 불과

반년만에 이것이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중간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은행자본이 강화된다거나 펀드가 일부 정보공개가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신용평가기관을 재평가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금융자산, 민간의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많아졌습니다. 즉, 세계는 돈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쓸 데가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쓸 데가 없고 또 쓰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전세계 경제는 저성장 상황이고 이것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금융자산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무역총액과 명목 GDP 그리고 세계금융자산 잔고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명백히 세계금융자산잔고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4조 달러, 거의 300조 달러의 자산이 있습니다. 아마 300조 달러 안에 70조 달러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60몇 조 달러가 채권이고요. 선진국의 경제는 성장전략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침체되고 있는데요. 신흥국가도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약간 호조세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는 3%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세계화의 본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리즘은 민주주의, 시장주의, 과학기술을 신뢰하는 국가의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틀입니다만 한마 일을 살펴보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75%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계의 4분의 3의 GDP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55%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브릭스가 2000년 이후에 고성장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경제력으로 말씀드리면 55%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나머지의 45%의 경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롤로 하자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정리한 것입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2백년에서 3백년에 걸쳐 유럽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성장했고 전세계로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주의와 자본주의, 두 번째는 민주주의, 개인의 인권, 세 번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과학기술에 관한 것은 매우 새롭고, 과학이란 말이 만들어진 게 150년 정도 전입니다. 그리고 기술과 과학이 융합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 로마, 기독교 아트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것은 유럽의 문화적인 토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럽의 문화적 토양이 전세계 규범으로는 강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번부터 3번까지에 대해서는 글로벌리즘, 즉 세계화의 규범으로 우리가 여겨왔던 것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에서 이런 규범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원래 세계화가 내포하고 있는 과제는 시장주의든 민주주의에 대해서든 과학기술에 대해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드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세계화의 비추종’이라는 것을 대놓고 주장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여러 국가 중에는 ‘세계화라는 것은 규범으로서는 이상하지

않는가’ ‘하나의 지방문화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고, 중국도 보편적인 가치관을 전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가치관을 중국이 꼭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0년대 초반에는 아모리띠아세네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세계화의 기본원리는 불변이지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다보스회의에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새로운 현실을 위한 규범, 이견 무엇이냐면 중국과 인도를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의견을 강력하게 내고 있지 않은 그런 세계질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세계가 이것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장주의라든가 민주주의, 과학기술, 이것은 한국과 일본 우리는 크게 신뢰하고 있는 가치 외에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원래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거품경제 발생과 붕괴를 해석하고 방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시장의 공평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가 있다, 그리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 이것은 리먼 쇼크 때 시장을 정부가 구제를 했죠. 그러나 정부가 재정적자가 될 경우에는 그 재정적자에 대해서 시장측에서는 이번엔 판단을 하고 국가의 평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경제와 금융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금융시장에게는 핀테크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포퓰리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선진

국에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고, 중산층의 10~20%가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하향하고, 중산층이 포폴리즘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과학기술은 신뢰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과학기술 자체는 방법론은 확립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생명과학 그리고 핵기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개입, 그리고 시민의 개입이 필요하다, 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는가라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의 문제는 과학기술진흥기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증식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터넷상에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능력이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갖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결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가치관이 정말 이것이 정답인가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로 브릭스의 경제성장이 진행이 되고, 이런 가치관을 믿고 있는 선진국의 세계경제, 즉 세계경제에서 선진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리고 세계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계화로 인해서 조금씩 잘못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작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제3단계의 문제입니다. 제3단

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통합성이 하락하고, 또 이민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보호주의가 오히려 선진국에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와 환경보호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퍼포먼스는 어떤가요? 전세계에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과학기술의 지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점수를 평가가 되고 있는지, 한국과 일본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시장경제에 있어서 한국이 개방이 되었다, 더 시장주의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는 현재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규제 완화가 충분치 않아 한국보다 일본이 조금 뒤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제도의 공경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점수를 두 국가가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점수를 만든 것은 데모크라씨 인덱스라고 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만든 지표입니다. 그리고 실행경제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은 일본이 세계 제8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20위입니다. 과학기술은 일본이 아직 더 상위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변의 국가를 보십시오. 대부분 유럽의 국가가 많고 싱가포르 정도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시장주의의 상관입니다. 여기서도 크게 두 개 블

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블록에는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겨우 들어가 있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구미국가들입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은 시장주의, 민주주의, 과학기술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구미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유럽에 국가들과 어떻게 다른가, 구미국가들과 다른 것은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해 이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을 국제 룰로서 잘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자국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해왔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세계화의 강요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피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의 방식 또는 인류의 지적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활용해나가야 할 텐데요. 거기에 새로운 멤버, 이번에 새롭게 된 한국과 일본이 거기에서 말아야 할 역할은 매우 비슷하고 또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점을 바꿔서 지금까지, 이 표는 어떻게 보면 ‘이테올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치관입니다. 시장주의라든가 민주주의든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중국의 위치를 보시면 왼쪽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에서는 왼쪽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서도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표를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아예 ‘기준이 잘못돼 있다.’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헤리티지 재산 모두, 다보스 회의가 보고 있는 자태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그럼 중국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 있겠는가 볼 경우에는 객관적인 숫자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균등이 아니라 결과 균등에 주목을 한 관점으로 표를 만들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격차의 문제, 지니계수라든 파르마비율, 그리고 UN이 만든 인간개발지수, 매우 흥미로운 지수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시 평균연령이라든지 평균취학연수, 예측 취업연수, 1인당 국민총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개발계획이 만드는 지수입니다. 미국의 스티그리치 교수 등이 개발에 관여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저희가 생각했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이 일본 및 유럽국가들이 들어가 있고 중국은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인간개발지수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격차가 크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중남미가 주로 오른쪽에 가있고, 그리고 왼쪽 아래에 아시아가 있고, 한국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한국은 소득지수 기준으로 인간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가깝게 위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UN에서 UN회원국이 전체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바꾸기 위한 17가지 목표입니다. 169개 목표가 있는데, 빈곤을 없애자 라든가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복지를 주자라든가 추상적인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약에 아까 저희가 언급한 3백조 달러의 돈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수요와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가 잘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로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로 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 그러한 역할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즉, SDGs라고 하

는 것은 지속적 과제, 인류적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썬원포스트, 예를 들면 미국퍼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가 있는데요 어느 나라든간에 자국제일주의를 언급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자국 제일주의를 그냥 권리로 주장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세계화를 신봉하고 있던 세계화의 규범으로 민봉하고 있던 민주주의라든가 시장주의원리라든가 과학기술 이런 것을 홀대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세계화의 세 가지 규범은 SDGs 유적과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만들어 내기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국가는 지금 분열통합성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유럽과 트럼프의 미국이 아니라 새롭게 글로벌리즘, 즉 세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외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언, 위와 같은 것은 한국과 일본이 세계로 발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앞서가는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회계제도’라는 것입니다. 회계기준도 기업을, 즉 단기간의 이익의 수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이 SDGs 인류적인 과제로 자본을 돌리고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시장원리의 관점에서 좀 더 장기간에 크리에이티브 웨어드 밸류, 이와 같은 관점으로 가져가야 하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규범을 가져오고, 그리고 세계화속에서 우등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실적을 내고 있는 두 나라가 세계화의 이 세가지 규범을 조금 더 개선해나가고 또 인류의 유산으로 남겨가는 것,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는 것은 세계사 속에서 두 나라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후지야마 상석펠로님 감사합니다.

2008년의 리먼쇼크 이후에 선진국의 저성장으로 인해서 글로벌리즘이 크게 흔들리고 있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국 우선주의가 있고, 또 인류적인 UN이 세운 지속가능개발 목표들 사이에서 이걸 한일 양국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협력을 해서 세계를 향해 새로운 가치관을 발신해야 되고, 글로벌 규범을 확립해나가야 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구축과 한일경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덕근 교수님께서서는 미국 미시건대학에서 경제학과, 법학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무부 뉴라운드 법률자문위원, 서울대 법인설립추진단 부단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덕근(安德根)**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귀한 기회 주신 회장님과 한일경제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후지야마 선생님과 정인교 부총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문제는 한반도 통일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항상 이걸 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소망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참 어려운 과제가 많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한중일 3국이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경제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특



히, 지금 시점에서 한국이 지금 많은 통상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일본 입장에서든 이게 남의, 우리 속담에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시사점이 큰 상황이고, 특히 현 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일간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왜,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국제통상체제에서 우리가 ‘메가FTA’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 세계에 경제협력 노력으로 세 가지 T트리오가 있었는데요. TPP, 티팁, 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TPP는 일본이 참여를 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티팁은 ‘트랜스 아틀란틱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미국과 EU가 직접 FTA 협상을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티사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보이는 하단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미국이 WTO에서 도하협상이 잘 안되면서 마음 맞는 국가를 모아서 서비스 분야만 자유화하는 협상을 추진을 한 게 있는데 그게 티사협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파란색 점선으로 묶인 국가들인데요. 보시면 티사, 티피피, 티팁으로 묶인 국가들을 보시면 선진 국가들입니다. 미국, EU, 일본,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고, 일부 국가들이 포함이 돼서 선진국 국가들 간에 강력한 경제공동체가 구축이 되는 것이 보여 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 TPP가 지금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TPP 11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현재 아직도 TPP 11에 대한 추진을 계속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그림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쪽에는 지금 한-중-일 FTA, CJK FTA가 있고, CJK FTA를 포괄하고 아세안을 포함하는 RCEP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 이 RCEP협상이 중국, 인도간에 많은 시각차, 그 다음에 TPP에 포함됐던 RCEP국가들의 높은 기대,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10월까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볼려고 하든 이 목표가 지금 달성되긴 굉장히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CJK, RCEP,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에는 상당히 요원한 상황이 돼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례 없는 통상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통상교역 상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통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무역구제조치,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상무부에서 부과하는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대부분 40%~60%에 육박하는 조치가 되지만 예전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역구조조치를 미국에서 당할 때 사실 어떤 경우는 반덤핑관세를 맞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중국기업과 한국기업이 같이 반덤핑 조사에 대상이 되면서, 중국기업들이 한 70~80% 반덤핑 관세를 맞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5~6% 정도 관세를 맞으면 사실상 시장에서 중국기업들이 배제가 되고 거기 중국들이 못 들어가는 시장점유율을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더 늘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중국기업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맞게 되면 200%에서 400%까지 관세가 부과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40%에서 60% 관세가 부과되다보니까 미국상무부에서 반덤핑관세 발표를 하게 되면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시장을 접느냐 마느냐에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

러 가지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 돼있고, 특히 내년에는 상무부에서 자체직권조사라고 해서 지난 30년 정도 미국에서 이걸 시행하지 않은 건데, 미국 국내기업들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덤핑 조사나 상계조사를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있고, 또 그동안 한국에서는 ‘중국 중독현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시장의존도가 급속하게 늘었던 중국시장에서 사드 사태 이후에 지금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후에 일본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겪었던 수준보다 훨씬 더 급격한 수준으로 한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향후에 더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무역구제 조치를 당한 상황이 있는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강분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으로부터 ‘하드롤드코일’이라는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강관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던 ‘넥스틸’이란 회사가 미국에서 반덤핑관세를 한 25% 관세를 부과 됐는데, 이때 상계관세를 얻어맞으면서 이 근거가 한국에 전기료 같은 것들이 우리는 산업용전기와 가정용전기가 가격차이가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이다, 라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된 사유 중에 하나가 ‘특별시장상황이다. 한국에서 철강 강관을 수출하는 것이 특별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자의적인 계산방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을 2005년부터 시장경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WTO에서 미국과 EU가 중국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2016년 이후에,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비시장경제로 간주를 당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입을 했는데, 이 조건이 15년 동안 유지가 되기로 돼있는데, 2016년이 되고 나서도 미국하고 EU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 비시장경제로 간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WTO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부터 중국을 시장경제로 간주를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상무부 얘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하드롤드코일을 미국에 있는 기업이 수입을 했으면 이게 비시장경제로 간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해서 이게 비싸게 수입이 될 텐데, 한국은 중국을 시장경제로 간주를 해서 저가를 아주 저가에 수입해서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이 가공된 제품도 부당하게 저가에 덤핑을 한 것이 된다,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상당히 높은 고율관세를 부과를 한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이나 EU가 WTO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문제가 만약에 패소를 하는 경우에, 지금은 중국 전체를 비시장경제로 간주를 하고 있지만 특별시장상황 조항을 들이대게 되면 비록 중국 전체에 대해서는 비시장경제로 못하게 되더라도 향후에는 수출하는 품목별로 저가를 적용해서 사실상 지금하고 있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다고 하는 대안으로 들고 나온 조치인데, 이 조치를 제일 먼저 적용을 한 것이 한국수출에 대해서 지금 적용이 돼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인플리케이션이 큰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이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러스 FTA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협상에 곧 아마 돌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미FTA 재협상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미일간에 자동차 협상교역문제, 특히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미일간에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문제가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미FTA가 되지만 미국측으로 한국에서 자동차 수출을 하게 되는데, 수출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미FTA에 의한 관세가 어떻게 됐냐면 다른 제품들은 FTA가 되면 이행기간 연수를 나누어서,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이걸 떨어뜨리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시장에는 2.5%의 관세가 매년 5분의 1씩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자동차문제는 미국에서 워낙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관세철폐’이라는 형태로 해서 4년 동안에 2.5%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마지막 해에 2.5%가 0으로 떨어지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2.5%가 그대로 남아있는 4년 동안에는 한국측 수출이 계속 늘다가 정작 2.5% 관세가 0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해에는 수출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측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 수출은 관세효과하고는 직접적인 효과가 안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 걸로 돼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FTA 효과가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FTA가 됐다는 것 때문에 그때 마침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그랜저모델을 출시하고 굉장히 많은 시장에 인지를 얻고, 또 FTA가 됐다는 것

때문에 소비자 인식도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이 늘면서 한국측으로서는 시장점유율이 느니까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투자를 확대하는데 특히나 한국측의 대미투자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냥 투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동차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R&D 센터를 해외에 내보내는데, 그 핵심 R&D센터는 전부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가장 고부가가치 투자는 미국에 다 집중이 돼있고요. 그렇게 R&D센터가 나가고 투자가 늘고 하면서 한국측에서는 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미국측으로부터 서비스 수입을 많이 늘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FTA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측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국측에 8% 자동차 관세가 발효하는 날로 4%로 떨어졌다가 4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가 마지막 해에 0%로 떨어지는데, 미국측에 대한 자동차 수출을 보면 직접적인 관세효과가 조금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FTA나 무역관계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게 비정상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이문제가 한미FTA 개정 협상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련돼 있는 이 흑자부분이 한미교역 흑자에 한 85%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적시가 되고, 현재 어떤 형태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들고 나올까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형태의 VR이나 수출자율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레인즈먼트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TPP 11을 그냥 쳐다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NAFTA 재협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것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임기가 4년 있다가 끝나게 된다면 그 후임 대통령이 TPP 탈퇴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시라도 TPP가 다시 복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도 TPP에 가입한다는 걸 사실상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PP에 가입을 하고, 한일간에 FTA를 사실상 TPP로 대체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 NAFTA 2.0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NAFTA 2.0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TPP에서 빠지는 것이 미국만 빠지는 게 아니라 NAFTA 블록이 다 빠지게 됩니다. 캐나다, 멕시코하고 같이 미국이 TPP에서 만나게 될 공산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NAFTA 2.0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TPP를 그대로 복원을 시키자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형의 FTA를 새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TPP 모델하고는 상당히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측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한미FTA개정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한미FTA 2.0이 아마 NAFTA 2.0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될 공산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100%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아마 90% 이상은 NAFTA 2.0 내용이 반영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있는 구도가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NAFTA 2.0이 되고, 코러스 2.0이 새로운 트럼프방식의 새로운 모델로 만약에 체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서 TPP 11을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사실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TPP 11에 남아있을 요인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으

로서도 나중에 TPP 11에 가입한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아마 그 시점에서 미국, 일본 FTA 얘기가 재검토될 공산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미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자동차 교역문제를 이 협상에 가장 주범으로 부각을 시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다시 제기가 될 그럴 공산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한국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일본측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히나 한국측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NAFTA에 보면 환율조작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NAFTA 2.0이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TPP에서는 환율조정문제는 USTR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TPP가 끝나고 나서 재무장관들의 MOU형태로 환율정책에 관한 트랜스페런시에 대한 사이드 레터가 그냥 추가가 된 형태가 됐지만 지금 NAFTA 개정협상 오브젝티브에 환율조작문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환율조작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건 한국정부입니다. 현재 코러스FTA에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들어갈 공산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다루어질지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일경제협정이 지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정인교 부총장님께서도 한일FTA 재추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문제고요. 만약에 한일FTA가 아직까지 정치적인 기반이나 환경이 충분치 않다고 한다면 대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한일서비스협상 같은 것

들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일서비스 협상은 아까 모두(冒頭)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사 협상에서 한일이 사실 공조를 해서 협상을 계속 끌고 나갔었던 부분이 있고, 특히 한일서비스 지금 서비스 협상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문제가 들어가고, 여기 무브먼트 네추럴 자연이동문제가 들어가고 회계 문제가 들어가고, 금융서비스 부분이 들어가고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국에서 공히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재고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FTA가 추진되는 여건이 약하다고 그러면 서비스문제는 지금 한일간에 교역수지가 보면 거의 밸런스가 되었습니다. 어떤 해는 오히려 한국측에서 수지흑자를 보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다시 적자로 내려가 있지만 한일간에 경상수지 무역수지처럼 아주 일방적으로 막대한 수지 적자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여건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계나 정치적인 기반들이 우선 구축이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산업계, 재계에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요구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 장 :** 안덕근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통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TPP 및 한미FTA 협상에 있어서의 쟁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일 양국은 **정신적 신뢰구축 및 산업계 협력 강화를 위해서 한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일FTA는 한중일FTA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에 오오가와라 아키오 이사장님께서 ‘한

일, 일한 포럼 25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오가와라 이사장님께서서는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를 졸업하시고 스미토모상사 종합연구소에서 근무한 후에 2014년도부터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오오가와라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 오오가와라 아키오(大河原 昭夫)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매우 상세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자리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 윤 회장님, 그리고 사사키 회장님을 비롯한 양국 경제인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를 받았던 스미토모 상사에서 40여년 일을 하면서 일본국제교류센터와는 지금까지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비민간 조직, 즉 NGO, NPO입니다. 따라서 한일포럼에 제가 관여한 것은 4년 정도고요. 저보다도 이 포럼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선 발표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한일포럼에서 세 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굉장히 열의에 넘치는 그런 논의도 포럼에서 하는데요, 제 발표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한 다라는 의미에서 한일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함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25년에 걸쳐서 선배 여러분들이 그때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등에도 흔들리는 상황도 있겠

습니다만 이 한일포럼을 이어왔던 것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도 이번 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만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이 한일포럼이 탄생 할 때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양국의 지적교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한일포럼의 탄생 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설립과 개요, 의의와 성과,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시도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한일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시면 ‘한일양국의 지적교류의 역사’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충실치 못한 내용인 것 같아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요 이벤트를 뽑아봤습니다. 밑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그때 시대 배경을, 이것도 상세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표는 1977년부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대전, 한국전쟁을 거치고 65년에 양국의 국교정상화의 움직임이 있었고, 위에는 한국, 아래에도 한국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세계 대전 이후에 이승만 정권 등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냉각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의 민주화가 추진이 되면서 제2단계라고 할까요? 양국관계가 약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1년에 냉전 종식으로 인해서 국제환경이 크게 바뀐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관계가 또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표현에 따라서는 제4단계에 이르렀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지적교류회의’라고 해서 나중에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일지적교류회

의가 197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하는 형태로 ‘한일 21세기 위원회’가 있었고요.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러한 한일포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는 형태로 역시 한국과 일본을 논의할 때 역사문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큼니다. 그래서 ‘한일역사연구촉진 공동위원회’가 저 자신이 준비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 21세기를 위한 한일 새로운 파트너십, 그리고 월드컵공동개최가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제가 강조 하고 싶은 부분은 오른쪽 하단에 새로운 페이지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만 하네다~김포 직항편 취항이 있습니다. 한일포럼이 처음부터 크게 기여를 해준, 게이오대학에 오코노기 전 교수님께서 나리타에서만 한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우니까 셔틀과 같은 한국과 일본을 더 왕래하기 쉽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일포럼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003년 인가 하네다와 김포 간에 직항편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기가 다릅니다만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 때는 한국과 일본의 왕래는 연간 2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어제도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한국과 일본 합하면 6백만명 가까운 사람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한일포럼이 기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 페이지입니다.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왼쪽 위에 있었던 한일지적교류회의 사진을 넣어놨었는데, 197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국제교류센터 JCI와 고려대학의 아시아문제연구소와 협력하여 민간차원에서의 한일간에 지적 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만든 것입니다. 전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한일관계는 경제계에서는 매우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

서 어제부터 여러 번 언급이 된 것처럼 한일 경제인회의도 1969년부터 50회 가까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는 냉전시대였던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해서 경제계 외에 교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민간차원에서 양국 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공동대화 또 대응을 해나가자, 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77년 7월에 일본 하코네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양국에 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들이 각국 10명씩 참석을 해서 당시에는 영어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참여 했던 선생님들 이름을 보면 저도 아는 정말 쟁쟁하신 고명하신 선생님들이 한일지적교류회의에 참가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한일 21세기 위원회’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1988년부터 다케시다 총리와 노태우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양국 정부의 보고서를 제언으로 제출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주된 활동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1차 회의를 1988년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5년에 걸쳐서 합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거해놓은 것처럼 1991년 이 위원회를 종료함에 있어서는 위원회로서 폭넓은 분야, 즉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넓은 주제를 매우 충실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총괄하여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일포럼과 관련됩니다. 한일포럼은 93년부터 그 후에 1997년 7월에 한국 양국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출범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향, 대책입니다.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역

사에 대해서 공동연구하고 역사인식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이 아니었고, 어떻게 역사를 공동으로 연구하면 좋을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을 제언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특징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밑에 여러 가지 열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역사연구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한일포럼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리바와 같이 비교적 사전 작업을 길게 하였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한일포럼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설립배경으로는 냉전이 종식되었고, 한일양국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하자는 논의가 되었고, 이런 기운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측에서는 오와다 외무사무차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본국제회의교류 JCI가 여기에 바로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모토 타다시라고 하는 저희 초대 이사장이 원래 미일관계를 관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만 1960년대 후반에 ‘미일 지식인회의’라고 하는 시모다 회의에 사무국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한일도 맡으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받아서 한일포럼 그런 의미에서는 시모다 회의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미일과 마찬가지로 한일의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5년 정도 전에 76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사장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모토 이사장은 미일관계에서 많이 관여를 하는데요, 한일관계도 이도록 깊은 관여를 했는지를 역시 최근 들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오재희 전 주일대사, 또는 한승주 외무부 당시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 한일포럼의 설립



에 관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전준비를 통해서 93년 11월에 호소가와 총리와 김영삼 대통령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미래지향적인 민간대화를 위한 장으로서 한일, 일한포럼 설치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이 제1차 일한포럼의 사진입니다. 연단에 서 계신 것이 오와다 사무차관, 그리고 옆에 서 계신 배재식 당시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 두 분이 제1차 한일포럼에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참고로 오와다 차관 이후에는 제12회부터는 기꼬망의 모리회장이 한일포럼의 의장을 10년 정도 맡고 계시고, 현재는 구마모토현에 있는 이우쿠베 마쿠테 선생님이 일본측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측은 배재식 선생님 이후에는 최광수 경제부장관, 그리고 공로명 전 장관님,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도 참석하신 유명환 외교부 장관님께서 즉 전 외교부 장관님들이 한국측의 의장을 맡아서 일한포럼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한일포럼의 개요입니다. 일본국제교류센터는 일본측 사무국을 처음부터 맡았고 한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맡으셨습니다. 예산은 양국이 정부 예산으로 실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일본측에서는 외무성의 위탁 사업이었습니다만 민주당 정권시절에 일반경쟁 입찰로 바뀌어서 조금 불안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출 장벽이 물론 높긴 합니다만 덕분에 저희가 매년 입찰에서 낙찰이 되어 여전히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회의형식은 아래 나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현역 외교관과 정부 관계자들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즉, 트랙2에 위치해 있어서 국회의원, 경제인, 학자, 저널리스트, 양국에서 25명씩 총인원 50명 정도의 규모로서 비공개로 3일에 걸쳐서 자유롭게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안전보장이란든지 양국 국내정책, 경제 통상정책뿐만 아니라 양국의 시민교류 등에 대해서

도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 한일경제인회의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한일포럼도 그 당시에 정치상황만 가지고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만 끊임없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8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당시에 한일관계가 매우 경색돼 있어서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하여 그렇다고 합니다만 매년 여는 것을 중단하긴 어렵다고 해서 양국의 관계자들이 매우 큰 노력을 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요 2012년 12월에, 8월에 개최하기로 했던 것을 연기해서 12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위를 거쳐서 2014년에 제가 이 자리에 취임한 후 처음 열렸던 포럼이었는데, 후쿠오카에서 8월에 큐슈에 경제회의의 여러분과 또 큐슈대학 관계자 여러분이 운영회를 열고 준비해 주셔서 JR큐슈의 관계자분 이 시아라 씨를 중심으로 천명 규모 정도의 리셉션을 개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어서 그 열의를 저도 다시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중단하는 일 없이 한일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런 한일포럼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습니다만 논의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실행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현을 하는 것을 의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95년에 월드컵 한일공동개최에 대해서 제주도 회의에서 저희가 제언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일포럼의 제주도 스테이트 포럼’이라고 해서 세기가 바뀌려고 하는 시기, 21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세계적인 이벤트를 한국과 일본이 각각의 주체국이 되기 위해서 꽤 치열하게 경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경쟁으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이 세계적인 이벤트를 공동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발신을 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996년에 FIFA가 양국에 의한 공동개최를 인정하고 2002년에 FIFA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일 양국 각지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 역시 한일포럼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주제로서는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국민으로 방문하셨을 때 오부치 총리와 한일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이라는 것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한일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라는 의미로 이러한 선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를 했던 한일공동선언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내용이었지만 그중에서 한일포럼이 양국의 지적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양국에서 높게 평가하며 이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것도 높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포럼의 새로운 활동으로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포럼이 어떻게 보면 좀 연배가 있으신 고령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대교체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시도로서는 2015년부터 주니어포럼을 시작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이 각각 10명씩 참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약돼 있어서 제1회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학생들과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는 반대로 일본인 학생들과 일본으로 유학 온 한국인 학생들이 참가를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산이 제약

된 가운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일포럼의 본회의와 주니어포럼을 융합하는 형태로 세대간의 교류를 촉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에 두 번째 내용으로는 ‘한일포럼상’이라는 것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로는 오래도록 한일교류 촉진에 기여해온 민간인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경제인회의에서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만 기여를 하신 유공자들에게 그 분들을 평가하고 시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입니다. 제1회 수상자는 와카미야 요시부미 주필이었습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주필께서는 창립멤버의 한명으로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도 일본국제교류센터에 시니어 펠로였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중국에 출장 가셨던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만 한국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돌아가신 후에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사진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유기배입니다. 한국에 유명환 의장님이 계십니다. 제2회는 지난달에 서울에서 열렸던 한일포럼에서, 여기에서는 국제한국연구원에 원장이신 최서명 원장님이 오래로서 양국에 교류 촉진에 기여를 하셨다고 해서 한일양국이 모두 합의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5차 한일포럼은 금년에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 이틀째 이른 아침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성명에서는 북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담은 형태로 의장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발표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의장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실 경우에는 JCI 홈페이지에 제25차 한일포럼의 내용과 의장성명의 전문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중복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일포럼이 앞으로 맡아야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오부치에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일 관계를 더욱더 충실하게 만들어 가자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양국은 그때 그때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야 말로 힘이 된다는 의미에서 플랫폼으로서 이 포럼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략하고 네 번째는 앞서 주니어 포럼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일포럼상’을 통해서 한일관계에 그리고 이 포럼의 존재의의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경제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꽤 오래 전에는 도요타 쇼이치로의 경단련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일경제협회의 회장들이 이 한일포럼에 참석을 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에 연혁을 제가 살펴봤더니 93년에 제2회 한일포럼에 멤버로 첫 참가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일경제인회의와 한일포럼의 교류도 활발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처럼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인 여러분들의 출석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희로서는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걸 계기로 앞으로 한일경제인회의 여러분들과 한일포럼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히 해나갈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급하게 달려오긴 했습니다만 경제계와는 또 다른 형태로

한일포럼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조금은 양국관계 개선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일포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 장 :** 오오가와라 아키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지적교류의 역사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위원회의 연혁과 역할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일포럼 1993년에 발족된 이후에 꾸준히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역시 월드컵 공동개최라는 이런 제안을 해 주셔서가지고 성사를 시킨 점 큰 업적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간의 관계구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실 것이고, 또 경제계와도 협조를 같이 해나갈 것을 제안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이 다 발표를 하셨습니다. 대략 그때 그때 조금씩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해보는다면 정인교 부총장님께서 ‘보호주의 대두’라는 세계경제의 변화 하에서 한일 경제가 가야될 협력방안으로 한일FTA 체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지야마 도모히코 상석펠로께서는 역시 비슷한 세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화에 앞장섰던 나라들은 뒤로 물러난 감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비슷한 위치에 와 있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같이 세계화를 더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동시에 같이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덕근 교수님께서도 특히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통상 여건의 변화, 특히 NAFTA라든지 한미 FTA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점하고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한일FTA가 체결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오가와라 아키오 이사장님께서도 특히 한일포럼의 업적을 잘 요약해주셨는데, 지난달에 개최되었다는 25차 한일포럼에서 제안됐던 내용에 보면 역시 한일FTA 체결하고 한국의 TPP 가입 등 통상경제관계의 향상을 한일포럼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적인 제약을 두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표를 서로 하시면서 발표자들끼리도 의견을 서로 조율하거나 나누어 볼 기회가 없었고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발표하시면서 조금 충분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든지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또 다른 발표자에 대해서 질문이나 논평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4분 이내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역시 발표하신 순서대로 정인교 부총장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 (보충발언 및 질의응답)

##### 정인교(鄭仁敎)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예, 감사합니다. 저 외에 세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만 일본측에서 발표하신 논문 주제는 통상 분야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제가 굳이 토론을 한다면 안덕근 교수님 발표와 연관시켜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안덕근 교수님도 미국 통상당국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덤핑이나 상계관세 관련된 아주 무리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WTO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말 그대로 미국의 일방적 조치인데, 미국이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나라도 따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국가는 중국이 될 수 있고, EU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세계통상환경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화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학자들이 모이는 모임에서는 논의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가 아직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서 그런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일재계의 지도자들도 또 한일 정부도 좀 더 깊은 그런 우려를 서로가 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게 양국으로만 거처서 될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 논의를 모아가야 되는데 이런 모임이 앞으로 어떤 행태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계회의에서 진지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예, 감사합니다. 후지야마 도모이코 펠로님 말씀해 주시죠.

##### 후지야마 도모이코(藤山 知彦)

#####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 전략센터 상석 Fellow

저는 개념적인 논의를 드렸습니다. 현실적인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실제 자유무역이 없어졌을 때 시장에서 시장을 잃음으로서 시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실은 미국 경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트럼프 정부에 이것을 전달해 갈 것인가, 아직

그것은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그것을 깨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이 사라진 후에 TPP, 미국이 빠진 후에 TPP를 실행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시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교수님께서 캐나다나 멕시코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들어오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NAFTA의 구상이 지금보다 길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것보다 이제 TPP가 더 빨리 논의가 진전이 될 경우에는 반대로 미국에 다시 한 번 재고를 요구할 수 있는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전세계 글로벌리즘의 조류에 나중에 이제 진입을 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그리고 중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일FTA를 사실은 먼저 체결을 하고, 한중 또는 중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반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라도 알셉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레벨이 높은 그런 FTA를 먼저 추진함으로써 아시아의 FTA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지금도 희망이 없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 맞대고 논의하기 보다는, 그리고 그렇게 맞대서 나온 의견을 전세계로 발신하는 것이 양국에서 훨씬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예. 감사합니다. 안덕근 교수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안덕근(安德根)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동감이고요. 한일 간에 경제협력 문제가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재계의 목소리가 항상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게 한일FTA를 출범시키는 단계까지는 한일양국의 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저도 그 당시에 산관학 단계에 있을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산관학 연구단계가 2년으로 예정된 게 1년 반만에 마무리가 되고, 협상에 6개월 예정보다 빨리 돌입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산업계에서 재계에서 모든 이슈가 다 논의됐고, 빨리 지금은 실제로 나서서 협상을 할 때지, 앞서서 더 이상 연구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이게 협상의 진행이 돌입이 됐다가 그 후에 협상이 중단이 된 이후에는 재계에서 그런 노력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한일간에 이런 걸 하자’라는 게 있었지만 그때 만큼 정말 절실하게 양국이 산업계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좀 해주길 바란다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문제나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문제가 지금 10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려서 지금 오늘 논의한 것처럼 양국에 여러 가지 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일본에서는 4차 혁명 같은 걸 잘 안 쓰고 있지만 흔히 한국에서 얘기하는 4차 혁명, 새로운 산업이 지금 부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양국이 재계가 한일산업계에 협력 전략적 제휴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뭔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정인교 부총장께서 얘기하셨던 추진 전략 보고서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만들

어 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보고서에 뭐 아주 기발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논의를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게 있고, 이런 걸 실제로 시작을 했을 때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 그리고 정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런 동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산학연을 묶어서 계속 이러한 논의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끌고 나가는 것들은 아마 이런 경제인회의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오오가와라 아키오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 오오가와라 아키오(大河原 昭夫)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일포럼 속에서 제공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후지야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리즘 세계화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이 약간 바뀌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형태로 어떻게 연결해나갈 것인가. 아무래도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됐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룰을 한국과 일본이 비록 만들지는 않았습지만 ‘이런 것이구나’라는 전제로 여러 가지들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트럼프정권이 이제 출범함으로서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형태로 규범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실질적인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전제를 마련해 가는데 있어서 양국 모두 정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라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경제인회의와 같이 정부가 아닌 입장에서 정부에 제언을 하고 움직여가는 것, 여러 가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이상하다면 그 조건을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먼저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관학의 형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 자리를 마련하고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리즘, 즉 세계화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면서 세계화에서 좋은 규범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질문으로는 후지야마 선생님께, 한일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구현화해 나갈 것인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그 아이디어를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후지야마 도모히코(藤山 知彦)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상석 Fellow

한일 FTA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인회의에서 제언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국의 정치문제가 특히 관에 영향을 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습지만 매우 차지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국의 정치문제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결의를 촉구하는 것이 저희가 한 번 더 시도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도 IMF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주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사고방식, 이것을 한국과 일본이 좀 더 논의를 해서 즉 금융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 이것은 아시아에서는 금융센터, 싱가포르, 도쿄, 홍콩, 상하이에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런던, 뉴욕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세계적인 체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지금의 금융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논의를 과연 양국이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기업의 회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CSV의 기준을 도입을 했을 때 인류적인 과제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를 우리가 조성할 수는 없을 것인가. 즉 여러 가지 주제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유럽, 미국이 만들어진 이런 금융시장주의라든지 시장주의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좀 더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양적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전세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포퓰리즘을 한국과 일본이 과연 피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양국이 서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것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정치를 떠나서 NPO, 즉 시민사회에서 서로의 민주주의를 점검해가는 그런 논의를 하는 이런 교류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에 걸쳐 장내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논평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짧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카스기 노부야 (高杉 暢也)**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명예회장**



매년 비슷한 질문과 코멘트를 하고 있어서 저도 좀 질리는데요. 한일FTA 이야기는 오늘 말씀 나왔듯이 2003년, 물론 그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2003년부터 해마다 경제인회의에 합의사항으로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라는 것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안 교수님께, 질문이라기 보다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싶은데요. ‘경제계가 별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냐?’ 아니요. 저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계에서 실제로 관광가이드 자격이라든지 IT통신 관련 자격, 이런 자격제도를 공유화해서 ‘우리 이러한 게 어렵다, 그러니까 FTA를 빨리 체결해 달라’라고 제안하자는 움직임도 있고요. 오늘 현재도 한국의 대학생들이 취업자리가 없다, 한국에 없다고 해서 일본기업에 취업가



기 위해서, 또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서울재팬클럽에 그런 걸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 논의가 있듯이 정치 외교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무 것도 활동을 안 하고 있거나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좋은 기회인데 제가 교수님께 여쭙보고 싶은 건 한일서비스협정, 이것이 하나의 출구 그리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디씨에이를 돌려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일서비스 협정이 한일FTA 하나의 돌파구가 된다면 정말 그것을 힌트로 삼아서 오늘 경제인회의에서 결의를 다지고 그런 방향으로 전진하자라고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서비스협정, 협상, 이런 새로운 컨셉 이런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지금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말 알찬 그런 체결이 될 것인지, 실리가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안 교수님. 아, 모아서 답변할까요?  
예, 그러면 질문을 우선 한 두 개 더 받고 답변을 몇 분이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원기**  
**신시네티대학 교수**



신시네티대학에서 글로벌 프로모션 일을 조금 하는 김원기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일종의 작은 제안입니다. 한일월드컵은 아니지만 조그만 일이 그러니까 ‘스몰 벳 익스 워터’한 제 고향이 경상북도 청도인데 그 청도가 대한민국에서 제

일 크게 소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일본에서 소싸움하는 팀이 다섯 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하고 같이 게임을 해서 당연히 1등하는 소싸움장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알려지지 않지만, 잠깐 두 번째는 우리 한일경제협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계명대학에 좀 있었습니다. 계명대학에서는 오모야마학원대학과 계명대학하고 50년 동안, 한해는 오모야마에서, 한해는 계명대학에서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질이 카센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카센터가 오사카에 카센터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똑같이 한해는 대구에 초청하고, 한해는 오사카에 가서 이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민간차원에서 이런 교류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조그만 일이 워낙 원더하지 않겠나 하는 제 느낌입니다. 역수로 고맙습니다. 김원기입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SETO포럼 이사장**



신각수입니다. 앉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분 발표 잘 들었고, 저도 한일 FTA 체결을 위해서 2011년부터 13년간 두 번째 한일간에 굉장히 집중적인 실무교섭을 했는데,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건 좋은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2012년 이래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일경제관계가 굉장히 지금 얼어붙어있습니다. 여러 지수를 보더라도 일본에 대한 투자라든지 무역액도 천억불을 넘었다가 지금 7백억불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수출시장에서 3위에서 5위로 떨어졌고, 이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 한일경제인회의가 상당히 그런 현장에서 선두에서 서 계신 분들의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 물론 한일관계 전체가 회복되면 좋아질 거라는 일반적인 관측은 합시다만 꼭 그것을 한일관계가 회복돼야 경제관계가 회복된다 라는 그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한일경제관계가 좋아져서 한일관계를 전반적인 걸 좋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발상의 전환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 아까 후지야마 펠로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국제 지수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우리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지식을 결합한 그러한 기여를 할 부분이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근대화를 했고 한국도 늦었지만 빠른 근대화를 한 나라 중에 하나고, 두 나라가 OECD에 2개 밖에 없는 회원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지야마 선생께서 얘기하신 그런 큰 메트로 레벨에서의 한일협력에 의한 세계화에 대한 기여, 국제질서유지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 중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카 모토유키 (岡 素之)**  
**스미토모상사(주) 상담역**



일본에서 온 오카라고 합니다. 방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요, 앞서 후지야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왜 지금 글로벌화에 반대하는지, 왜 보호주의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시다만 먼저 격차, 양극화 확대라는 것이 큰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봤을 때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금융 중심 주의, 주주시장주의, 이런 것이 자본주의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극화 현상 확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일본 내에서 요즘 주주 지상주의가 아니라 공익자본주의라는 사상을 철저하게 하고 이런 것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자본주의라는 것은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몇 백 년 전부터 해왔던 생각입니다. 즉,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에 공적인 그릇,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종업원, 거래처, 고객, 그리고 주주, 또 사회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 공언하는 것이 공익자본주의입니다. 주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경영해왔던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은 2백년 이상 계속 존속해 있는 기업이 일본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사상, 생각을 갖고 경영해왔던 것이 사회로부터 기업, 종업원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종업원들도 더욱더 활약할 수 있었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후지야마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도 그런 생각,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면 이 글로벌화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주의무역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익자본주의 혹은 공익자본주의와 같은 생각을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서 이걸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간 FTA 관계자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협상도 좀처럼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정치적인 배경, 정치적인 이유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저는 한국과 일본이 정말로 우호관계이고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런 문제도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에서 참 좋은 관계였던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에 역사로서 사실로 있지만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미래지향적,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더욱 우리가,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뿌리에 있는 것이 초등교육에서 한국도 일본도, 일본에서라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한국과는 이러한 관계가 있고, 한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다 는 것을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또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도 일본과의 이런 좋은 관계가 많이 있다, 힘든 때도 있었지만 일본이 참 좋은 나라다, 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서로 양국에서 상대국에 대해서 잘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떠한지 그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고교생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보여주신 동영상도 보니 학생들이 마지막 에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일축제 한마당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앞서 이야기할 때 포럼에서도 그런 회의를, 포럼도 하고 있다고 오오가와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교류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어느 분께서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교류도 있

지만 가장 뿌리 부분, 그 뿌리 부분부터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정치 문제화 되어서 한일FTA가 10년 이상 지나도 좀처럼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필요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두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윤**

**한국의대 명예교수**

**(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국의대 명예교수로 있는 이중윤. 결국 코멘트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한일관계가 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자각을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 중심으로 한 미국통상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한편 한일의 중요한 통상국가인 중국이 사실은 우리가 자유무역을 한 국가가 아닙니다. 적어도 한일의 대표적인 그런 통상국가인 중국, 일본이 말하자면 우리가 한일 다 같이 자유무역체제시스템이 극히 필요한 국가인데 비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통상국가들이 자유무역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한 일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동의 인식을 강화시키는,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련하여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대외역조를 시정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인 그것을 야기 시키는 국가로서 중국, 독일, 멕시코, 한국 등등의 국가들을 말하자면 시정책을 강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독일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

어 중국, 일본, 한국은 미국에 달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겠노라’는 이야기에 한 것에 대해서 가장 흑자를 크게 내는 독일은 별로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이 무엇이나면 결국은 EU라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이 말하자면 미국에, 특히 트럼프에 조금 무리한 통상 요구에 대해서 최소한도 카운팅 페이퍼를 만들어야 이것이 최소한도 극복될 수 있는, 그저 그게 우리는 맞추기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일의 EU의 경험을 통해서 가령 한일이 양재계가 어떻게 말하자면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소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통의 말하자면 그런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류의 양재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무튼 무엇보다 재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자유무역통상 우리가 보호무역에 가장 강한, 말하자면 와 닿을 수밖에 없는 이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양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소위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지금까지 질문이나 논평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질문이나 이런 언급이 되신 분들 순서로 해서 먼저 안덕근 교수님과 후지야마 켈로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인교 부총장님과 오오가와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덕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덕근(安德根)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좋은 질문과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다짜스기 회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 관련해가지고는 양

국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계가 노력을 덜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협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기 쓰여 있는 것처럼 청년인재 채용부터 한일부품소재 등 많은 노력들이 되고 있는데, 협상하고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이게 협상에 돌입을 시켜주면 아마 이 협상 FTA 협상이든 무슨 협상이든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아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게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일 겁니다. 한국은 한미FTA까지 한EU, 한중국 거의 많은 국가들과 FTA체결 등 다양한 모델로 해왔고, 일본도 그 어려움을 겪고 TPP 체결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앉아서 FTA든 서비스협상이든 뭐든 하라고 장만 만들어 주면 제가 보기에는 몇 달 안 걸려서 다 해결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아까 오까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계속 한탄만 하고 있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공식화되어 정부가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산발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되는 것 가지고는 정부가 움직이기에는 동력이 약한 것 같으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협상 같은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런 회의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양국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예를 들면 한일FTA자문 회의라든가 전략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고, 이런 기구가 양국 경제인 회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경단련, 전경련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으니까 뭔가 위상을 갖추고 여기서 좀 더 공식화 되어 있는 보고서 형태로 뭔가 논의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 제안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웨이트가 실리고 정부도 이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상하고 관련된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을 조금 더 이번 계기에 지금 여러 가지 통상환경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양국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한일FTA를 처음에 한국에서 했을 때는 한중으로 갈 것인가? 한일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 경제학자들 간에 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토의가 있었고, 당시에 당장 눈앞에 과실이 있는 중국보다는 어렵지만 일본하고 FTA를 해야 되는 이유가 기술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의 체질을 키우기 위해서 일본하고 가야 된다는 그 판단 때문에 2004년에 일본하고 FTA가 먼저 나왔던 겁니다. 지금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다시 양국재계에서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우리 정부가 다시 한 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후지야마 펠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후지야마 도모히코(藤山 知彦)**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 전략센터 상석 Fellow**

네, 감사합니다. 신각수 전대사님, 오카 회장님 감사합니다. 신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서양과 동양의 문제, 서양이 만든 지금의 세계의 룰, 규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동양쪽으로 뭔가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특히 미국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EU에서는 최근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문

제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동양에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금융시장 우선주의에 대해서 대륙인 EU쪽에서는 시장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영미 쪽에서 시장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좀 더 EU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 오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는 거래를 하는 상대를 저회와 그리고 또 세상, 3자가 모두가 다 만족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CSV 크리에이티브 웨어드 밸류, CSV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을 오카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 이백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2만개 기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구성원으로서 2백년 넘게, 백년 넘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거버넌스 코드문제라든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CSR, 이와 같은 외국에서 수입된 제도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왔을 때 그 정신을 정말 이해하지 않은 채 형식만을 수입해올 경우에는 반대로 기업이 갖고 있는 좋은 문화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동양에 지혜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회계제도가 그런 부분에서 크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익자본주의의 개념이라든가 3자 모두가 만족해야 한다면 그것이든지 이것을 동양에서 더 발언을 하고 확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카 부단장님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치문제가 될 경우

에는 경제 쪽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한일 FTA의 논의가 중단이 되고 있다, 그 본질을 좀 더 파악하고 고민해봐야 된다고 매우 용기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협한이라든지 반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는 논의가 없이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민주주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누가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의 정치적인 조류에 휩싸여서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저희의 후세에 있어서는 큰 불행이 되기 때문에 오카부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용기를 갖고 발언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인교(鄭仁敎)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만 한일FTA에 대한 토의가 활성화된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시간에 신각수 전 주일한국대사께서 말씀하시고 떠나셔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2011년 13년 그 사이에 대사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한일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우리 국내 상황에서는 한일FTA 협상 재개를 논의는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일본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와 FTA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일본과 협상만을 전담하는 팀이 꾸려져서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도 못했고, 그냥 오고가고 하면서 국장급 회의하려고 했다가 과장급 회의로 낮춰져서 몇 번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논의는 있었지만 진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통상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일FTA뿐만 아니라 FTA다운 FTA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은 국내적으로도 한일FTA 논의가 통상 당국을 중심으로 조금씩은 있었습니만 아쉬웠던 게 그 당시에는 일본이 TPP에 성공적으로 가입을 하고 하면서 한일FTA 문제를 TPP와 바로 연관을 시키면서 한국의 통상 당국에서도 뭐 그렇게 우리가 한국이 풀리면서까지 일본과의 TPP문제, 한일FTA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 당시 통상 당국자들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국 모두가 이해를 서로 조정을 하고, 또 서로가 입장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국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역시 아직도 우리 한국정부에서 보면, 통상 조직상으로 보면 일본 전담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상에 있어서 제일 큰 이슈는 한미FTA 개정협상, 그 다음에 중남미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개시문제,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얼마 전에 띄웠던 유라시아 지역과 FTA, 말은 유라시아라고 하지만 러시아와의 FTA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통상현안으로 돼있는데, 여기에서 한일FTA도 이들 이슈 못지 않게 중요하고,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국내적으로 심어야 되고, 그게 바로 안덕근 교수님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를 많이 했었고 제안도 했지만 그러나 그게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 저 역시 똑

같은 그런 생각이구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쨌든 한일FTA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그런 힘을 2002년, 2003년, 그 시점으로 돌아갈 정도로 우리가 한일재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 양국 통상 당국이 새로운 이슈를 지금 잡아야 돼요. 또 상황으로 봐서 한일FTA가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한일 재계 지도자분들께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데 왜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오가와와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오오가와와 아키오(大河原 昭夫)**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이제 슬슬 끝날 것 같아서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FTA에 대한 말씀 지나름대로 이해한 것은 앞서 청중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요,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앞서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PP 11, 알셉, 여러 가지 동향이 있는 가운데 그런 둘러싼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선순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인교 부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국이 FTA 통상환경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우선순위와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정치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FTA협상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협상할 수 있는 전문가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우선순위를 아무래도 매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결국 정치적 리더십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전세계 전체 메가 FTA 동향 속에서 한-중일 FTA를 우선순위를 더 한국과 일본의 힘으로 한-중일 FTA를 더 올려야 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예, 감사합니다. 아직 논의할 게 더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의 한일경제’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가졌던 제1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로 참여해 주신 네 분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을 맡아주신 노성태 좌장님과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곧이어 한일 양국 단장단의 공동성명 심의 및 오찬회가 36층 피콕스위트룸에서 개최됩니다. 공동성명심의회에 참석하시는 한일 양국 단장단과 관계자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원 여러분의 오찬은 옆방인 크리스탈볼룸Ⅲ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찬은 별도 식순 없이 진행되오니 자유롭게 식사하시면서 환담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세션은 식사후, 1시 20분부터 속계되오니 1시 15분까지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찬장으로 이동하시어 유익한 오찬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7. 제2세션

테마 :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 가일층의 한일  
경제협력을 향해서



사회 : 김정호 한일경제협회 부장,  
이하 동일

사회 :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성명심의회가 될 끝난 것 같습니다. 2분정도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을 향해서 라는 주제로 진행될 제 2세션의 좌장님과 주제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라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2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이며 동대학 부속 현대한국조선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고하리 스스무 교수님이십니다. 고하리 스스무 교수님은 동경외국어 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의 서강대와 서울대학원에서 근무하셨으며 한국주재 일본대사관 정치부 전문조사관을 역임하신 한국전문가이십니다. 이어서 제2세션 주제발표를 해주실 한일양국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 발표자입니다.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문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이

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십니다. 이어서 일본 측 발표자입니다. 먼저 후지요시 유우코 우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님이십니다. 후지요시 사장님께서서는 현재 한국 최대 일본계 커뮤니티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다카야스 유우이치 다이토문화대학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 신문 외신부 부부장님 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의 진행을 코하리스스무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좌장 : 【고하리 스스무(小針 進)  
시즈오카현립대학  
현대한국조선연구센터장,  
이하동일】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고하리 라고 합니다. 일본의 시즈오카 현립대학에서 한일관계라던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사회학이나 정치학 쪽에 가깝고, 경제학이 전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경제인회의긴 합니다만, 경제라고 하면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회공동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49회를 맞이하고 이번에 50회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런 기념비적인 해를 앞두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체 주제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이 2세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난 키워드가 앞으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일양국모두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과제 선진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제 선진국이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가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용이라든가 양극화

현상, 오전에도 있었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논의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 환경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앞서는 형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재해, 그리고 지진도 있겠고, 또는 테러, 에너지문제, 자원부족, 식량 확보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표하시는 분들이 네 분 계시고 토론자가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이러한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해 제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발표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이든 제조업이든 저출산 고령화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양국이 과제 선진국이라는 것을 염두 해두고 한일협력에 있어서 어떤 협력이 가능할 것 인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행복도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좋고, 그리고 왜 좋게 할 것인가? 오전에 주주제일주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행복해지고 싶겠습니다만 행복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을 하는 생활인의 입장, 일본에서는 이런 생활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본과 한국이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이정표,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제안이라는 것이 오전 중에도 한일 양국이 함께 세계를 향해서 확산해야 될 텐데, 어떤 제안이 의미가 있을 것 인가? 매우 작은 글씨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아진 않을 텐데요.

이 그래프는 유엔에서 '더 월드 해피니스리포트' 세계의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OECD가맹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행복 할 것인가,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위스 5위가 핀란드로 되어있습니다. 미국은 14위입니다. 일본은 이 표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51위입니다. 그럼 한국은 몇 위일까요? 보시면 한국은 그 다음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5위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50위권대 입니다. 중국은 79위 이구요. 하나의 지표이니까 절대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러시아는 40위입니다. 왜 한일이 50위대인가 물론 의문점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왜 우리는 이 부분을 실감을 하지 못 하는가 행복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토론자에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시면서 이 발표를 들으신다면 몇 가지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발표하신 분들은 미리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 분께서는 4분의 발표자가 계시는데, 15분씩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소개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제외하고 15분. 자기소개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20분이 되면 한국국회청문회 방식으로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끊어집니다. 20분 안에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시통역으로 오늘 진행되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론하실 때 빠르게 말씀해주시면 결국 50%밖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씀하시면 100%로 말씀하시는 바가 전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직후이기 때문에 몹시 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밝은 얼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네 분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토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전과 달리 오후에는 토론자로 준비를 해 부탁을 드렸습니다. 호리아마씨께서 의견을 발표해주실 계획인데요, 호리아마씨의 경우에는 서울특파원과 로스앤젤로스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여전히 기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도 알고 계시고 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건 아닌데요, 지금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자 분이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런 여성의 관점을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리아마씨께서 5~10분정도 코멘트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자들에게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충분히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나누시고 또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플로어에 계신 청중들에게 질문 또는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이우광(李佑光)**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



한일산업협력재단의 자문위원 이우광입니다. 자기소개를 코디네이터께서 자기가 해달라고 해서 조금 어색합니다만,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20여년 근무했습니다. 아마 삼성이 일본을 벤치마킹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할까 관리를 했다고 할까 그런 일을 해왔고 한 5년 전부터는 지금 있는 한일산업

협력기술재단에서 주로 한일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주체 측에서 한일 간의 공통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연결을 해서 해 달라고 해서, 저는 고령화, 특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회피할 수 없는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라는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작년부터 특히 일본의 4차 산업혁명명을 특히 제조업의 관점에서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발표하기는 너무 하니까 고령화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한일 FTA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재 한일경제관계가 침체되고 있는데 돌파구는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 발표가 아마 그런 것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이든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이든 볼 때마다 이것을 한일 간의 협력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관점에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비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한일경제관계가 양국간의 수출수입에 있어서 30%이상 2011년 이후로 침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에 대한 투자도 적습니다만 일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도 2012년 이후로 1/4분의 일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올해 들어와서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수출수입이 약간의 증가는 있습니다만 트렌드로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해외에 대한 투자를 보면, 한국 뿐 만아니라 중국도 줄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이나 EU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해외에 대

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현지에서의 수출위주 M&A위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투자매력이 그다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축소하는 한일경제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일단 저의 큰 테마 이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엔 지금 한국에서는 그다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EV, 웨어 이코노미 이러한 새로운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이 한일 경제관계에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역이 줄어든 이유는 양국경제가 좋지 않았던 것, 특히 일본이 그렇습니다만 해외진출이 많았던 것, 한국입장에서는 부품이나 소재의 국산화, 일본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해외에 대한 의존 이런 것 등으로 변화했기 때문이고, 일본경제에 투자하면 한국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EU투자가 대세이고 아시아에서도 인도, 베트남에 관심이 있고 한국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일본이 동아시아 전체에서의 관심은 한국이 캄보디아 다음으로 쏠지, 밑에서 두 번째 일본의 국제협력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16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12년보다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후퇴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EV시대, 웨어 이코노미 이러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구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전에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한일 FTA문제,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한국이나 일본경제 뿐만 아니라 한일경제관계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는 고령

화 사회는 불가피한데,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테마 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고령화 이노베이션이 없기 때문에 고령층의 소비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 제일 밑에 보면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비즈니스 틀을 구축하고 양국이 규제개혁을 하고 표준화를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앞으로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고령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령층이 소비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데 개인금융자산이 1800조 엔이 되고 그중의 60%이상이 60~70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를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한국도 일본정도는 안되지만 전체 자산이 50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60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고령층의 수요를 어떻게 일깨울 것인가 하는 것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60~70대 노인이 매년 쓸 수 있는 돈이 58조 엔이고 것은 GDP 1%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령층의 소비를 늘릴 것 인가 하는데, 이노베이션,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는 어떻게 규제가 완화되고 이노베이션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들이 전부다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업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예를 들어서 IoT 같은 경우에는 센서, 그다음에 로봇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보다는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고령화 사회에 아니면 EV시대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지만, 가장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면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룰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비즈니스 룰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데 대한 이해가 특히 기업인의 입장으로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까지 강점을 가졌던 것들이 모듈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데이터에서 보면 지금 8개의 과정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하나하나 뿐만이 아니라 밑에 물건에 있어서도 각각의 모듈로써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는 연구결과 같으면 하나의 기업에서 수행했던 것을 모듈로서 다른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나드리고, 그 다음에 모듈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가 표준화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감춰야 할 부분과 오픈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자기의 경쟁력 있는 부분을 어떻게 살리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 드릴까?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각 기업이나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만, 한일산업기술협회도 그렇고 일한경제협회도 그렇고 대기업은 대기업 스스로

아니면 수직분업해서 수직계열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4차 산업혁명의 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랄까 이런 것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들을 연결하고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타쿠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경영회는 각각의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경쟁력을 발휘하는 연결된 공장이 지금 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바도 바로 이런 것 들입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가장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자기 회사의 생산노하우나 기밀자료들을 어떻게 공유를 하는가? 이게 굉장한 관건입니다. 오픈크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룰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로즈 해서는 자기의 노하우를 지키면서, 오픈해서는 이들을 공유하는 이런 방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활용 추진법이라든지 지적소유권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일본 경산성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인프라를 어떻게 빨리 구축할 것 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충 한 1년 가까이 한일 양국 간의 IoT 4차 산업혁명추진 현황을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생각한 것은 한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림 하나에 집약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과 한국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연결 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안 될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기업 메이커들

이 한국의 중소기업메이커들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더욱 빠른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대기업과 대기업간의 표준화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아이브이알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스마트 공단추진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표준화 단체들이 협력을 함으로써 한일 간의 어떤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간의 모듈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의 대응이라든지 오늘 설명을 안 드렸습시다만 EV시대라든지 여기의 핵심은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의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를 풀지 않으면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정보보호, 지적재산보호, 인재양성, 중소기업활성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일 양국의 협의체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 특히 정부, 단체, 기업 간의 이러한 협력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표준화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협력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고, 물론 4차 산업혁명만 독일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일본은 2015년 경부터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제가 지금까지 관찰하기에는 독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독일하고 굉장히 협력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협력이 이러한 어떤 규제, 표준, 그리고 시큐리티 이러한 것에서 선행을 하다면 중국이나 다른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한일 간의 산업협력

을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이우광 전문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관리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후지요시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으로 부탁드립니다.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  
**SJC이사장**



한국미쓰비시상사의 후지요시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특별한 캐리어도 없는데요. 저는 1월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재팬클럽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재팬클럽은 현재 법인회원 405개사가 있고, 개인회원 1724명이 있습니다. 서울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회원과 서울 주변의 법인, 일본 법인이 저희의 멤버이고 또 운영하고 있는 클럽입니다. 예전의 일본인회와 상공회의소가 하나가 되어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 반절정도는 SJC멤버들이 신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SJC는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친목교류를 위해서 한국의 사회 공헌사업이라든지 일본인 회원들의 친목을 위한 레크레이션, 오락 이러한 것들은 다 같이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가고 있는 클럽입니다. 한일.일한경제협회와 관련해서 인턴쉽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멤버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멤버가 저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쓰비시상사의 현역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비즈니스가 커지는 거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말하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

데요.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 양국기업을 둘러싼 사업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고, 현재 환경에서 한일 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의 각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의 의견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 있었지만, 한일의 공통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은 올해 고령사회에 돌입했습니다. 한일양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고, 국내 시장에서는 양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국내의 경제도 이미 성숙되어서 저성장이라는 과제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좌측 상단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올해 8월에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4%를 처음으로 초과해서 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에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 고령화 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의 데이터는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은 1.41 한국이 1.25입니다. 35개국 OECD 가입국 중에서 작년 일본은 31위를 했고 한국은 35위 두 나라 모두 대단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는 성숙하고 있고, 한국도 일본처럼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공통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 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력과 동향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신흥시장의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기업은 저절로 성장의 기회를 찾아서 국경을 넘어서서 찾아나가게 됩니다. 그런 자연스런 흐름으로써 신흥국가의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더욱 창출하기 위해서 제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과 이노베이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제한된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 기존사업의 효율화를 더욱더 추진하고 더 심층적으로 사업의 합리화 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빨간 글씨 두 가지의 한일양국기업의 협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 시장에서 한일연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주된 것을 추출했습니다. 한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것, 그리고 강점을 발휘하는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미 에너지 자원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협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노하우와 파이낸스의 확보력 그리고 EPC 경쟁력, 기획력 등 셀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쌓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흥국가의 왕성한 인프라 수요에 따라서 그 지역도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 진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 기업의 신흥국가 시장에 대한 진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기업은 지금까지 중국시장의 성장에서 그 기회를 찾고자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인건비 상승 작년부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사업에 고민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한 결과 새로운 성장 시장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하는 동향이 계속해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 국가들은 섬유, 전자와 같은 노동 집약형이고 경쟁력 있는 현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등 수출형 사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입지형의 예를 들어 소매분야라든지 소비재관련, 신흥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최근의 한국기업의 진출사례를



열거 했습니다. 소매, 소비재 분야의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잠시 관점을 바꿔서 한국의 소비재 관련 교류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고하리 선생님의 최근의 분석결과 내용을 듣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써 실감한 것인데요. 뭐냐 하면 한일의 소비문화교류가 최근 들어서 특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주에 관련된 가공품에 한일 간의 수출은 2016년 총 2,200억 엔이었습니다. 이는 2010년에 비하면 20%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고하리 선생님의 자료인데, 나중에 고하리리 선생님이 자료를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은 상호 확산되고 있고,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슈퍼마켓이라든지 백화점에 직접 가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본의 과자, 잡화, 문구류, 최근에는 아사히맥주를 비롯한 일본의 맥주가 여기저기에 많이 진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소비문화의 교류는 한일 양국 간의 소비자 경계를 풍요롭고 또 수준 높은 곳으로 내실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흥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 사업을 플랫폼으로 해서 거기에 이러한 한일 간에서 전송되고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 소프트웨어, 콘텐츠 이러한 것을 덧붙이게 되는 새로운 한일 간의 연계 협조를 통한 사업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한일 간에서 까다로운 소비자들에게 잘 팔리는 소비재라든지 서비스는 앞으로 소득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신흥국가의 소비자들에게도 크게 매료되고 또 인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에너지 자원분야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한일 기업이 소매라든지 소비 관련사업 도시개발 등의 여러 분야에서 협업을 해서 신흥국가의 생활수준향상에 공헌을 하고 또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신흥시

장의 연계협조와 관련해서 제3국 진출 한일기업협력 조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단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기획했으며 양국 경제인을 제 3 국가에 파견해서 한일연개협조의 현장을 시찰하고 그 대상국가의 비즈니스 과제에 대해서 논의 하는 것 입니다. 올해 7월에 여기 계시는 SJC 멤버와 함께 몽골조사단에 참가했습니다. 한일 협업 안전인 신울란바토르 공항의 건설현장을 시찰했구요, 한일경제 연계 심포지엄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주 몽고협회인 한일양국대사관 관계자와도 대화를 했습니다. 한일의 사업파트너가 긴밀하게 연계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비즈니스 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허심 탄해하게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런 조사단에 참가하였는데 대단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기획해주신 양국 재단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업의 합리화, 사업개편에 대한 한일연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시장의 유기적 성장에 아무래도 한계가 보이는 가운데 확대되는 분야도 있고, 재고해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 기업 간에서는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쟁하는 기업끼리 사업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일기업의 경쟁에서 협조로 새로운 사업연계협조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정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고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경쟁상대로부터 제품을 유통하고 기술 제휴를 하고 생산거점의 폐쇄라든지 합작화 이런 것들도 모두 시야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양국은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제품 유통을 할 때, 또 수송을 할 때 추가적인 수송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것



이 장점이지요. 이 페이지 알아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양국 기업은 원료부터 제품까지의 새로운 밸류 체인을 강화했고, 그리고 제품의 라인업 수평을 확충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경쟁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제한적이었던 한일양국기업이 지금까지의 장벽을 허물고 제품의 수송, 유통, 기술제휴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밀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과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릴 수 있는데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A사가 이 회사가 신설한 제조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기술, 용도기술에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B사에게 제휴를 해 달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B사는 A사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A사의 설비를 정지하거나 혹은 우리가 양도한다거나 혹은 합작을 한다는 그런 선택지를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다면 보통은 한국기업이 백기를 들고 일본기업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의를 시작했더니 범용제품라인업이 한국의 A사가 더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일본에 도입해서 일본의 설비는 스케일다운하자, 그러니까 A사 B사의 제품라인업을 다 합하면 풀 라인업이 됩니다. 이런 합리화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수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업 분야에서 원료부터 제품까지 통합 집약하고 있는 메이커 끼리 일본의 어떤 기업이 특수 그레이드의 최종제품을 강화하고 싶고 중간제품을 경쟁사, 한국기업으로부터 사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원료를 만드는 기초 원료는 일본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회사로부터

한국의 원료를 주고, 한국에서 중간원료를 이용해서 일본의 최종제품, 특수제품을 만드는 이런 제휴를 통해서 최종 특수제품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현실을 즉시 한 한일 양국 간의 기업들이 서로 국경을 초월해서 제휴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한일 양국 간에는 오랜 기간의 거래를 통해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국내 수요의 성장정체라는 공통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은 성장을 위해서 성장지역에 진출하고 제 3국에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간의 강점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밀바탕에 흐르고 있는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서 기존사업 재편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한일 간의 기능을 재조합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태동할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으로써 한일이 연계하고 협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 장 :** 후지요시 사장님 자기소개를 포함해서 딱 15분 지켜주셨습니다. 소비재교류와 관련해서 아까 제 자료 인용해 주셨는데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고 그 외에 15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 이민화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저는 1985년도에 대한민국 벤처기업인 메디슨을 설립하고 의료 산업회사 30개를 잇따라 설립 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협회를 1995년 만들어서 벤처

기업특별법 코스닥 그 외의 주요 벤처 정책을 입안해왔습니다. 요즘은 카이스트교수로 있습니다만 창조경제연구회에서 국가혁신에 관한 보고서들을 매월 공개 발표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전문직의 변화에 대해서 한일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가장 잘못된 이해를 장님 코끼리 만지는 만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빅데이터,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많은 첨단 기술들의 융합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이해하는 것이다. 이들의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상호 관계를 하느냐 하면 이들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술들이 활용되지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세상이 융합하고 있다. 세상의 융합은 기본적으로 1,2차 산업혁명이 만든 오프라인 세상과 3차 산업이 만든 온라인세상 두 개의 세상이 융합합니다. 2개의 세상은 너무 다릅니다. 오프라인 세상은 아톰 원자로 이루어져있고 복제가 안 되는 소유의 세상으로서 한계 효용이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온라인 세상은 비트의 세상 소유가 아닌 공유의 세상 한계 효용이 체증되는 세상입니다. 두 개의 세상이 충돌하는 4차 산업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대표적인 현상이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기업 간의 갈등입니다. 기업가치 80조 우버가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이러한 가치간의 충돌 속에서 거대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생명들의 이름이 유니콘이죠 1만 밀리언달러 스타트업들을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상속의 동물 유니콘을 붙였습니다. 2009년도에 셰일가스 에너지회사 블룸에너지 20개월 후에 중국에 반클이 등장합니다. 20개월 1년에 하나 나오기 어려운 유니콘들이

2011년도가 되니까 분기에 하나 이상, 2014년도가 되니까 한 달에 하나에서 2015년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등장하고 작년에는 무려 74개가 등장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유니콘의 등장 빈도가 100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새로운 현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자리의 절반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많은 특허들이 오픈 소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부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서고 있지요.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유니콘의 비밀을 보면, 이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산업을 하고 있지요. 샤오미, 네스트, 고프로와 같은 기업들은 제품과 동시에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융합한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와 서비스와 결합되는 PSS 전략이 이들의 주된 산업 전략이지요. 이러한 유니콘은 그래서 인간의 수많은 욕망의 영역들 물건을 사고, 놀고, 먹고 하는 이 영역에서 현실에서만 욕망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고, 가상에서만 충족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인간의 예측과 맞춤을 통한 욕망 충족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과 가상은 어떻게 융합하는가? 융합하는 기술이 12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노란선의 바깥쪽은 현실 안쪽은 가상의 현실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현실 세상을 첫 번째 데이터화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화 과정에서 시간, 공간, 인간에 데이터화의 여섯 개의 디지털화 기술이 등장합니다. 시간을 데이터화 하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공간을 데이터화 하는 IoT와 LBS 인간을 데이터화하는 웨어러블과 SNS가 현실세계를 데이터의 세계로 바꿉니다. 이제 데이터는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 있지요.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능한 도구가 인공지능이지요. 인공지능을 통

해서 예측과 맞춤을 하면 그 결과를 현실 세상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나올 수가 없지요. 여기에 아날로그 트랜스포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섯 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과 여섯 개의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 인공지능의 최적화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구조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구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보이지요.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을 왼쪽에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 기술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아날로그 트랜스포 기술이 결합될 때 제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12가지 기술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융합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해 갑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서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서 요리하듯이 이제는 온디맨드 필요할 때 데이터의 냉장고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 식재료를 꺼내서 인공지능이 분석하면 수많은 사업 아이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전문직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기에 한일 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수많은 가설 등이 등장했습니다. 실제 행동도 나타났습니다. 1811년도에 기계가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등장한 러다이트 운동, 1811년이죠. 그리고 1961년 컴퓨터가 타이핑리스트의 직업을 뺏는다고 등장한 오토메이션 잠리스에 이르기까지 200개 이상의 가설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 실제로 기술 혁신으로 실업이 증가한 사례가 있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기술은 일자리를 진화시켰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했을 뿐이지요. 농업의 일자리가 2퍼센트로 줄었지만 78퍼센트가 실업자가

된 것이 아니고 1차 산업혁명에서 제조업으로, 2차 산업혁명에서 서비스로, 3차 산업혁명에서 플랫폼 서비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당연히 기술진보에 따라서 일자리는 사라진다. 그리고 새로이 생기지요. 사라질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 생겨날 일자리가 질문의 초점일 것입니다. 과연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 지는가? 우리는 기술이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의 원천은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기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줄 때 비즈니스가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 일자리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인간의 욕구에서 일자리의 원천이 만들어 집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결핍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파악하지 않더라도 기술혁신이 산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결핍을 벗어나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욕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업혁명을 새로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혁명, 전기혁명, 전구혁명, 지능혁명으로 산업혁명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연결의 욕구를 통해서 비로써 인간과 선순환 관계에 들어갔지요. 4차 산업혁명에 질문은 인간의 새로운 욕구는 무엇인가? 이것이 질문의 초점이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 지는가 매슬로는 1,2,3차 혁명이 바로 매슬로의 욕구 5단계하고 일치해가는 모델을 한 세기 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3차 산업혁명까지 이러한 매슬로의 욕구수준을 만족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존경의 욕구, 나를 나타내는 욕구와, 나를 실현하는 욕구 두 가지가 일자리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동 총량 불변의 법칙 즉,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없앨까? 라는 가설에 잘못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핫도그

만드는 가게에서 핫도그 공정이 자동화되면 그곳에서 자동화 기계만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현실은 이러한 일이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인간은 핫도그가 아니라 이제는 피자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피자를 먹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피자는 아직 자동화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핫도그 기계의 자동화의 결과는 피자과 핫도그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더 많은 인간의 욕구충족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2,3차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욕구가 기술과 인간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행복은 수많은 다른 인간 욕구의 복합적 충족으로 이해해야합니다. 이 산업혁명을 통하면서 경제발전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건 인간이 더 많은 욕구, 더 높은 질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욱더 많은 욕구를 충족하게 된 것은 기술 혁신이 인간의 일자리를 상위 욕구로 이동시켰기 때문이지요. 즉 생산성 증가를 기술 혁신이 이룩하면 여기서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지요. 사라지는 일자리가 새로운 욕구로 인해서 소비증가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핫도그 만드는 사람을 피자를 만들 수 있게 교육해야 되겠지요. 평생교육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삶을 뒷받침할 분배 거버런스 이 두 가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국가의 양대 인프라가 되지요. 이를 정의하면 생산과 소비의 연결고리이지요. 일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반복되는 노동, 창조적인 업,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 이중에서 반복되는 노동은 인간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노예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명과 놀이는 인간이 하고, 반복되는 노동은 인공지능과 로

봇이 협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인간상을 물건을 만들고 의미를 추구하는 호모파베르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호모루텐스를 합친 호모파텐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지원하는 것이 인공지능과 로봇이지요.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갑니다. 노동, 반복된 노동은 인공지능이, 반복되지 않은 창조적인 일과 협력적인 감성은 인간이, 여기서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로 교사는 상담서비스로, 그래서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건강관리 부분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지요. 법률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저널리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협력이 인간과 인공지능을 넘어서 과거에 분리되었던 생산과 소비도 다시 융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은 나누워지고 생산과 소비는 결합하지요. 이런 새로운 세상을 각 경제와 늦 워킹으로 대면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을 누가 만들 것인가 바로 이런 각 경제와 늦 워킹을 만드는 사회 인프라를 만들어야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프리젠테이션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데 협력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15분이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그럼 다음으로는 다카야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다카야스 유우이치(高安 雄一)**  
**다이토문화대학 경제학부 교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다이토문화대학의 다



카야스입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에 일본의 정부기관중 하나인 경제기획청에 입청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제 분석, 경제정책, 조정들의 일을 했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일등 서기관으로써 3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 분석에 큰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대학 쪽으로 가서 현재 지금 교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를 비교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고하라 선생님께서 큰 목소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원래 목소리가 큼니다. 강의를 하면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강의 평가에 학생들이 오히려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정도의 크기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 인데요, 한국 측의 발표자이신 이우광 자문위원님 이민화 이사장님은 제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일본 측의 후지후시 사장님의 말씀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환경변화에서 한일 양국기업은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시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 4차 산업혁명은 향후에 경제성장에 순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는 향후의 경제 성장에 역풍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향후 급속도로 진행될 저출산 고령화 특히 앞으로 일본보다 더 빨리 고령화가 진행될 한국 경제에 저출산 고령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및 한국 측으로부터 세분의 발표자분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입각해서 논점을 집중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슬라이드는 제가 할애하

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시는 슬라이드는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의 속도입니다. 2017년 시점 고령화율은 이것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일본이 28% 한국이 14%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른쪽 봐주시면 2065년이 되면 일본은 38.4% 한국은 42.5%로 한일모두 다른 선진국이 지금까지 경험 하지 못한 초초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의 고령화율 보다 한국이 상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경제학 세계에서는 최근 자주 나오는 이슈 단어로서 인구 오너스, 인구 오너스가 있습니다. 인구 오너스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고 경제활동인구 15세에서 64세인구가 전 인구에서 몇 프로 정도 있는지, 비율이 상승하는 인구인데, 이때는 경제 성장률도 상승하고 사회보장부담이 낮아집니다. 한편 인구 오너스 기간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가 하락하고 있고, 이 시기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사회보장 부담비도 올라갑니다. 오너스는 부담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2인데요, 한일양국의 생산연령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점선이 일본인데요, 점선으로 안보이겠네요. 파란 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선 일본은 1993년부터 인구오너스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이 인구오너스 시기에 들어선 후에 또 25년 동안 인구 오너스 기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적으로는 경제는 순풍을 타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2017년 올해 한국도 인구 오너스기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역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오너스에 들어선지 오래 되었는데, 한국은 바로 올해부터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의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출산 고령화가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률에 포커싱 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재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장이 곧 행복을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을 통해서 소득이 높고 이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행복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고라고 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은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포커싱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오너스기에 들어가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 즉 원래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인구 보너스기에 있었던 1980년, 산의 왼쪽편인데요. 이쪽은 잠재성장률이 4%였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서 1%, 2010년대에 들어서서 1%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 오너스 문제가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사실 대부분 장기 성장률 저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방금 잠재성장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재 성장률은 그 국가의 공급능력에서 산출한 가능한 성장률입니다. 당연히 공급이 가능해도 팔리지 않으면 기업은 생산을 줄입니다. 그래서 반듯이 잠재 성장률대로 실제 경제 성장이 추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성장률은 불황기 즉, 수요가 성장하지 않는 잘 물건이 팔리지 않는 시기에는 잠재 성장률을 하회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의 성장률도 잠재성장률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제 성장률도 저하 경향에 놓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성장 회계라는 기법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잠재 성장률은 기술 혹은 생산성이라고

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의 발전과 노동투입의 성장, 자본투입의 발전, 성장, 증가 등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중 노동투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저하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인구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본투입성장도 고령화에 따라서 떨어집니다. 이것은 고령화로 인해서 자본투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축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뒤에 두 개는 고령화로 인해서 저하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슬라이드는 한국의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이 전요소생산성, 앞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요소생산성의 증가기여, 노동투입의 기여, 자본투입 기여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전의 KDI에 계셨던 신석학 교수님께서 산출, 추계한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요. 한국도 2010년대에는 그러니까 인구오너스에 들어가기 전에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3.6%의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 오너스기 즉,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를 영향을 미치고 난 다음 노동투입, 자본투입, 기여가 크게 축소되면 205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서 일본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4%대에 있었던 잠재 성장률이 1%정도까지 떨어졌던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도 지금은 아직 3%이상 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1%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이드 두 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터는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낮추기 위한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도 한 일 양국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다지



효과는 없습니다.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령화율은 40%정도 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서, 고령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도 여전히 고령화를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의 고령화율은 30%전반으로 계속 유지될 것 이구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일본과 한국만 여전히 40% 가까운 고령화율을 보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 혹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 에서도 잠재성장률을 재고시킬 수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중에서 기술의 발전, 생산성 향상을 재고하기 위한 정책으로써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구요. 범용품이 아니라 소량이라도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부품산업 이것도 고부가가치부품산업의 저변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페이지 생략하구요. 그럼 지금부터 총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과제에 대해서 과제선진국이고, 양국이 서로 협력해서 국민의 행복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OECD국가에서 고령화율이 40%까지 되는 것은 한국과 일본 뿐 입니다. 일본은 40%에도 가까이 거의 40%라고 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유럽, 미국 선진국들은 고령화율이 30% 전반 정도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율이 40% 가까운 국가이며,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라고 할까요?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이 맨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를

앞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의 속도도 한국과 일본은 매우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일본도 여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 과제에 잘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일 협력의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생각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령화 문제와 직결된 의료, 요양분야의 연계 협조입니다.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급속도로 고령화 산업, 고령화와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요양 산업은 한일양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이 먼저 고령화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일본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의료, 요양분야에서 산학이 연계함으로써 산업 분야, 학문분야가 연계협조하면서 한일 양국의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분야에서 한일이 함께 연계함으로써 기술 그리고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면,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를 통한 잠재성장률 저하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4차 산업혁명의 혁신 분야와 관련된 협조, 협력도 중요합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은 향후에 한일 양국의 경제에 있어서 역풍이 순풍이 됩니다. 한일 연계를 통해 제 4차 성장혁명을 경제와 접목시켜서, 기술 혹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이 협력하면 그 결과 고령자의 의료와 요양의 수준이 향상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수요자, 즉 생활자 소비자들의 행복도도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장

산업으로써 잠재 성장률을 지탱하기 때문에 국민생활 전반이 향상되고 행복도가 향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의 경제 성장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역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급증하는 의료와 요양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들 산업의 기술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나아가서 성장률을 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순풍인 제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경제에 잘 접목시켜서 성장률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해서 함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저출산 고령화에 심각한 문제에 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 장 :** 발표해주신 다카야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계를 보았더니 한시 20분부터 시작했는데요. 처음 10분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시 반부터 한시 32분부터 정확하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딱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 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거의 각각 15분씩 맞춰주셨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이렇게 잘 시간을 엄수해주신 분들 별로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시간 정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발표자 분들은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발표자들은 그 부분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여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셨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호리야마씨께 코멘트를 부탁드리구요. 또 문제 제거나 거기에 나오는 궁금한 사항 질문, 그리고 각각

발표자에 대한 질문, 각각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시간은 아직 있기 때문에, 모처럼 와주셨기 때문에 호리야마씨께서 10분을 기본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호리야마 아키코(堀山 明子) 마이니치신문 외신부 기자



안녕하세요. 마이니치신문에서 외신부의 데스크를 맡고 있는 호리야마라고 합니다. 서울특파원,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치부에서 있었고, 또 외교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경제는 사실 전문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왜 불렀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발표자 분들 전부다 남성분들이었고, 어제부터 제가 세 보았더니 무대에 오르신 분, 그리고 수상자, 27명이 전부다 남자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비판을 받지 않을까하고 고하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셨는지, 언론의 여성을 찾아서 아마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박하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 3차 산업혁명에서 거의 패자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날이 사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한국에선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아직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아베총리가 중의원해산 할 때 했던 연설에서 생산혁명이라는 말을 AI, 기술혁신, 이러한 것들이 저출산 고령화 노동부족을 충족하고 보충할 수 있다고 하여서 한국과 일본 모두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

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협력이 더욱더 긴밀해 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한편으로 제 3차 산업혁명의 패배자로서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언급되었던 AI, 딥플래닝, 빅데이터 이것의 기본이 되는 정보는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통계입니다.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은 남성 또는 백인 현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채팅하는 서비스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AI가 했다 던지, 홀로코스트가 올바른 것이라고 했다 던지, 도대체 누가 입력을 했을까? 인터넷상의 편견이 학습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 즉, 인터넷상에서의 편견을 학습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여론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부분의 범위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분석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언론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써 항상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IT기술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전제하에 이러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을 한 결과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더욱더 확대된다고 한다면 행복해 진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의 여론을 보면 찬반의 감각, 이것이 더욱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양극화 되고 분단되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임 할 것인가? 사회를 통합한다거나 지금까지는 정치가에 한정되었습니다만 이런 타협안을 만들어가는 중간지점을 지향하는 것이 과연 AI에서 그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설계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단계에서는 이러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NPO조사입니다. 저널리스트와, 언론인들이 한일 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NPO단체입니다. 지난 7월에 여론조사를 양국에서 했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고 있는가?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물어보았더니, 양쪽 모두 90%이상 96%정도였는데, 뉴스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뉴스사이트는 어디입니까? 더 분석을 한 결과 TV가 75%이상 이었고, 이정도 수치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신문은 불과 일본이 7.8%, 한국에서는 1.4%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신문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한국이 더 디지털화, 또는 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방향에서는 조금 더 앞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본도 이처럼 신문을 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신문기자가 계속 생각해 왔던 여론을 형성한다는 그런 사명과 역할, 이러한 역할을 이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를 대체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만들어 질 것인가? 이것 또한 의문인 것이지요. 그 답은 아직 확실히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요새 통감하고 있는 경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된 과정입니다. 이때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신문, CNN을 비롯한 대형 방송국, 그리고 블로거든지, 지금까지 대통령당선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던 잡지까지도 대부분 이러한 매체의 75%정도가 클린턴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제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SNS의

경향이 양극화 하는, 좋고 싫어하는 찬반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다는 이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안티트럼프가 클린턴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티트럼프들의 정보의 총량이 어쨌든 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회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미디어의 논조, 논점을 입장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어서 논점을 정리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신문이 했던 역할인데, 이것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명백하게 들어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권, 트럼프 선거에 의해서 패배자는 언론이라고 하는데, 마이니치신문에서도 이와 같은 패배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회 여론의 형성하는데 있어서 신문이 관여해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노동부족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의 노동의 질이 바뀐다는 것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바뀌는 가운데,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어떻게 또 누가 예측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써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크게 한계를 느끼고 있고, 항상 제 예측이 엇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예측은 합니다만 좀처럼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회를 어떻게 예측해 갈 것인지. 예측을 하는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기준이 되는 매체는 무엇인지? 아마도 가치관이 바뀌어 가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완전히 반쪽으로 나뉘고

또는 젊은 노동자는 열심히 일해서 소비할 시간이 없고, 은퇴한 순간 소비자가 되고, 갑자기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어서,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령자도 요양의 대상이라던가, 여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즉 고령자도 제 4차 산업혁명의 플러스가 되는 엔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행복하게 되지 않을 지는 않을까? 고령자가 언제까지 소비자로 남고 싶다 라던가, 또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사회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신이 있을 곳을 찾고 사회관여를 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실현 가능할 것인지 혹시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제사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만약 고령자가 생산자로서 소비자로서 다양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의 근무방식, 일하는 방식, 사회에 관여하는 방식도 바뀌어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도중에 한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제 4차 산업혁명이 경제 격차, 세대 간의 가치관의 갭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발언 및 질의응답)

**좌 장 :** 지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부분 이해

가 가시지요? 네 분의 발표자 분들 잠깐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 되었다면 호리야마씨 정리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혹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을 포함해서 라고 하는데, 사회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가? 사회가치관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뀔지는 과연 누가 예측할 것인가 또는 어떤 판단 어떤 기관이 이것을 예측해 갈 것인가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생산자와 비생산자라던가, 고령자와 젊은이, 사회 가치관의 변화가 이분화, 양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질문과 상관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고령자, 여성 등 이들의 삶의 방식, 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것이 바뀌지 않을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 이었고, 네 번째는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AI, 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빈부격차라던가, 세대격차도 계속 확대하진 않을까 이것이 네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괜찮으신지요? 네, 네 분의 발표자가 각각의 관심사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와 함께 15분이라고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말씀 드렸습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추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간은 확보 되어있으니깐요, 호리야마씨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이우광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우광(李佑光)**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

신문사의 관점이 전혀 다르군요. 경제관점에서 는 아까 다카야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사업시험보다도 더 어려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단은 첫째 SNS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조금 혼동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까 트럼프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분야는 이미 SNS상에서 그 다음에 노인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이런 것은 이미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고, 굳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격차의 문제는 굳이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분야에서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민화 교수님께서 답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결국은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생산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사람도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어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지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독일은 독일 정부가 이미 4차 산업혁명이 도래 하면 그런 격차문제 라든지 경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의 교육이라든지, 직장인의 재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받아 드릴 수가 없다는 의문을 가지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일본이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인 것처럼, 4차 산업혁명도 피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작용 또는 여러 가지 문



제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질문이 어려워서 제가 대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네, 감사합니다.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답변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갈까요? 그럼 이번에는 후지요시씨네요 부탁드립니다.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 SJC이사장**

네 제가 상사맨이 듣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주제구나 생각하면서 먼저 한 가지. 저는 한국에 있고, 한일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조금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오늘의 발표에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언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한국 여러분들과 일을 하다보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언론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전혀 다른 감정이 생기고, 오늘 제3국 진출 협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한 한일 경제 협회 두 협회의 재단에서 만들어주신 기회를 통해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 대사님과 오찬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편안한 서로 오픈마인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한일협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정말 사람이 느끼는 부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알려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우광 선생님과 비슷한 대답이 될 수

도 있는데요, 제 1세션에서 발표하신 후지야마씨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네베렐아트의 중요성, 기술이 계속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과제를 내포하고 있고, 사실 제가 문항부라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철학적인 문제 어떻게 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의 교육은 대단히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계속해서 진전되고 그리고 그 기술을 단순히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비즈니스맨이니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도덕성에 대한 부분, 인문 과학적인 지식, 윤리 이런 것들도 다 갖출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잘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학에서도 저와 같은 문항부 쪽은 인문 쪽은 별로 필요 없고, 기술, 과학 쪽에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기술을 올바른 사람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니베렐아트, 이러한 균형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비즈니스맨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문과입니다. 그래서 기업인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면 든든한 느낌도 듭니다.

**이민화(李珉和)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저는 최근 일본이 추진하는 각종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관한 규제 개혁은 유럽을 완전히 앞섰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뒤쳐져 있습니다. 저희 벤처기업협회



가 진행했던 3차 산업혁명 때에는 분명히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 각종 사회적 규제 문제는 도저히 한국이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모든 발전이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 금년 일본에서 발표한 신성장 비전정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얘기를 보더라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전쟁보다 자동차 사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호리야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7개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은 퍼펙트 매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없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다면 그것은 잠재성장률 추락을 포함한 전반적인 하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은 첫 번째, 증강기술을 제공해 줍니다.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더 이상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액티브 에이징으로 가는 생산현상에 뛰어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지요.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각종 증강기술, 그것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한일 간의 가장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증강에 의해서 두 번째는, 조직이 사회 전체의 예측시스템을 누가 예측하느냐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소수의 강력한 언론이 예측 하는 것과 정부가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분산되고, 의견이 분산된 시스템에서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조직화 과정이 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항상 모든 산업발전이 초기에는 U자 커브를 그립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공해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발전이 이뤄지면 공해가 줄어들지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산업혁명이 이제는 정보에서 지능의 혁명으로 가면서 의사결정에 대한

많은 혼란들이 공해와 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해를 없애겠다는 것은 바이러스를 없애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과 비슷한 사고입니다. 바이러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면역력이 커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자기 조작하는 그 자체가 로보스터라는 조직으로 스스로 진화해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투명성 유지하는 사회가 충분히 필터의 능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근무 형태는 유연근무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있는 이런 근무는 사실 오프라인의 연결성이 온라인 연결성 보다 수십 배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요. 하지만 증강상현실 기술 등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의 발달은 이제 유연근무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근무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수많은 교통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연근무를 넘어서 생산과 소비의 분리 문제는 산업혁명을 분리하면서 생긴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얘기하는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장 만들고 싶은 것을 디자인만 내가 웨이프웨이나 신기술에서 다운받아서 내 3D 프린터에 걸면 만들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자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만드는 자가 생산 두잇 유어셀프가 집단지능을 바탕으로 이뤄났지요. 이제는 생산과 소비가 다시 융합으로 갑니다. 아디다스가 스펙트팩토리를 독일로 가져간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제조의 회개, 리쇼어링이 아니고 소비자와의 융합입니다. 소비자 융합이 끝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지요. 그러면 그 다음 형태는 유연근무와 이와 같이 분산 자기조직화 조직은 이제 필요할 때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집중하는 각 경제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런 각 경제가 이미 미국은 2030년이 되면 40%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각 현상이 우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리넨 회장은 우리야 말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돈 안들이고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자 이런 문제를 뒷받침 하려면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을 가져올 것이냐?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냐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냐? 인터넷이 정보의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신문으로부터 신문의 정보독점을 해체 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은 지능의 민주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앤디 앤더슨의 암 진단 능력을 이제는 아프리카 의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극화를 축소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조건은 교육이 전제조건입니다. 모든 기술혁신은 교육혁신과 더불어 갔을 때에는 양극화를 해소합니다. 교육혁신에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의 대학교육의 체제 가지고는 미래사회를 대비하지 못합니다. 대단한 대학교 혁신이 오늘 제 주제에서 빠져 있습니다만, 한 일 공동관계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개의 아젠다란 본질적으로 패러독스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장은 소수가 주도합니다. 성장을 이끄는 것은 노동도 아니고 자본도 아닙니다. 성장을 이끄는 것은 혁신, 기술 혁신을 포함한 혁신이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이 250년 산업혁명의 확고한 결과입니다. 기업이 정신이 이끄는 혁신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분배는 소수에게 하면 안 되지요. 분배는 기본적으로 루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공학도 입장에서 트레이지법으로 보면 분리와 순환의 문제입니다. 성장과 분

배를 분리해서 최적화 하고 두 개의 겹을 메워라. 이것이 1차 분배와 2차 분배로 분배하고,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소이 지금까지는 조세로만 메워왔는데, 기부를 활성화 시켜서 메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궁극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한 번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끝으로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집중된 거버넌스 구조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만드는 민주화 운동이 직접민주주의를 이끌어 내면서 이런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때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고맙습니다. 호리아마씨가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거의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호리아마씨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카야스 유우이치(高安 雄一) 다이토(大東) 문화대학 경제학부 교수**

저는 질문 중에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의 결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IT, 그리고 인공지능에 따른 성장은 격차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T,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라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소득은 올라가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은 당연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먼저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결국 함께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소득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먼저 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 혁신, 그리고 생산성향상을 통해서 성장률을 재고하고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것을 잘 배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재 배분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치게 재 배분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예전 일본처럼 한국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소득의 80% 이상 돈을 많이 벌면 소득세, 주민세로 다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들도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벤처를 해야 할 이유, 이런 행동자체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는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격차, 이것도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 평등은 당연히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IT 타이라고 할까요? 인공지능의 지식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엔지니어 외에 개발이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회, 평등, 공정성, 청년이고 아직 인공지능, 이런 쪽과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고령자들에게도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접한 적이 없는 고령자에게도 누구나 다 AI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할까요?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 어플 등의 개발을 할 수 있다면, 기회가 공정해지고 평등해지고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양극화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재 배분으로 잘 커버하고, 격차 양극화 현상을 성장과 양극화 이것은 이민화 선생님께서도 패러독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해결방법으로써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이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 장 :** 호리야마씨께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호리야마 아키코(堀山 明子) 마이니치신문 외신부 기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제 4차 산업혁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맞다 생각합니다. 또한 신문도 그 형태를 바뀌가면서 사명을 다 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변화에 맞는 신문의 존재방식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치관,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역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다카야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일단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지금 3시 20분입니다. 앞으로 20분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청중여러분께 질문을 받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토론하셨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보충하고 싶다 또는 다른 발표자라던가 토론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지요?

**이우광(李佑光)**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이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면 한국의 재정이 파탄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신데 한국은 지금 재정을 걱정을 하긴

하지만 OECD국 중에서도 비교적 재정이 건전  
한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보면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1990년대 초반정도부터  
재정적자가 본격화 돼서, 지금은 국가 채무가  
GDP의 200%가 넘는다. 그렇게 되는데 솔직  
하게 다카야스 선생님께서 한국의 지금 고령  
화 내지는 복지정책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재정이 앞으로 어느 정도 건전할 것이  
며, 앞으로는 어디까지가 위험할 것인지? 하는  
의견을 혹시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  
렸습니다.

#### **다카야스 유우이치(高安 雄一) 다이토(大東) 문화대학 경제학부 교수**

이우광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재정에  
관해서도 파워포인트는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  
에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재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  
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점 여덟 개가 있는데요,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서 재정이 파탄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8번에 있네요. 167페이  
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로 나와 있  
는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를 다시 앞쪽으로 돌  
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 숫자 10페이지 우측  
하단에는 10이라고 나와 있고, 번호로서는 8  
번입니다. 8.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요것입니  
다. 지금 이우광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국의 재정은 대단히 일본도 부러울 정  
도로 상황이 좋습니다. GDP의 40%약간 못  
미칠 정도의 국가 채무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  
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0%의 국가채  
무가 있습니다. 한쪽은 OECD의 초우량국가이  
고, 한쪽은 OECD중에서 최악의 국가재정 악  
화 국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급격

하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연금제도가 도입  
된 것이 1988년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 보  
험에 든 것이 1999년입니다. 그래서 연금제도  
가 아직 성숙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 고령화가 진행됨으로써 연금의 성숙화라고  
하는 이중적으로 돈이 드는 상황에 빠지게 됩  
니다. 다만 한국도 이 부분은 충분히 대책이라  
고 할까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국민연금  
이 원래 출범 당시에는 소득대체율 70%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이것  
을 60%로 낮추고, 지금은 40%로 낮추는 중  
간단계입니다. 미래에 장차 연금도 복지가 그  
만큼 폭이 줄어들 것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연금 제도가 성숙화 되고, 게다가 연금뿐만 아  
니라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금과  
의료, 요양문제입니다. 이 장기 요양도 한국은  
국가 재정에서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이런 쪽에 상당히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당연  
히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고령  
자 분들이 의료비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점점 덩어리가 커질 것입니다. 이 시나리  
오를 제가 실제로 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가 예산정책실이 있어서, 여기서는 국회 안  
에 있는 조직인데 하나의 싱크탱크입니다. 수  
년에 한번 몇 년에 한번 향 후 국가 재정에  
GDP비율이 어떻게 될 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  
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추산 같  
은 경우는 2060년에 151%가 되는 것인데요,  
그 전의 숫자는 218%,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  
면 300%까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상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이것을 피하기 위  
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세율  
을 인상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안정 재원화하  
면서 국제경쟁률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는 아

무래도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부가가치세 10%인데 이것을 인상하면 재정 파탄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려운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좌 장 :** 그럼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청중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세분정도 밖에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코멘트 혹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문할 경우에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와카이 슈지 한국닛켄(주) 사장



한국닛켄의 사장인 와카이라 하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다 카야스 선생님의 말씀 중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입 의무 같은 것이 1995년인데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60이 되었을 때 언급 지급이 개시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55년부터 언급을 납부 했고, 그 동안 낸 금액의 3.5배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현역이고 연간 수입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발표하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대부분 3%전후 인데, 이것을 또 추가를 합니다. 사실 젊은 사원들이 나는 언급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받을 때쯤에는 언급재원이 바닥이 날걸? 이라고 항상 젊은 사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돈으로 저녁을 사기도 합니다. 실은 이런 행정과 현실에 잘 맞

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한국도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고령자의 면허를 반납하자. 이것을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면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자동차의 안전장치 의무화가 되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자동차에는 안정자치가 당연히 달려있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 거리가 줄어들 경우엔 알람이 울리고 옆으로 차선이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대비를 하고, 나이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만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라 하더라도 보다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장치업체의 일도 늘게 되겠지요.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즉 행정 정부 측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늘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처음에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행정적인 부분과 현실 사회의 차이, 고령화에 대한 대책의 방향성입니다. 즉 고령자 수요의 한계, 이와 관련하여 답변 해주실 분 부탁드립니다. 고령화하면 일본 측에서 다카야스 선생님이실까요? 또는 기업 측에서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한국 측에서도 잠시 고민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청중 여러분께 질문 받겠습니다.

#### 오카 모토유키 (岡 素之) 스미토모상사(주) 상담역



일본 측 부회장 오카입니다. 지금 질문의 답변의 일부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 공통된 내용인 저출산, 고령화 특히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일본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평생 현역입니다. 평생현역이란 죽기 일주일전까지 활발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60세, 70세 혹은 100세도 있지만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죽기 직전까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아가야하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건강장수 사회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중 하나인 빅데이터, AI, IOT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건강 장수를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도 있는데, 80개의 건강보험에 200명 넘는 조합원의 건강 정보를 매일 수집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병원끼리 연계해서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ICT를 받았다. 저쪽 갔을 때에 같은 ICT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서 병원 측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료비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제는 사회보장비 때문에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고령화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몇 살이 되더라도 본인이 의지가 있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70살이라도 본인이 일하고 싶다면 채용할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시면 월급이 생기고, 또 소비자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장수 사회를 실현할 것인지. 여기에 ICT,

빅데이터 AI등등 제 4차 산업혁명 오늘의 주제와도 관계되지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장밋빛이 되고 행복해 질 것입니다. 오늘은 양극화 격차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차가 없고 전원이 모두가 현역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 장 :** 3분 남았는데요, 지금 고령화에 질문 중에서 답변해 주실 분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다카야스 유우이치(高安 雄一) 다이토(大東) 문화대학 경제학부 교수**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의 수요 이것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수요라고 하면 아무래도 요양, 의료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해 보자면 소극적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고령자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수요, 이러한 수요를 더욱도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건강수명을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인가?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나 병이 들고 요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요양수요는 늘지만 일반적인 여행이라든가 즐거움에 대한 수요는 늘지 않습니다. 즉, 건강수명을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인가? 이것을 AI라던가 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방입니다. 생활 습관병과 같은 부분에서 나중에 요양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생활습관이 있을 경우에 어떤 성인병에 걸리게 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면, 지도를 함으로써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예방지도 이것도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피트니스 클럽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체조교실, 뭐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했을 때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빅데이터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서 적절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자체가 수요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수명이 연장이 된다면, 그분이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여행 운전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이 수요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좌 장 :** 네 감사합니다. 또 보충하실 분 있으신가요?

#### **이민화(李珉和)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운전면허 관계는 4차 산업혁명인 자동운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전체의 4단계 중에서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더 개화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첫째 드리고, 두 번째 고령화는 건강수명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은 원격진료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아까 발표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고령화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원격진료, ICT든 4차 산업혁명이든 이 분야에서 한일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국의 고령화 산업, 의료산업이 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의한 원격진료 이런 분야는 한국도 결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정국

의 어떤 규제 하에서 양국이 협력을 하면 적어도 원격진료 ICT에 의한 원격 진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를 더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원격진료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금년 5월에 패기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빅데이터를 형성될 수 없게끔 개인정보에 대해서 완고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저는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일본이 노령화 선진국으로써 연금에 관한 문제, 빅데이터 개인정보, 노인 의료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자주 한국에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네 약속된 세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고령화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국 언론, 일본 언론을 제가 보았더니 고령화라는 말 아시아 신문을 알아봤더니 연간 2000건 정도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아 일보를 보았더니 연간 500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이것도 신문을 비교해 보았더니 동아일보는 1년 동안 165건이 있었습니다. 이틀에 한번이지요. 일본은 아시아신문 조사했더니 연간 24건의 기사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이지요. 제 4차 산업혁명은 일본에서 아직 와 닿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동시에 언제부터 시작 될 것인지 이미 시작 되었는지, 사실 그러한 감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민화 이사장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아까 문제 제기했을 때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말해주셨습니다. 제 4차 혁명으로 기술혁신이 가능하게 되면, 다양한 곳으로 연결이 될 것 같고, 비즈니스 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윤이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적으로 이러한 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한일관계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이윤으로 이뤄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사회가 아닐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배분 협조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중여러분들 기회를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의 발표자, 토론자, 통역사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 회 :** 그럼 이상으로 제 2세션을 마치고 잠시 커피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정각에 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offee Break

### 8. 폐회식

**사 회 :** 사무국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4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도에 계시는 참가자들 양측 대표단들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착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안내 부탁드립니다. 진행요원들께서는 복도에 계신 양국 대표단 모두 착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식은 김윤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윤 회장 :**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틀에 걸쳐서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49회 한일 경제인회의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측에서 다 함께 공동성명안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사무국에서 발표 후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국 사무국에서 공동성명안을 각각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승 부회장 :** 네, 단장님 그러면 식순에 따라서 한국 측 안부터 먼저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 <제 49회 한일 경제인 회의 공동성명안>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한일협력 강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함께 미래를 열어요!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7년 9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는 김 윤(金鈞) 단장 등 193명,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단장 등 108명이 참가하였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양국 경제인은 한일경제 협력 촉진을 위해, 한일경제인회의를 1969년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양국을 번갈아 가며 계속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한일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인재의 3대 축을 이어오며, 양국 우호를 위해 힘을 기울여 왔다. 한편 한일 양국 간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원활한 비즈니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안정된 양국 관계가 대전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번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양국 간에 가로놓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한데 대해 한일 양국 경제인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최근의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경제인은 제4차 산업혁명·한일공통과제 해결·청소년 육성교류 등,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의 한일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일 양국은 일본의 고용 확보문제와 한국의 대학생 취업난 등 각각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포함하여 아래 사항에 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끈기있는 노력의 지속」 한일 FTA, 한중일 FTA, 또한 메가 FTA로 대표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아시아 전역의 경제발전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노력을 지속한다.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협력」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IoT, AI 등의 자율적 최적화를 보다 고도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생산성 향상·노동인력의 이동·저출산 고령화 대응· 최첨단 의료분야·바이오기술의 발전·녹색기술의 혁신 등 폭넓은 발전을 지향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시대를 짚어질 전문인재의 육성 등 폭넓게 정보와 지혜를 공유하고 협력한다. 또한 발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양국의 신기술 활용을 위해 제도정비가 추진되기를 양국 정부에 요망한다. 한일양국 공통의 사회과제 극복을 향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가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의료·요양문제, 초미세먼지(PM2.5) 등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적 측면에서의 대응 등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통 사회과제의 극복을 향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체제 구축에 협력한다. 제3국에서의 협업 확대」 양국이 자원개발, 인프라 수출 등을 통해 제3국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창조해 가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제3국의 종합적 사회개발에 대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제3국에서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청소년 교류를 한층 더 확대」 한일의 다음 50년을 짚어질 젊은이들의 교류 확대와 내실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고교생교류

캠프·한일학생미래회의·한국대학생의 주한일본 기업에서의 인턴십 연수·중소기업 차세대 경영자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에 가일층의 지원을 요청한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향해서」 격동의 세계를 평화로운 세계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두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관광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양국 정부에 대한 기대」 경제·인재 교류와 더불어 ‘한일·일한축제한마당’과 같은 풀뿌리 차원의 문화 교류를 내실 있게 확대하며, 앞으로도 민간의 선두에 서서 양국 우호·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힘써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도 양국 정부의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다음 한일경제인회의는 제50회를 기념하여 2018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17년 9월 27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고레나가 전무이사 일본어로 낭독, 이하 생략)

**김윤 회장 :** 이상으로 공동성명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이 없으시면 큰 박수로 승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49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이 원안대로 승인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후 진행은 사무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 회 :** 공동성명문 채택에 감사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양국 단장

님의 폐회 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일본측 단장 사사키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사키 회장 :**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매우 충실한 토의가 되었고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모든 것은 여러분의 협조 덕분이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전과 어제 단장단이 한국 정부를 예방 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경제협회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대통령님께서 UN에 참석하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바쁘셨기 때문에 뵙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경제부총리겸 기획부 장관, 산업부 백운규 장관, 외교부 조현 차관 분들을 뵙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9년에 걸쳐서 한번도 중단된적 없이 개최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일양국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한국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희범 위원장, 전경련 허창수 회장님 일본측으로 부터는 주한일본국특명전권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이사님, 일본무역진흥기구 이시게 히로유키 이사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야 말로 다시 한번 미래지향적이고 양국의 발전과 우호관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지인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양국 정부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과 앞으로 50년의 초석이 되는 젊은이들의 교류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참석해주시고 강연을 해주신 코디네이터 및 강연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의 파트너인 김윤희회장을 비롯한 한일경제협회 원할안 운영을 해주셨던 롯데호텔측에도 감사하

드립니다. 내년에는 기념비적인 제 50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도쿄에서 만나길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만 폐회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 회 :** 사사키회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측의 김윤희회장님 폐회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윤희 회장 :** 네 먼저 2일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한일 양국이 걸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계를 하고 인식을 같이하는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통해서 한일이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한 것이 이번회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조금 전 우리 양국 경제인들이 인식을 공유한 내용들을 공동 성명에 담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현을 위해서는 한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가고자하는 지속가능한 행복한 사회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 자리에 계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서 동행해 줄 것을 믿습니다. 49년간 이어져온 한일경제인회의가 내년에는 50년째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가 향후 50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일본에서 만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 김윤희회장님 감사합니다. 두 분 회장님께서 단상을 내려오시기 전에 그동안 회의를 너무 원활하게 이끌어주신 두분께 크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미 두 분 단장님께서 감사 인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 없겠지만 사무국에서 감사 올립니다. 적극적으로

로 2일 동안 참가해주신 대표단 오늘 회의에서 회의를 이끌어주신 좌장님, 발표자, 토론자들에게 깊은 감사 올리고 무엇보다 뒤에서 2일 동안 통역을 해주신 김혜원, 김정남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무국 안내가 있습니다. 폐회식이 끝난후 4시 30분부터 옆의 아테

네가든에서 양국 단장님의 기자회견이 약 30분간 있습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너무나 애쓰셨고 너무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일본에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49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 VIII. 양국단장 공동기자회견



**사회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이하 동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일경제협회 서석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전에 폐막을 한 49회 한일 경제회의의 공동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정으로는 30분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동성명문은 이미 배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못 받으신 분은 사무국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통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끊어서 해주시면 통역이 아무래도 쉬울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언론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우선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언론과 성명을 말씀해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계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일간공영신문사 이노우에 :** 두 회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회의는 북한의 정세 북한으로 인하여 긴박한 정세속에 개최가 되었는데요 회의를 개최한 솔직한 심정을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김윤 회장 :**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남한과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전쟁 이후에 약 60여 년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국민들은 이런 긴장속에 60여년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정세는 한국국민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회의를 하는데 일본측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측에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일본 대표단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사키 회장 :** 일본에서 느꼈었던 긴장감을 막상 서울에 와서 느낄 수 없을 만큼 매우 평온했습니다. 이번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사실 저는 49회 회의를 열면서 경제인회의와 함께 동시 병행해서 한일교류촉진 한마당이 일본과 한국 서울에서 같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일



기술페어 역시 같이 개최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대형 이벤트가 동시 개최되는 것은 지금까지 드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에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이낙연 총리도 방문을 해서 정말 이 축제를 높이 평가해주셨습니다. 일본NHK 일본전국방송을 하는 채널에서 이 축제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 민간 채널에서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회의는 이처럼 화기에애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요, 다음 언론 질문 있으신 분 계시는지 손들어봐 주시겠습니다. 질문 더 이상 없으신지요?

질문이 없으면 두 분 회장님께서 방금 여러 감상을 말씀하셨지만 혹시 회의를 끝내면서 언론에게 당부하고 싶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오히려 부탁드립니다.

**김윤 회장 :**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최근 몇 년간 좋지 않았습니 다. 새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총리가 3차례 회담을 가졌고, 특히 지난번 블라디보스톡에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번 일본 대표단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UN총회에서 막 돌아온 직후여서 여러 국무회의 스케줄이 있어서 시간이 안 맞아 못 만나 보셨지만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외교부 조현 차관, 산업부 백운규 장관님 다 만나 보셨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한일 관계 협력분야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한일경제협회는 물론 일한경제협회 여러분들도 이 방안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을 가지셨습니다. 공동성명에 나와 있듯이 여러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미

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를 많이 하고 그중에 특히 이번에 아주 심층적으로 양국이 토의를 한 것은 일본은 지금 젊은 사람이 모자랍니다. 학교를 졸업한 자의 취업지수가 1.7~1.8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취업의 기회가 많다는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국 대표단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의 좋은 직장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하는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지 연구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양국 교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양국이 어떻게 경제 협력을 할 것인가 그동안 무역을 통한 협력은 수 십년을 해왔지만 물론 아직 한국이 일본에게 무역 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넓게 해서 글로벌 마켓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각자 자기의 장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제 3국 진출에 대해 많은 토의를 하였습니다

**사사키 회장 :** 지금 김윤회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의 요직의 분들을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정부 요직의 분들이 한일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 중단되는일 없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부분을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할테니 양국의 경제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경제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맡은지 몇 년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을 처음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일본 대표단들도 많은 기회와 기운을 얻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에 담겨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제인회의를 통해 주장해 온바는 한일자유무역협정 FTA가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상황 때문에 중단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성명에 이번에도 한일경제권형성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양국의 강점과 단점을 보완하면 여러 가지 잠재성이 있습니다. 양국이 힘을 합쳐서 전세계로 나아가갈 수 있다면 1+1은 2가 아닌 3또는 4가 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것이고, 이러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일뿐만이 아니라 한중FTA 그리고 메가 FTA가 체결이 된

다면 가능성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양국 정상의 신뢰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정부간의 교류가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경제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경제인회의가 5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경제인회의가 50회를 맞이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 더 이상 질문이 없고 두 분께서 할 말씀이 없으시다면 두 분이 악수하는 사진 찍고 끝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큰 박수로 기자회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